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제16회 국제 학술심포지엄

차^茶와 도자^{陶器}의 만남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제16회 국제 학술심포지엄

차와 도자의 만남

강진청자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제16회 국제 학술심포지엄

茶
차와 陶 瓷
도자의 만남

2014년 7월 28일(월) 10:00~16:00
강진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시청각실

목 차

주제발표

주제발표1

- 고려시대 청자 다구(茶具) 3
장남원(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주제발표2

- 용천요 청자문화 총론 19
저우샤오핑(周曉峰, 용천청자박물관장)

주제발표3

- 일본의 다탕(茶湯)문화와 도자기 31
키라후미오(吉良文男, 도자사연구가)

주제발표4

- 唐宋의 茶文化과 茶器 41
서은미(부산대 중국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5

- 하사미(波佐見)의 청자
- 에도(江戸)시대를 중심으로 67
나카노유우지(中野雄二, 하사미교육위원회 학예원)

주제발표6

- 중국 도자기의 정수, 용천청자 81
천시엔린(陳現林, 중국도자예술대사)

종합토론 95

좌 장 : 강경숙(중원문화재연구원장)

토 론 : 이희관(前 호림박물관 학예실장)

이종민(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김윤정(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高麗時代 靑瓷 茶具

장남원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1. 머리말
2. 다구 관련 기록
3. 유적출토 현황
4. 차 관련 주요기종
5. 맺음말

1. 머리말

도자사 연구에서 음식문화와 관련지어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았다. 문집, 의례류, 사서 등이 풍부한 조선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한 고려의 문헌자료나 그림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사원, 민간에서 차가 중요하게 취급되면서 공적인 기구가 설치되고 담당 관원도 배정되었다. 공식의례와 일상에서 통용되었으므로 그 과정에 다구는 필수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전하는 중국측 사신기록 등에서도 차의 존재와 음용, 사여, 행다 등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세밀한 과정과 특히 다구에 대한 설명은 매우 미미하여 오히려 유물로 전하는 수많은 도자기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고려시대 도자기와 차에 대한 관계와 구체적 관심은 더해가고 있다. 이에 본 학술대회 측의 취지에 따라 차의 음용과 고려청자의 관계를 청자다구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성과를 종합하여 개술하고자 한다.¹⁾ ‘茶具’ 범위는 다소 유동적이겠으나 체다, 행다 과정에 소용되는 관련기물을 대상으로 삼아 기물의 명칭,

1)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이화연구총서3(혜안, 2006), II장 4절 : 장남원, 「고려시대 茶文化와 靑瓷청자茶具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23, 한국미술연구소, 2007, 6, pp.129-162 ; 장남원 「소비유적 출토 도자(陶器)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다례(茶禮)의 관계」, 『역사와 담론』, 호서사학회, 2011, 8, pp.389-420 ; 장남원,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명류(器皿類) 연구」, 『역사와 담론』 70, 호서사학회, 2014, 4, pp.165-203 ; 徐銀美, 『北宋 茶 專賣 研究』, 국학자료원, 1999 ; 서은미, 「송, 원대 칙사자료를 통해 본 고려

용도, 사용자, 사용법, 의미 등을 살피고 제작상의 기종 변화도 검토하고자 한다.

2. 다구 관련 기록

고려 관련 기록자료의 차에 대한 내용은 의례나 접빈 등의 行茶 과정에서 보이며, 사료와 개인문집 등에 남아 있지만 청자다구에 대한 명시는 희소하다. 그러나 고려의 연회나 제례 등 왕실 의례에서 차는 중요한 요소였고, 하사품이나 예물 등으로 오갔기에 청자가 음다의 주요기물로 사용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왕실외에도 불교사원이나 도관 등에서 차를 음용하였고, 문인이나 일반에서도 차에 대한 애호가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 왕실의 다구

『고려사』에는 茶가 藥, 香 등과 더불어 왕실 하사품 및 의례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다구의 종류와 재질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왕실기구로 ‘茶房’이 있어 조정의 다례, 王의 巡幸이나 명찰 참례 등에 관여했고 특히 외부 행차의 다례를 위해 火爐와 茶 등을 준비했다. 고려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례와 절차에서 다례에 대한 법도가 정해져 있었고 그 순서와 법식을 다방이 주관했던 것이다.²⁾

고려 왕실에서 이루어진 進茶의례 관련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말 기록에는 성균관 기강이 해이하여 공부를 게을리 하고 정례 제사나 다례에 학생들이 참석않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 고려말까지 성균관에서 다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³⁾ 또 중죄인을 처벌하는 절차에 왕이 최종 판결문의 내용을 결정하기 직전 의례에서도 茶房과 參上員이 결문으로 들어와 茶를 드리고 7품 내시관이 뚜껑을 열어 마주 보고 절하며 차를 권하고, 차를 마시고 내려가면 다음 8품관 이하의 院房이 대신과 추밀관에게 차를 드리면 집례가 다시 올라와 머리숙여 차를 권하고 밖으로 나간다...” 하여 왕과 대신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進茶 장면을 알 수 있다.⁴⁾

고려초 北朝(거란이나 여진) 사신의 入朝에서도 다례가 보인다. 사신이 가져온 예물 목록을 왕에게 드리면 왕은 인사를 전하고, 예물이 전달되는 과정을 마치면 왕은 차와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사신에게 차를 대접할 때 첫 잔은 왕과 사신이 서로 친히 권하였고 재배한 후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면 그 후 서로 일어서서 揖하고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였다.⁵⁾ 왕태자가 신하들을 위해 베푸는 연회에서도 비슷하였다.⁶⁾

그외 설날의 元會儀(정월의식)에서도 다방에서 주관하여 다례를 치르고 음악, 차, 술이 순차로 진행되었다.⁷⁾ 그 외 왕의 딸 아들 탄생 축하의식이나⁸⁾ 대관전의 백관 연회에서도 다례가 보인다. 백관연회는 관직에

시대 궁중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pp.601-608 ; 서은미, 「송, 원대 칙사자료를 통해 본 고려시대 궁중다례의 자료역주와 원전」,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pp.611-619 ; 고연미, 「『고려도경(高麗圖經)』의 금화오잔(金花烏盞) 연구」, 『한국차학회지』 14-1, 2008, pp.7-32의 참조.

2) 金明培, 『茶道學』, 學文社, 1998, pp.256-258 ; 이은주, 「고려시대 궁정의례에 나타난 茶禮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高麗史』卷18, 毅宗 21年 7月 ; 김성환, 「고려시대 차 정책의 운용과 문화」, 『한국의 茶문화』, 2014 경기도박물관 특별전시회 심포지움 발표집, pp.3-28.

3) 『高麗史』卷34, 世家, 忠肅王 1, 甲寅元年.

4) 『高麗史』卷64, 志 第18, 禮 6.

5) 『高麗史』卷65, 志 第19, 禮 7.

6) 『高麗史』卷67, 志 第21, 禮 9.

7) 『高麗史』卷67, 志 第21.

따라 배석하고 다방에서 차를 주관하였고 ‘飲’ 이라고 외치면 차를 마셨는데, 이때도 음악연주와 함께 차와 술, 향 등이 차례로 시행되었다.⁹⁾

왕자나 왕녀의 冊封의식,¹⁰⁾ 왕실이 주관하는 팔관회나 연등회에도 다례가 포함되어 차와 술, 음악과 춤 등이 함께 어우러졌다.¹¹⁾ 연등회, 팔관회는 궁중내에서 예부를 위시한 都校署, 尙舍局 등에서 주관하며, 임금이나 태자가 집례관의 도움을 받으며 의례를 진행하였다고 전한다.¹²⁾ 따라서 이 경우 의례의 형식속에서도 차는 절차간의 경계를 환기하는 표식이 되었다.

고려초부터 고려에 와서도 태조 14년(931) 기록에 군사와 백성들에게는 茶와 幘頭를, 僧尼에게는 차와 香을 각기 차등있게 하사했고¹³⁾ 현종 9년(1018)에는 海驍 2軍의 校尉나 船頭 이하에게 茶와 布를 차등있게 하사했다.¹⁴⁾ 문종 12년(1058)에는 동여진의 歸德將軍 등 33인이 좋은 말을 바치자 의복과 기명, 차 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¹⁵⁾ 문종 21년(1067)에는 퇴임하는 국사에게 茶와 藥, 金銀器皿, 綵段, 寶物 등을¹⁶⁾, 예종 10년(1115)에는 國老인 平章事로 致仕한 吳壽增 등을 위해 閤門에서 연회를 베푼 후 茶와 藥을 하사하였다.¹⁷⁾

왕실의 차 관련 기물에 대한 명칭이나 정황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내용은 『高麗圖經』이다. 그 가운데 ‘延英殿閣’에서는 중국을 다녀온 사신에게 국왕이 베푸는 연회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중국산 臘茶와 龍鳳賜團을 사용했다. 이 때 음다용 기물로 罍, 甌, 湯瓊 등의 명칭이 보인다.¹⁸⁾ <표1>

<표1> 고려도경의 차 관련 기물

기형	세부설명	용도
唾盂(권27)	모두 白金[銀]으로 제작	제할관과 도할관 숙소의 회식 및 접견장소에 비치
湯壺(권31)	위에는 뚜껑을, 아래는 받침을 받쳐 온기가 새 나가지 않게 함	차 끓일 때 구비
罍(권32)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	음다용구로 추정
甌(권32)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	음다용구로 추정
湯瓊(권32)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	음다용구로 추정
金花鳥盞(권32)	중국제도를 본받음	연회때 사용
翡色小甌(32)	중국제도를 본받음, 청자	연회때 사용
銀爐湯鼎(권32)	중국제도를 본받음, 은제	연회때 사용

도할관과 제할관 숙소 가운데 접견이나 회식을 하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차 찌기 등을 버리는 唾盂가 있었다.¹⁹⁾ 唾壺, 唾具라고도 하며, 송 張九成의 『橫浦集』에서 ‘더러운 것을 볼 수 없게 하고, 지저분 것을

8) 『高麗史』卷65, 志 第19.

9) 『高麗史』卷68, 志 第22.

10) 『高麗史』卷67, 志 第21.

11) 『高麗史』卷69, 志 第23.

12)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출판부, 2005, pp.140-143.

13) 『高麗史』卷2, 世家2, 太祖 14年 8月.

14) 『高麗史』卷4, 世家4, 顯宗 9年 2月.

15) 『高麗史』卷8, 世家4, 文宗 12年 5月.

16) 『高麗史』卷8, 世家8, 文宗 21年 9月, 丁酉.

17) 『高麗史』卷14, 世家14, 睿宗 10年 8月, 庚申.

18) 『高麗圖經』卷6, 宮殿2, 延英殿閣, “今入朝進貢使資諒, 上桂香, 御酒, 龍鳳茗團, 珍果寶皿來歸”

(냄새)맡지 않게 하며, 더러움을 감추고 지저분한 것을 넣기 위해 항아리에 구멍을 뚫어 사용하니, 군자도 이와 같은 법식을 따른다면 크게 윤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²⁰⁾ 중국에서는 금속제, 칠기, 도자기 등으로 제작되어 당송대 이후 무덤 부장품이나 벽화의 備茶圖에서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 청자 가운데도 여러 점 남아 있다. 특히 고려 명종 智陵이나 동해시 삼화동 고분 등에서는 양질의 청자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盃, 甌, 湯匙 등이 있는데 직접 차를 담아 마실 때 사용했던 완이나 잔 같은 용기로 추정되고 기형은 중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 뜨거운 차물을 공급하기 위한 湯壺는 뚜껑과 받침을 갖춰 열을 보존하는 溫器로서 고려에서 차를 끓일 때 탕호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²¹⁾ 뚜껑과 받침을 갖춘 온기류는 현전 유물 가운데 뚜껑 달린 주자에 승반을 갖춘 예 등을 들 수 있다.<그림1>



<그림1> 銀製鍍金注子와承盤 주자높이 34.3cm, Boston MFA

차를 마시기 위해 金花鳥蓋, 翡色小甌, 銀爐湯鼎 등 중국 제도를 모방한 다구들을 잘 차려놓은 붉은색 茶組가 있었다. 이 도구들은 사신 관사 안에 구비되었던 것으로 紅紗巾을 덮어두고 매일 세 차례 차를 마시는데 사용하였다.²²⁾

2) 선원의 다구²³⁾

고려에서는 중국 宋의 청규를 기본으로 고려판 禪院清規를 발간하여 禪家의 수행납자들이 총림이나 선원에도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였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高麗板 重添足本禪院清規』가 전하는데, 宋의 정화원년(1111)에 重添된 것을 고려 고종 41년(1254)에 重雕한 것으로 전한다. 이 내용을 보면 가람과 사찰내 승려들의 직위, 수행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특히 사찰내 의례와 일상에서의 行茶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선승들이 차를 필수적으로 음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의례를 도입하여 일행의식과 염불의식을 엄숙하고 장엄하게 진행하고 식당작법, 다탕예법, 입실예법은 물론 하안거와 결계 해계 인사예법과 동지와 새해의 인사예법, 염송이나 일상대화에 이르기까지 질서정연한 수행생활을 계도하였다. 현실에서 얼마만큼 지켜졌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각 시대와 나라마다 현실에 맞게 그 내용이 조정되는 것이 청규의 일반적 현황이고 보면, 청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 추정된다.²⁴⁾ 특히 茶禮와 齋禮 등에서 복잡한 행다 절차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형식화는 세속적 위계질서를 사원에 도입함으로써 전통을 전승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라 본다. 청규를 통해 규제의 틀을 만들게 되면서 차를 마시던 일상은 공적인 행위가 되고, 공적인 행위 속의 행다와 음다에는 당연히 다양한 다구가 전제되었을 것으로 본다.

총림에 들 때 구비해야할 물품 목록을 보면 의복과, 신발, 샷갓, 수건 등이 열거되는데, 그 가운데 小淨瓶과 茶器가 포함되어 있다.²⁵⁾ 선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례의 면모를 보면 상당히 격식이 있었다. 예컨대 방장은 茶

19) 『高麗圖經』卷27, 館舍, 都轄提轄位, “室中器皿 如香奩 酒棹唾盂 食區 悉以白金貯水之具 皆用銅 物物悉備”

20) 이종민, 「高麗青磁 唾壺의 機能과 製作時期小考」, 『한국상고사학보』 68, 한국상고사학회, 2010, pp.67-86.

21) 『高麗圖經』卷31, 器皿2, 湯壺, “湯壺之形 如花壺而差區 上蓋下座 不使泄氣 亦古溫器之屬也 麗人烹茶 多設此壺”

22) 『高麗圖經』卷32, 器皿3, 茶組, “益治茶具 金花鳥蓋 翡色小甌 銀爐湯鼎 皆竊效中國制度…館中 以紅組 布列茶具於其中 而以紅紗巾覆之 日嘗三茶”

23) 장남원, 본고 주1), 2011.

24) 자각종색선사 원저·崔法慧 譯註, 『高麗板 禪院清規 譯註』, 伽山佛敎文化研究院, 2001, pp.222-246.

湯儀式에 따른 煎點儀式을 거행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지극한 공경의 禮를 다해야 하는데, 이때 모든 의식은 茶湯儀禮의 절차에 따라 행해지며 직분이나 신분에 맞는 禮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赴茶湯』을 보면 방장의 다탕[堂頭茶湯]을 중심으로 茶湯儀禮를 통해 究竟의 妙味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대중이 모임에 시자가 인사하고 들어가기를 청하면 문득 수좌를 따라 자리에 나가서 서고, 주지가 읊하면 가사를 거두며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신을 벗어 가지런하게 놓는다.”… 편안하게 잔탁을 거두되 두 손으로 가슴에 당도록 잡는다. 손을 놓되 처지게 하거나 너무 높게 쳐들어서는 안된다…當頭에 特爲의 人, 오로지 主人을 보고 顧揖을 마치고 연후에 上下間에 揖하고 茶를 喫한다. 茶를 불지(吹) 말라. 蠶을 흔들지(掉) 말라. 呼呻(궁궁거릴)하여 소리를 내지 말라. 蠶囊을 놓으며 敲磕(부딪히는 소리를 냄)하지 말라.”²⁵⁾ 실제로 청자 蠶托은 소비유적 가운데 사찰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²⁷⁾ 이 구절로 보면 잔 아래 탁잔이 있는 잔탁의 경우 다례에서의 위계와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관 선원청규』의 다례 양상을 보면 주지가 주관하는 다례의식, 승당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례, 知事와 頭首가 참석하는 다례, 대중의 蠶茶에 대한 다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다례, 특별한 尊長을 위한 다례, 각각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특별다례, 특별한 齋에 올리는 다례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다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의례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음다기 외에 香, 茶鼓, 茶盤, 茶筒, 茶罷 등 다양한 용품들이 소요되었다.²⁸⁾

한편, 華嚴僧統을 지낸 寥一法師는 퇴직을 바라면서 명종(1171~1197재위)에게 시를 바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오경의 남은 꿈을 절간에 맡겨 두고 십년이나 궁궐 주변을 어정거렸네, 새벽녘 차를 끓이니 가느다란 鸞鳳의 그림자를 머금었고, 아룻한 향기나는 새로 빵은 가루는 자고새의 반점이라… 했다. “가느다란 난봉의 그림자”와 “자고새의 반점”은 건요자의 문양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²⁹⁾ 음각의 가는 선문이 있는 앵무문 다완에 자고새의 반점같은 거품이 이는 點茶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그림2>



<그림2> 청자앵무각앵무문 발, 구경 16.3cm, 해강도자미술관소장

3) 문인의 다구

차는 고려의 문인이나 승려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매개체였다. 개인의 수양이나 여가에는 물론, 모임과 교류에서 차가 음용되면서 다양한 다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그의 「雲峯에 있는 老珪禪師가 早芽茶를 얻어 나에게 보이고 孺茶라 이름을 붙이고서 시를 청하기에 지어 주다」라는 시에서 차의 맛과 향을 노래했는데, 이 때 “…선사는 어디에서 이런 귀중품을 얻었는가 손에 닿자 향기가 코를 찌르는구려. 이글이글한 風爐불에 직접 달여 꽃무늬 자기에 따라 색깔을 자랑하누나…³⁰⁾라 했다. 이 때 ‘手點花瓷’은 아마도 상감무늬가 있는 청자 다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25) 자각종색선사 원저·崔法慧 譯註, 위의 책, 「辨道具」, p.75-77.

26) 자각종색선사 원저·崔法慧 譯註, 위의 책, 「赴茶湯」, p.114.

27) 李允珍, 「高麗時代 瓷器蠶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7.

28) 자각종색선사 원저·崔法慧 譯註, 위의 책, pp.222-247.

29) 김명배는 이들을 각각 길주요 관과 건요관으로 이해했다. 金明培 著, 『증보판 茶道學論攷』, 大光文化社, 1999, p.448.

3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13, 「雲峯住老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之」, “…南人曾不怕整髻, 冒險衝深捫葛菓. 辛勤採摘焙成團, 要趁頭番獻天子. 師從何處得此品, 入手先驚香撲鼻. 博爐活火試自煎, 手點花瓷誇色味. 黏黏入口脆且柔, 有如乳臭兒與稚…”

보인다. 또 「南行月日記」에서는 아버지 기일을 맞아 부안 내소사에 들렀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방한 가운데를 막아 내실과 외실을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불상과 원효의 眞容이 있고, 외실에는 瓶 하나, 신 한 켤레, 찻잔과 經机만이 있을 뿐...³¹⁾” 이라 했다. 이 때 ‘茶瓷’ 역시 자기 찻잔일 것이다.

李齊賢(1287~1367)의 『益齋亂藁』 「松廣和尚이 차를 보내준 데 대하여 붓 가는대로 써서 丈下에 寄呈하다」라는 시를 보면, 송광사에서 보내준 차를 끓이며 그 향기와 맛을 음미하였는데 이 때 “瓷甌乳花吐”라 하여 자기잔에 토해낸 꽃망울이 떠 있다고 묘사했는데, 차의 거품이 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잔의 꽃무늬를 묘사한 것일수도 있다. 어떻든 “瓷甌”라 하였으니 자기 찻잔임에는 틀림 없다.³²⁾

이승인(李崇仁, 1347~1392)은 「백 염사가 차를 보냈기에 [白廉使惠茶]」라는 시에서 “...세찬 불 맑은 물로 손수 달여 마시는 차(活火清泉手自煎), 찻잔에 향기 동하며 누린내를 씻어주네(香浮碧碗洗葷羶)...” 이 때 “벽완(碧碗)”은 글자 그대로 푸른 옥으로 만든 다완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분히 청자를 빗대어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

3. 음다 관련 주요 청자기종

청자 가운데, 차와 관련되는 주요 기종은 碗, 鉢, 잔(잔탁), 주자, 타호, 통형잔, 투합, 연, 장고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 주자, 잔 등은 飲酒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알려진 청자 기종들의 용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용례로 보아 碗이나 대접 종류는 차를 따르고 마시는 용기였을 것이며 그밖에 찻물을 따르는 注子, 차잎을 갈아내는 茶碾 등 적지 않은 기종들이 飲茶 또는 製茶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로서 唐代〈宮樂圖〉나 허북성 선화지역 遼墓의 벽화〈그림3〉 등이 참고가 된다.³³⁾



〈그림3〉 遼 大安9년(1093) 張文藻墓 前室東壁 備茶圖

1) 碗, 鉢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기도 용인 서리나 경기도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앙리 등지의 청자백자 요지에서는 폐기물 퇴적층위에 대한 표본조사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자기 생산량의 50% 이상이 완류였다. 고려 초 가마터에서 나타나는 50% 이상의 碗은 고려중기로 들면 碗의 비율이 매우 줄어든다. 그러나 대접 혹은 鉢이라고 하는 용량이 큰 기종들이 많은 비율로 생산되고 있어서 茶 종류의 변화 또는 飲茶방법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이같은 현상은 기형상의 변화는 있지만 고려 중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흥 방산동 요지의 3개 층위의 생산품은 완 54.19%, 발 9.41%, 접시 6.52%, 잔탁 4.65%, 주자호병 10.88%로 음다용으로 추정되는 완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었다.³⁴⁾〈그림4〉

31)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3, 記, 「南行月日記」, “是年八月二十日, 予先君諱旦也. 先一日遂往邊山蘇來寺...障其中爲內外室, 內室有佛像元曉眞容, 外則一瓶雙屨茶瓷經机而已, 更無炊具, 亦無侍者. 但於蘇來寺, 日趁一齋耳...”

32) 『益齋亂藁』 卷4, 詩, 「松廣和尚寄惠新茗順筆亂道寄呈丈下」, “...香清曾摘火前春, 色嫩尙含林下露. 甌甌石碾松籟鳴, 眩轉瓷甌乳花吐. 肯容山谷託雲龍, 便覺雪堂羞月兔...”

33) 장남원, 본고 주1), 2007 참조.

34)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芳山大窯』, 2001; 李鍾玟, 「始興 芳山洞 初期 青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



<그림4> 시흥 방산동 요지 출토 발,완류, 해강도자미술관 발굴

용인 서리 증덕요지에서도 4개의 퇴적 층위에서 청자와 함께 백자가 주로 생산되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판단되는 I 유형에서 碗의 비율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늦은 II가 유형에서는 접시가 28%로 많아지고 완은 16.64%로 줄어든다. 또 II나 유형에서는 접시가 더욱 증가하여 33.12%였으며 대접비율이 23.

42%로 늘어나고 완은 6.33%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³⁵⁾ 이는 초기 제작단계에서 차지하는 碗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그보다 용량이 큰鉢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⁶⁾ 여주 증암리 요지에서도 碗이 50%를 차지하며鉢, 櫛匙, 盞이 그 다음의 비율로 나타났다.³⁷⁾<그림5>



<그림5> 여주 증암리 요지 출토완, 경기도 박물관 발굴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에서는 조업 초기에 해당하는 10-1층 유형에서³⁸⁾ 발19%, 완 43%로 나타나 중부지방 전축요계 가마들 보다는 碗의 점유율이 낮지만 전체에서 40%가 넘어 역시 주종을 이루는데, 이 가운데 해무리굽 완은 95%를 점했다. 그러나 시기가 늦은 10-II층 유형에서는 발 31.1% > 완 11% > 접시 40% 순으로 나타나고 음각의 앵무문이 새겨지거나 외면에 연판

문이 표시되는 경우가 나타나 발과 완에는 새로운 기종과 문양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鉢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 → 31.1%로 증가하고 형식면에서도 6개→10개로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용운리 10호 II층 시기에는 용량이 큰鉢의 종류와 수량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중국의 조형이 반영되는 것과 함께 다법의 변화 및 청자용도의 변화 등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

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 韓國美術史學會, 2001, pp.65-98.
調査報告書II, 湖巖美術館, 2003.

36) 진승창, 「용인서리요지 출토유물 고찰」, 『龍仁 西里 高麗白磁 窯址의 再照明』, 龍仁文化院, 2001, pp.15-32.

37) 京畿道博物館驪州郡, 『驪州 中岩里 高麗白瓷窯址』, 경기도박물관, 2004.

38)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 國立中央博物館, 1996 ;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本文編), 國立中央博物館, 1997.

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유권리 7구역 요지군 출토 받은 용운리 10-II층과 비교하면 기형도 단순하고 그 상대적인 수량도 적다고 할 수 있다. 또 기종의 퇴적별 편차가 커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자연 퇴적량이 가장 많은 2호가마 퇴적에서 강진 용운리보다 많은 47.4%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 중심시기가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이 요지군에서도 역시 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부안 권서리 18호 요지에서 용량이 큰 대접과 발은 약40% 달했다.³⁹⁾ 대전 구원동에서도 1, 2호 가마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鉢로 나타나 오히려 부안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⁴⁰⁾ 음성 생리에서는 대접으로 명명한 기종이 67.9%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진이나 부안지역과 달리 청자를 소비하는 지역 내지 계층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⁴¹⁾

즉, 고려초 개정을 중심으로 경기 및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초기 생산유적에서는 단연 鉢이 많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고려중기 이후 鉢의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용량이 큰 鉢이나 대접 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한국식 배무리굽 원의 변화과정과 새로운 기종의 비운증가로 요약되는데, 이는 茶를 비롯한 음식문화의 변화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잔탁

잔탁은 잔을 받치는 용도로 여러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고려유물로는 청자로 만든 것들이 주로 남아 있다. 이 미 중국이나 국내 기록등을 통해 '茶托子', '茶托', '茶盤', '茶臺', '茶托' 등 다양하게 통용되었다. 唐代和平門유적 출토품에서는 굽 안쪽에 '茶托子'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⁴²⁾ 그러나 송대 이후에는 '茶托'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⁴³⁾ 선화요묘나⁴⁴⁾ 백사송묘의⁴⁵⁾ 벽화나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傳 閩立本の <蕭翼賺蘭亭圖>나 中國故宮博物院 소장 傳 顧闳中的 <韓熙載夜宴圖> 등 여러 회화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에서는



〈그림6〉 청자송자용문잔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당대 이후 월주요와 형요 정요 등지에서 제작된 자기 잔탁이 남북방의 여러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며, 오대-북송대에는 잔탁의 생산이 더욱 증가한다. 고려의 경우 중국 오대 이후의 사례들과 비교된다. 시흥 방산동의 이른 층위에서는 절강성 사릉구 요지나 天禧四年(989) 馬氏王后 康陵 출토 잔탁 등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송대에는 越州窯, 定窯, 婺州窯, 耀州窯, 남송官窯, 景德鎮窯 등 요장에서 잔탁이 더욱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와 문양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부 조형은 고려 잔탁에 반영되었다. 또 금속기나 칠기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장식이나 기형을 볼 수 있다.

39) 國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裡里曲方園土管理廳, 『扶安 鏡西里 靑瓷窯址-第 18號窯址發掘』, 2001, p.28.

40) 南陽陶器美術館 大田光城市, 『大田 龍完洞 窯址-어정금 靑磁窯址瓦窯址 發掘 踏查報告書』, 2001, p.44, 60.

41) 忠北大學校 博物館(주) 동부건설(주) 원일기원, 『熊城 호리 청자가마터』, 2002, pp.48-49.

42) 馬得志, 『唐代長安平康坊出土的鎏金茶托子』, 『考古』 1959-1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p.118, 182.

43) 朱琰, 『陶說』 說語 卷5 唐語, 『茶托』(《集異》): 台盞始于盞托 托始于唐 蜀相世宁女故茶 成盞熟矣指 取味于盞結 象盞足大小 而环结其中 置盞于結 无所柄似 因命工器埒为之 宁言其为名之日托

44) 잔탁은 M10-M7-M1-M5-M2-M4 묘의 儒經 儒茶 장면에서 확인된다. 河北省文物研究所, 『宣化漢墓』, 文物出版社, 2001.

45) 宿白, 『白沙宋墓』, 文物出版社, 2002.

기본적으로 뜨거운 잔에 손을 데이지 않기 위해 잔을 받치는 기능이 전제되었지만 사용과정에서 쓰임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며, 사원 청규에서는 사용자의 위계와도 유관할 것으로 추측된다.⁴⁶⁾<그림6>

3) 注子

주자는 액체를 담아 따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술을 담거나 點茶에서 물을 따를 때 사용되었다. 특히 음다 과정에서는 술에 차를 끓일 때 탕을 잠시 저장해 두거나 다 끓인 차를 저장해서 따라 마실 때 사용할 것이다. 송대에는 풍로위에 놓고 물을 끓이거나 끓인 물을 완에 붓는 용도로 사용된 것을 그림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물을 끓이거나 끓인 물을 담는 용도의 주자는 茶瓶, 湯瓶 등으로 칭하기도 했다. 중국측 자료로 보아 처음 주자의 등장 시기에는 술을 담아 따라 마시는 주기로서 사용이 되었지만(酒注子)⁴⁷⁾ 음다의 발달과 함께 다구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차문화로 인해 주자가 술 뿐아니라 차를 마시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본다.⁴⁸⁾<그림7>



<그림7> 청자주자와 승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 唾壺

타호는 시흥, 강진, 부안, 용인 등 일부 가마터에서만 발견되고 있고 전세품도 대부분 강진, 부안산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 수량도 매우 적어 제한적인 계층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당대부터 금속이나 도자로 만들어졌고 요대 고분벽화 자료로 보면 備茶 장면에서 여러 차도구와 함께 타호를 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곤 한다. 당대 이후 煮茶法(거칠게 가공한 차가루를 끓여 먹는 법)이 유행하고 오대부터는 沃茶法(미세하게 가공한 차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마시는 법)이 나타나고, 송대에는 왕실이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團茶가 만들어지면서 분말로 뿜아 거품을 내는 點茶法이 유행했다. 이 과정에서 찻잎 찌꺼기를 버리는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고려청자 타호는 완만하게 벌어진鉢이나 碗형의 구연을 붙인 형태로 五代의 영향을 받은 이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그림8> 중국에서 음다용기의 하나로 송대 전기 이후 쇠퇴하게 되는데 고려에서는 말기까지도 제작이 계속되었다.⁴⁹⁾



<그림8> 馬氏皇后 康陵출토 타호
天福四年(939)
항주역사박물관 소장

5) 筒形盞

통형잔 가운데 뚜껑을 덮어 사용한 유개통형잔은 12세기 전반경 강진 등지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기종이다. 무문의 통형잔 외에 뚜껑에 연잎문이 음각이나 양각으로 시문된 경우, 잔의 측면에 음각연관문이 함께 들어간 경우, 상감, 철화, 백화 등의 여러 장식으로도 나타난다.

46) 이윤진, 「高麗時代 瓷器盞托 研究」, 『美術史學研究』 273, 2012, 한국미술사학회, pp.35-69.

47) 고경희, 「高麗 靑瓷酒注子 樣式 變遷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協同課程 美術史學專攻 2011. 8.

48) 최미향, 「高麗時代 靑磁 注子 研究」,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11.

49) 이종민, 본고 주20), 2010.

인종 장릉(1146), 희종 석릉(1237) 같은 왕릉에서 각각 무문과 철백화문 통형잔이 출토된 바 있다. 전세품 가운데는 ‘準備色’이라는 관청명이 상감되어 고려말까지도 지속되었던 기종이다.⁵⁰⁾ 태안 대섬과<그림9> 비안도 해저에서도 여러 점씩 출수되어 개경같은 주요 소비처에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회화자료에서도 거실 장면이나 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들에서 뚜껑을 덮은 유개 통형잔이 다수 그려져 음다용 기였을 것으로 확인되었다.⁵¹⁾

6) 套盒

12세기 전반 새롭게 나타난 기종이다. 1146년 장례를 지낸 고려 인종의 장릉 출토품 가운데 과형병, 국판문합, 유개통형잔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들 모두 일반 생활유적이나 가마터에서 매우 드문 기종이다. 특히 청자 투합은 고려 중기에만 일시적으로 제작되다가 사라졌다. 투합이 발견된 곳으로는 인종 장릉 외에 전남 영암의 월출산 제사터가 있다. 투합과 함께 발견되는 기물의 양식과 기종을 살펴보면 제작지는 고려의 왕실용 고급청자들이 제작되던 전라남도 강진의 사당리 일대가 유력하다.<그림10>

중국과 고려의 투합은 동체 형태에 따라 원형, 방형, 오방형, 육방형 등 다양하다. 중국에서는 당대이후 금속기로 제작되었으며 10세기 오대 시기 이미 월주요와 요주요 등지에서 방형의 청자투합이 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고려 청자로 제작된 예들만 전한다. 북송, 남송을 거치면서 여요, 남송관요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요나라 영역에서도 형태와 제질에 차이는 있지만 제작되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관요였거나 공납용 자기를 만들었던 곳이 주 생산지이다. 실제로 투합이 발견된 유적도 왕릉, 황릉, 태묘 등 국가의 공적 공간이었다. 이들 공간의 다례 같은 의례에서 다과를 담기 위한 용기로 사용된 것이다.

고려의 투합은 북송대 여요와 가장 유사하다. 이같은 기물이 고려에 나타난 것은 중국의 의례와 기물제도가 고려에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세기말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거란과 여진이 북방에 대치하였고 고려는 여진 정벌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므로 12세기 초 예종대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중국문물과 제도의 유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히 인종 재위기간(1122~1146)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등이 일어나 왕권은 강한 도전을 받았고 심지어 왕궁이 불에 타는 등 권위가 흔들렸다. 따라서 군주의 신성한 권위를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종은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한다. 이때 고려에는 이미 민간무역 등을 통해 중국 남북방의 다양한 청자와 백자들이 유입되어 왕실과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송의 예기(禮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기물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와 권위를 표상화하려 했을 것이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투합이 포함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⁵²⁾



<그림9> 청자유개통형잔, 태안대섬 출수, 높이7.5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그림10> 청자투합, 전 인종장릉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0) 일본 寧樂美術館 소장. 김윤정,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 260, 한국미술사학회, 2008, pp.48-49.

51) 김윤정, 「고려 12세기 靑磁有蓋筒形盞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 양상」, 『해양문화재』 제2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pp.108-157.

그밖에도 음다와 연관된 고려자기는 더 다양했을 것이나, 추후 심화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직접 음다에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茶碾의 존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에서는 도기질과 자기질로 모두 만들어지며 장방형 틀에 중심에 홈을 파서 납작한 멧돌형 바퀴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강진 용운리 10호 발굴품 조사 시에 특히鉢 기종의 일부에서 내면에 일부러 유약을 입히지 않고 외면에만 유약을 입힌 청자들이 수습된 바 있어 차잎을 갈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다연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⁵³⁾

그 외 의례용기로 추정되는 자기 長鼓 역시 음다가 행해지는 공간의 연주용 악기로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자 장고는 여러 가마터와 소비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어 왕실이나 사찰 등의 의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高麗圖經』에 고려 文宗이 악공을 주청하여 宋 熙寧年間(神宗의 연호, 1068~1077)중 조서를 보내 고려로 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고려사신이 入貢하여 大晟雅樂과 燕樂의 하사를 청하자 조서를 통해 모두 허락하였다고 하였다.⁵⁴⁾ 睿宗 9년(1114)에도 安稷崇이 宋에서 돌아오면서 北宋 徽宗이 하사한 악기를 가져왔는데 이 가운데 장고도 포함되어 있었다.⁵⁵⁾ 『高麗史』志 25 唐樂과 俗樂에도 역시 장고가 기재되어 있다.⁵⁶⁾ 11세기말부터 12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송대 장고가 유입되고 고려에서도 대부분의 의례에서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도자 장고가 출토되는 유적도 다례와 관련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유적 출토 현황

이미 통일신라시대 왕경유적에서 중국산 청자와 백자 다완이 다수 출토되었고, 주요 사찰에서도 수입산 자기 가운데는 碗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1) 왕실 및 관청유적 출토사례

고려 왕실의 다양한 음다와 진다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다. 현전하는 유적들 가운데 왕실이나 관청 등 공적인 성격을 띠는 공간에서 발굴된 자기류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기록과 전세품의 성격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강릉 臨瀛館址(고려태조 19년(936)창건)⁵⁷⁾에서는 玉環底系 다완 편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으며 국가의 小祀 터였던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왕실 숙박시설이었던 파주 해음원지, 개성 만월대 왕궁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월출산 제사유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활용되었지만 11~12세기 청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해무리급 청자완부터 고려중기 유형들까지 주류를 이루는데, 특히 12세기 유물 가운데는 규석받침 청자류나 비색의 양질 청자들이 많으며 인종장릉 출토품과 같은 형식의 사각형 투합 편이 2점 포함되어 있다.⁵⁸⁾

52) 장남원, 「고려시대 청자 투합(套盒)의 용도와 조형계통」, 『미술사와 시각문화』 9, 2010, pp.174-201.

53) 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발표자가 유물정리 당시 지속적으로 이같은 유물들이 보여 유심히 생각해두었던 부분이다.

54) 『高麗圖經』卷40, 樂律.

55) 『高麗史』卷70 志24 樂 雅樂 宋新賜樂器.

56) 『高麗史』卷71 志25 樂 唐樂 樂器 ; 이종민, 「고려 청자장고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김리나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간행위원회, 예경, 2007, pp.299-322.

57) 『增修臨瀛誌』宮殿9 ; 江陵大學校博物館江陵市, 『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試掘 및 緊急 收拾調査-』, 1996, pp.17-18.

58) 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靈巖 月出山 祭祀遺蹟』, 목포대학교박물관, 1996, pp.39-88.

해음원지에서도 고려 전·중기 청자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며 접시, 대접, 완, 발, 잔, 뚜껑 등이 주종이다. 이들 기종은 대체로 음식기나 음다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 왕궁지에서도 다양한 기종의 청자가 출토되었다. 1~3차에 발굴조사 결과 궁성의 서북편 지역과 경령전 추정지를 중심으로 고려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도자 유물이 출토되었다. 고려초부터 후기까지 유물이 모두 출토되었지만 특히 고려왕실의 진전인 景靈殿 추정지를 중심으로 도자기 출토량이 많았다. 기종별로 접시, 대접, 완, 병, 뚜껑, 잔탁, 잔, 향로 등이 발굴되었다. 부분 발굴이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시기별로 한반도 중부지역 출토의 초기 청자와 백자를 비롯하여 강진 및 부안산 고급자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강화지역 왕릉군 출토품과 유사한 것들도 동반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강진이나 부안 등지로부터 양질의 자기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2) 음다와 사찰유적 출토 도자

皇龍寺址⁶⁰⁾나 彌勒寺址⁶¹⁾ 등은 국내에 차가 전래되어 본격적으로 음용되기 시작한 이래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생활층에서는 다양한 중국산 다완류가 출토되는 주요 유적이다. 국내에서 음다용 자기가 제작되기 이전부터 ‘玉璧底’ 양식의 다완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고려초부터 다완류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제작되는 것도 음다와 연관이 깊을 것이다.

선원의 六法供養에서 香, 燈, 과일, 꽃 등과 함께 茶는 불가의 중요한 공양물이었다. 이미 가마터 제작 현황을 통해서도 碗鉢類는 점유율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⁶²⁾ 고려 초의 사찰인 충남 논산의 개태사(940)⁶³⁾ 전남 화순 운주사⁶⁴⁾, 고려초 국찰이었던 충주 승선사지, 청주의 흥덕사지,⁶⁵⁾ 전북 남원 만복사지 등에서도 다양한 청자완들이 출토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에서는 국산 청자 완 및鉢 등 음식기류가 주종을 이룬다. 경남 사천 본촌리 폐사지⁶⁶⁾, 경기도 안성 봉업사지⁶⁷⁾, 여주 고달사지, 미륵사지⁶⁸⁾ 등에서 비슷한 분포로 청자가 출토되었다. 사세가 컸던 봉업사지나 미륵사지 등에서는 상당량의 자기가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미륵사지에서는 10,000점 이상의 자기가 출토된 바 있다. 역시 완, 발, 잔, 잔탁 같은 음료 용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보령의 성주사지⁶⁹⁾, 여주 원향사지⁷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사찰에서는 고려초 차의 음용을 위한 도구로서 완을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고려 중·후기까지 생활용 도자의 종류가 늘어나지만,⁷¹⁾ 그러나 기종간 비중에서 그러한 것이어서 완이

59) 장남원, 「개성 고려궁성지 출토 도자기」,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12, pp.326-336.

60)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黃龍寺」, 遺跡發掘報告書1, 1984.

61)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彌勒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I, 1989.

62) 장남원, 앞의 책, 2006, p.144.

63) 『高麗史』世家 卷2 太祖 19年.

64) 全南大學校博物館·和順郡, 「雲住寺Ⅲ 發掘調查報告書」, 1990, pp.59-63.

65) 淸州大學校 博物館, 「淸州興德寺址」, 1986, p.88.

66) 慶尙大學校博物館, 「泗川 本村里 廢寺址」, 1997.

67) 경기도박물관·안성시, 「奉業寺」, 2002.

68)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彌勒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I (도판편), 1989 : 전라북도 익산지구문화유적관리사업소,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997.

69) 保寧市·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 1998, pp.457-568.

70)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公社, 「元香寺址」, 2003.

나 발, 잔 등 음료용기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분묘매납 도자의 구성과 다구

중국 및 고려의 벽화에서 보여준 음다관련 사실적 묘사들이 고려의 분묘에서도 일치할까. 고려시대 분묘를 보면 11~12세기이후 부장품의 매납이 늘어나면서⁷²⁾ 청자를 비롯한 특정한 기종들의 일괄 매납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⁷³⁾ 고려시대 분묘는 계층이나 경제력 등과 관계가 있지만 石槨墓나 石槨墓, 土槨墓 등으로 조성되었다. 출토품은 금속, 도자, 직물류, 鐵器, 금속화폐 등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청자나 백자로 나타나는 그릇류는 碗, 鉢, 瓶, 壺, 접시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같은 기종의 조합은 일상에서의 식생활 또는 茶禮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일대의 분묘에 대한 세부 속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고려 고분의 주요 매납품은 청자, 백자, 도기, 금속기 등인데 이 가운데 도자류는 일반적으로 가마에서 생산된 器種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鉢, 匙, 瓶이 각각 35.9%, 21.0%, 21.9%를 차지하면서 매납품의 중심으로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⁷⁴⁾ 금속제품을 제외한 도자류의 경우 발, 접시, 병 등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가마터에서 확인되는 생산품의 비중과도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들 도자의 구성은 가마터의 생산경향에 따른 것일까, 아니면 일정한 규칙에 의해 부장하게 된 것일까?

定宗(945~949 재위) 安陵에서는 청자화형발, 청자잔탁, 청자주자뚜껑 등이 동반되어 중국 五代~宋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備茶의 장면에 등장하는 자기류와 일치한다.⁷⁵⁾ 양평 매월리 고분에서도 청자완, 청자반구병, 청자철채백화문침, 청동병, 청동시 등이 일괄 출토되었는데, 완과 병, 匙 등은 위에서 언급한 바 고려시대 고분에서 보여주는 보편적인 매납 구성품이자 전형적인 차공양의 도구들이다.⁷⁶⁾

仁宗(1122~1146) 長陵에서는 皇統 6年(1146)의 仁宗 諡冊과 함께 석제함과 동제함, 청자투합, 청자과형병, 청자국판문합, 청자유개완 등이 발견되었다고 전한다.⁷⁷⁾ <그림11>의 일괄품들은 1916년 일본인 골동상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⁸⁾ 현전하는 4점의 청자는 모두 전형적인 비색 청자들로 강진 사당리 출토품들과 유사하다. 이 가운데 방형의 투합은 모서리가 말려든 부분에서 안쪽을 향해 가는 돌대를 만들어 꽃잎의 경계처럼 만들었고 안바닥 중심에도 위각 방형의 자리를 만든 형태이다.



<그림11> 傳 仁宗長陵 출토 유물 일괄, 고려(1146),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에 현전하는 청자 투합의 예로 보면 턱이 있어 같은 기물을 포갤 때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데, 五代에는 9층 투합이 만들어진 예가 있으며 측면에 火焰紋의 透孔이나 장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河南省 寶豐縣 淸涼寺요지에서도 인종장릉 것과 유사한 것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모두 음다에 활용되던

71) 이종민,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 『丹豪文化研究』8,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4, pp.95-121.

72) 李義仁, 「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特徵」, 『고려시대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2006, pp.9-38.

73) 李鍾玟, 「高麗 墳墓出土 陶磁 研究」, 『湖西史學』第46輯, 湖西史學會, 2007, pp.1-34.

74) 玄文弼, 「高麗時代 古墳 出土 靑瓷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7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12권, 1992, p.17.

76)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清閑舍, 1944, pp.12-14.

77) 野守健, 위의 책, 1944, pp.10-12.

78) 今西龍,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 『大正午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1916, p.264 ; 국립중앙박물관, 2008, p.100 재인용.

기물이다.⁷⁹⁾

또, 1159년에 작고한 문공유묘 출토품 가운데는 청자상감보화문완 1점, 청자상감국화문접시 1개, 백자봉수 수주 1점, 백자양각당초문수주 1점, 백자양각화문은구완 1점, 청동팔룡원권소문경 1점 등이 있었다.⁸⁰⁾ 고려 청자와 중국 백자를 함께 부장하여 생활유적에서 나타나는 고려청자와 중국백자의 동반 사용관계를 보여준 것은 물론 碗과 注子 등 다구류의 동반이 보인다.

비슷한 양상은 강화도의 熙宗(1181~1237, 재위1204~1211) 碩陵⁸¹⁾, 明宗 智陵⁸²⁾ 등<그림12> 왕실의 분묘는 물론이고 동해시 삼화동 고분⁸³⁾, 충주 직동 고분군⁸⁴⁾, 충주 호암동 고분군⁸⁵⁾, 단양 현곡리 고분군⁸⁶⁾,



<그림12> 명종(1170-1197) 지릉 출토-一括 유물 (1202, 또는1255년경)

상주 청리 고분군⁸⁷⁾, 경산 임당 지구 고분군⁸⁸⁾ 등 전국에 분포가 수많은 민간의 무덤에서도 확인된다. 이렇듯 음식기류 가운데 직접 차로 추정되는 음료의 飲用을 위한 도구와 저장보관용기 등이 동시에 함께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⁸⁹⁾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에도 이같은 전통이 이어지는데 고려시기 부장 전통과 관습은 조선시대 들어 왕실이나 사대부가에서 새로운 유교 의례에 따라 '명기'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려 이래로 시행하던 부장풍습을 기반으로 지속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완, 병, 타호, 시저 등으로 구성되는 일괄품들은 일상용품임과 동시에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飲茶를 위해 사용하던 기물들의 조합과 유사하다.⁹⁰⁾ 따라서 일정한 매납품의 구성은 설사 실제로 다례가 치러지지 않았더라도 다례의 형식을 함축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가질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79) 吕成龙, 「汝窑的性质及相关诸问题」, 『中国古陶瓷研究』第七辑, 中国古陶瓷研究会 编, 紫禁城出版社, 2001, pp.39-47; 金正基, 「青磁素文方形臺의 新例와 考察」, 『考古美術』19-20합집, 한국미술사학회, 1962, pp.227-228.

80) 野守健, 위의 책, 1944, p.25.

81)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碩陵』, 2003.

82) 『高麗史』卷21, 世家21, 神宗5年.

83) 鄭良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 遺物一括」, 『考古美術』129-130, 韓國美術史學會, 1976, pp.190-199.

84) 忠州工業專門大學校博物館·忠州市, 『忠州山城 및 直洞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1986, 圖13, 圖23-2.

85) 忠州博物館, 『忠州 虎岩洞遺蹟 發掘調查報告書』, 1998, 사진60, 61.

86)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단양 현곡리 고려고분군」, 2008.

87) 韓國文化財保護財團(株)韓進重工業, 『尙州青里遺蹟(IV)』, 1998, p.295, p.422.

88) 한국토지공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 『慶山林堂遺蹟』(I), (III), 1980.

89) 이종민, 「고려분묘 출토 도자 연구」, 『호서사학』제46집, 호서사학회, 2007, pp.1-34.

90) 장남원, 「조선시대 喪葬 공예품의 의미와 구성: 서울, 경기지역 民墓 매납품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24, 2010, pp.109-132.

5.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청자에서 茶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기록과 출토품, 전세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음다용구로서의 연관성을 추론해보았다.

고려 사회에서 차는 술과 더불어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식품으로 그 재배와 공급, 판매 등이 국가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왕실은 물론 일반에까지 보급이 이루어졌다. 또 고려 초부터 제사와 같은 국가 행사에 청자를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고려중기에 이르러 중국의 고급 茶가 국내에 전래되었고 각종 행사와 下賜物로 차가 사용되었으며 이 때 청자라는 소재는 다양한 기형과 크기 등에 따라 차와 술을 마시기에 적합한 재료로서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나 또는 그 내용을 반증하는 간접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유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고려에서 '茶'는 '靑瓷'를 도구 삼아 동북아시아의 문화조류에 동참하게 된다. 단순한 기호 음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 삶과 죽음을 표징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고려의 製茶, 行茶와 맞물려 청자의 조형과 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현전하는 차의 발달과정을 청자의 형태 및 크기, 質, 문양 등과 연관 짓는 노력은 고려 차문화의 실질적인 부분을 해명해 줄 수 있고 청자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찰에서는 다례가 더욱 발달하였다. 수행 과정의 음료였던 차는 주지와 일반승려, 세속의 존장과 승려, 일반민 등 대상을 달리하는 의례에서 중심에 있었다. 유교적 위계질서가 사찰에 도입되면서 의례도 세분화되었고, 차를 중심으로 하는 다례의 방법과 실제도 표면적으로 형식화되었을 것이라 본다. 이 때 현전하는 소비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자기가 출토되는 곳이 바로 사찰이다. 사찰 출토품가운데는 다완이 가장 많아 이 같은 사찰내 의례의 발달과 다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분묘출토 청자도 차문화와 밀접하였다. 왕실의 무덤에서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기물의 건수와 매장품의 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완, 받, 접시, 병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 음다용구 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이후 조선에까지 계승되었다. 실제로 의례에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자기류를 종류별로 맞추어 구성함으로써 다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향후 다법에 대한 考究와 다례에 수반되는 香, 花, 酒, 음악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주제발표 2

용천요 청자문화 총론

저우샤오핑(周曉峰, 용천청자박물관장)

1. 용천요 위치와 그 영향
2. 용천요의 역사와 품모 변천
3. 용천청자의 전통 기법 특징
4. 용천청자의 미학적 의미

도자기는 인류 문명의 좌표로 일찍이 신석기 시대, 용천 동북 근교의 우문강(牛門崗) 유적에서 용천 도자기 문명이 시작되었다. 중국의 청자 기술은 일찌감치 시작되었는데 절강성(浙江省)은 청자의 발원지로 용천요는 절강성 서남부 산자락에서 시작되었다. 용천요는 서기 3세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대(唐代)에 이르러 일정한 규모를 이루었고 송대(宋代)부터 다른 자기를 앞질러 중국의 청자 중 명품 자기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다. 용천요는 많은 역사의 굴곡을 거쳤지만 그 전통적인 소제기법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용천청자는 그 왕성하고도 강한 생명력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면서 중국 도자기 역사의 늘푸른 상록수처럼 중국 도자기를 대표하고 있다.

1. 용천요 위치와 그 영향

용천요는 용천시를 중심으로 절강성 남부의 경원(慶元), 려수(麗水)(지금의 처주(處州)), 운화(雲和), 경녕(景寧), 송양(松陽), 수창(遂昌), 진운(縉雲), 무의(武義), 청전(靑田), 용가(永嘉), 문성(文成), 태순(泰順)과 복건성(福建省)의 송계(松溪), 포성(浦城) 등 10여개 현(縣), 시(市), 구(區)를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요장과 넓은 분포지를 가지고 있는 청자요 계통을 이루고 있다. 용천요의 요지(窯址)는 600여 곳으로 그 중 용천 근처에 400곳이 몰려 있다. 고대 문헌 기록을 보면, “구강(甌江) 양쪽 기슭으로 도자기 가마가 무수히 운집해 있어

연기가 끊이지 않고, 강에는 자기를 나르는 배가 설 새 없이 다닌다”라는 것을 봐도 당시의 전성기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중국 유명 고고학자인 천완리(陳萬里) 선생은 “중국 도자기 역사의 절반은 절강성에서, 절강 도자기 역사의 절반은 용천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그만큼 용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용천요는 중국 청자 계열에서 보면 시작은 다소 늦었지만 화려한 꽃을 피웠으며 풍성한 문화요소를 담고 있고, 가마터의 분포도 광활하고 요업 규모도 대단히 커서 세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용천자기는 중국 남북 도자기 기술과 문화를 한데 융합하여, 관요(官窯), 민요(民窯)의 서로 다른 문화적 이질성 가운데 장점만을 계승 발전시켜 청자의 다양한 기법을 한데 집대성하였고 기타 청자 요계(窯系)를 추월해 남송에 이르러서는 청자의 제작기법을 역사의 최고봉에 올려놓았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용천요는 ‘가요(哥窯), ‘제요(弟窯)’를 창조해 냈고 빼어나고 정교한 기법과 옥처럼 아름다운 비취색의 유색, 단정하고 우아한 자세로 동서양인의 생활양식과 심미관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인류의 도자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세계 무역 문화 교류 역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송대 장작(莊綽)은 『계륵편(雞肋編)』에서 이르길, “처주(處州) 용천현(龍泉縣)에서도 청자가 나왔는데 비색(秘色)이라 이르렀다. 宣和연간(1119~1125)에 궁정의 양식에 따라 공납품으로 번조되어(‘制樣需索’), 그 기교가 날로 발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명나라의 육용(陸容)의 『숙원잡기(菽園雜記)』에는 용천자기의 제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상등품은 가격이 비싸고, 모두 타지로 팔려나가 현지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송대에 용천자기 상등품이 공납품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규격에 따라 황실 소용의 자기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대에는 송대 용천자기를 이어받아 건륭 황제 시절에 황실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소장되었고, 건륭 어제시(禦製詩)에도 여러 번 송대 용천청자에 대해 언급하여 청대 황실과 건륭 본인이 얼마나 용천청자를 아꼈는지 잘 알 수 있다. 고대 용천청자는 그 모양이 다양해 각종 반(盤), 접시(碟), 완(碗), 잔(盞), 호(壺) 등 일상 용기가 있고, 수주(水注), 필통(筆筒), 필가(筆架) 등 문방용구도 있으며, 조잔(鳥盞), 각종 향로(香爐)도 있고, 많은 청동기, 옥기를 모방한 청자 모양도 출현했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용천 청자 공예가 사회 각층의 사랑을 받았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미학적 수요에 부응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당대(唐代)부터 중국 자기는 새롭게 국제 무역 품목이 되었다. 송대에는 ‘무역 장려’ 정책으로 중국 자기는 대규모로 수출되기 시작한다. 宋元明代에 용천 청자의 수출량은 중국 자기 중 최대였고, 당시 중국 대외무역과 문화교류의 핵심 품목이 된다. 남송 시기 월여관(趙汝適)의 『제번지(諸蕃志)』와 원나라 왕대연(汪大淵)의 『도이지략(島夷志略)』에 이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특히, 당대 풍부한 고고학 자료와 세계 유명 박물관의 소장이 증명하고 있는 바, 용천청자가 송대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50여 개 국으로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류쿠(琉球)지역은 당시 중국 도자기 무역의 중요한 허브였다. 아라비아반도의 바레인, 심지어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에서 다량의 송대 용천청자가 출토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용천청자를 ‘셀라돈’이라 불렀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터키의 톱카프 궁전에도 약 1,350여 점의 용천청자가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원대, 명대 초기 작품으로 중국 청자가 오스만투르크 민족에게는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용천청자가 세계 도자기 역사의 무대에 오르면서 문화 사자(使者)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도자기 문명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명을 띠었다.

2. 용천요의 역사와 품모 변천

1) 초기의 용천요

주백겸(朱伯謙) 선생이 지은 『용천요청자(龍泉窯靑瓷)』에 따르면, 용천과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견된 삼국양진(三國兩晉) 남북조(南北朝) 시대 고분 출토 자기와 월요(越窯), 무주요(婺州窯), 구요(甌窯) 제품은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용천요는 삼국 양진시기부터 유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최근의 고고학 자료를 보면, 용천현 내의 금촌(金村), 안북(安福)과 그 주변의 황단(黃壇), 계수(界首), 석범(石帆), 여보항(呂步坑)에서 당대, 오대(五代) 시기의 가마터가 계속 발견됐고 모두가 일정한 규모를 갖춘 것이었다. 유색은 옅은 청색(淡靑), 황색을 띠는 청색인데, 기본적으로 용천요 초기 생산품은 담청유(淡靑釉)가 특징이다. 오대의 吳越國王인 전류(錢鏐)는 용천요 청자를 비색 자기로 보고 공물로 납품받았다. 고대 문헌 기록을 보면, “전씨가 공물로 이때부터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빠르게 발전한 북송 용천요

북송시기는 용천요가 빠르게 발전한 시기로 생산규모와 제조기술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 송대 장작은 <계특편>에서 “... 宣和연간(1119~1125)에 궁정의 규격에 따라 번조되면서 기교가 날로 발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송대 조언위(趙彥衛)의 『운록만초(雲麓漫鈔)』의 기록을 보면, “청자는 唐代 이씨 왕조 때부터 생겨났다고도 하며 비색자기라 불렀다. 또 어떤 이는 五代 오월국왕인 전씨 왕조 때부터 생겨났다고 하며 임안(臨安) 근처에서도 번조하였는데 모두 뛰어난 자기였다”는 기록이 있다. 위의 송대 문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용천요는 정교함을 추구하고, 궁궐의 수요에 따라 견본대로 황실용 자기를 번조했고, 임안 관요(官窯)가 출현하기 전부터 이미 분청(粉靑) 청자를 만들어 냈으므로 월요(越窯)의 지위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북송 시기 용천요의 규모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용천시의 금촌, 대요, 안북, 대백안(大白岸)과 경원현(慶元縣) 상양(上垆) 등지를 중심으로 점차 남동쪽 구강(甌江) 유역으로 확대되어 발견된 북송시대 가마터는 159곳에 달한다. 기형도 완(碗), 잔(盞), 반(盤), 접시(碟), 호(壺), 병(瓶), 향로(爐), 관(罐), 다관병(多罐瓶) 등 각종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박하면서도 대범하고 양식도 다양하다. 유약은 석회유(石灰釉)이고 태토는 대부분 회색을 띤다. 유색은 대부분 청회색 혹은 약간 황색을 띤 색채로 투명도와 광택이 비교적 좋고, 맑고 깨끗하며 걸돌지 않았다. 태토는 얇고 일정하며 태토와 유약이 치밀하게 잘 결합되어 있다.

장식 기법은 각획(刻劃)기법을 주로 썼고, 각획하는 문양은 매우 분명하고 도드라진다. 조각칼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 있었으며 깊고 얇은 것으로 다양해 현지에서는 ‘반도니(半刀泥)’로 불렸다. 조각칼 사용에도 경중과 완급이 있어 각선(刻線)의 리듬과 선율을 느낄 수 있다. 기물 장식은 우아하면서 간결하고 높낮이가 분명하며, 문양이 자연스럽고 막힘이 없고 움직임의 대비도 분명하다.

3) 최고봉, 남송 용천요

송나라 황실이 임안(臨安)으로 남하하여 용천청자에 대한 미적, 경제적 수요로 인해 용천청자의 생산품질과 규모는 빠르게 높아졌다. 아울러 월요의 쇠락으로 용천청자는 전통 계승의 막중한 임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고고학 조사를 통해 보면, 용천 대요(大窯), 금촌(金村), 계구(溪口), 오동구(梧桐口), 소백안(小白岸), 대백안

(大白岸), 도태(道太), 송계(松溪), 안복(安福), 안인구(安仁口), 대기(大棋), 황금항(黃金坑), 무계(武溪)와 주변 현(縣)인 상양(上庠), 재방(梓枋), 수대항(水碓坑), 호산진(湖山鎭), 대계탄(大溪灘), 완요산(碗窯山) 심지어 태순(泰順), 문성(文成), 영가(永嘉) 등지에 청자 요장이 있었고, 요지는 319곳에 달해 실로 방대한 용천요계를 이루게 된다. 조형에도 각종 의례기, 식기, 위생용품, 조명용품, 문방구, 오락용품, 제기 등 다양한 기형이 있다. 문양도 비교적 간결하여 주로 현문(弦文), 연관문(蓮瓣文), 모란문(牡丹文), 용봉문(龍鳳文), 어문(魚文) 등이 있다.

그 성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배료(坯料)의 배합 개선이다. 배료는 기존에는 자석(瓷石)만 쓰던 것을 자석과 자금토(紫金土) 두 가지를 섞어 고화도에서의 내화 강도를 높였다. 둘째, 청유(靑釉) 배합을 개선하여 유약에 K⁺, Na⁺ 함량이 비교적 높은 현지 원료를 첨가해 유약의 고온 점착성과 용융 온도 범위를 높였는데 이런 유약을 석회감유(石灰碱釉)라 부른다. 이렇게 분청(粉靑), 매자청(梅子靑)이라는 정미한 유약색을 만들어냈다. 셋째, 혁신적인 기법이다. 초벌구이(素燒)와 다층시유(多層施釉) 기법으로 옥처럼 운운한 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가요, 제요를 창조해낸 것이다. 가요는 자구철족(紫口鐵足)으로 유면(釉面)에 빙열(開片)이 장식되어 고풍스럽고 단정하여 문양이 오묘하고 아름답다. 제요는 태토는 백색이지만 접지면은 붉은 색을 자주 보이고, 유면에 빙열은 없지만 영롱하고 우아하면서도 간결하고 옥처럼 푸르다.

4) 급속히 확장된 원대 용천요

원대에는 국토가 광활해졌고 각종 문화가 융합되었으며, 경제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어 용천 청자는 대량으로 수출되었고 요업도 급속히 확장된다. 구강 양쪽 연안으로 가마가 무수히 많아 생산규모는 전대미문으로 커져 가마터도 445곳에 달하게 된다.

원대의 일부 용천청자는 그 기형이 크고, 태토가 두꺼우며 유층(釉層)이 상대적으로 얇아져, 옥과 같은 질감은 남송 시대와 비교해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원대에는 기형이 매우 다양하고 색채가 풍부해졌으며, 주요 기형으로는 완(碗), 반(盤), 잔(盞), 잔탁(盞托), 배(杯), 집호(執壺), 이(匜), 관(罐), 분합(粉盒), 타호(唾壺), 병(瓶), 화분(花盆), 세(洗), 필통(筆筒), 필가(筆架), 조식관(鳥食罐), 향로(香爐), 조각상(塑像) 등이 있다. 또 각 기형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었다.

원대 용천청자는 장식 면에서 문양을 중시했고, 그 형식이 다양해져 각화(刻花), 획화(劃花), 인화(印花), 첩화(貼花), 투각(鏤空), 갈색점채(褐色點彩) 등 각종 기법이 활용되었다. 자주 쓰인 문양 소재로는 모란, 연화, 연잎, 국화, 매화, 차꽃, 영지(靈芝), 해당화, 전지화(纏枝花), 복숭아, 석류, 연관(蓮瓣), 권초(卷草), 매월(梅月), 현문(弦文), 거치문(鋸齒文), 방격문(方格文), 회문(回文), 구련문(句連文), 운문(雲文), 화염문(火焰文), 수파문(水波文), 파도문(波濤文), 거북이, 물고기, 오리, 용, 봉황, 가마우지, 기러기, 팔선(八仙), 팔보(八寶), 잡보(雜寶), 십자저문(十字杵文) 등이 있다. 문양으로도 다문화의 융합을 엿볼 수 있으며, 국내외 각종 문화 계층의 수요에 부합했음을 알 수 있다.

원대 용천 청자는 태토와 유약의 배합에서도 진화를 거듭해 태토 중에 철 함량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백도(白度)는 높아졌으며, 유약 중 철, 마그네슘 함량이 낮아졌지만, 칼슘, 납의 함량은 더 높아져 고온에서 유약 점착력을 높였고, 번조 온도 범위를 한층 확장시켰다.

5) 품격이 지금까지 간직되고 있는 명대 용천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따르면, 홍무(洪武) 26년(1393년) 명나라 황실용 어기(御器)로 공급되었다는 기록

이 있고 ‘수량이 적으면, 두 곳으로 나누어 생산하는 허락하였다’(行移饒、處等府燒造)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명대에 초기의 용천자기는 황실에 쓰이는 관기(官器)로 번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용천의 풍동암(楓洞岩) 유적에서 찾은 다량의 고고학 자료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은 명대 초기에도 용천요 청자는 여전히 번영했고, 품질도 우수해 해외로 수출되었으며 관요로서 어용 기물로 번조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명나라 중기 이후부터 차츰 쇠락해 간다.

명대의 용천요 청자는 태토가 두껍고 무거우며 일부는 기형이 큰 편이다. 태색(胎色)은 회색빛이 되는 흰색이며, 유층 투명도는 좋지만 성형이 조잡하고 품질도 조악하다. 주로 완(碗), 반(盤), 배(杯), 집호(執壺), 합(盒), 관(罐), 병(瓶), 향로(爐), 베투(硯), 연병(硯屏: 먼지와 먹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투 머리에 놓는 작은 병풍), 촛대(燭台), 걸상(凳), 조각상(雕塑) 등이 만들어졌다. 장식방법은 기본적으로 원대의 각화(刻花), 인화(印花) 등의 방법을 계승했지만 문양의 구성과 형태 및 조각수준은 송대, 원대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잘 짜여진 문양도 약간은 판에 박힌 형식이 눈에 띈다. 각화기법은 문양의 윤곽선을 따라 조각하였는데, 조각칼 사용의 경중, 등락, 넓고 좁음, 거칠고 세밀함의 정도가 깊이가 없고, 리듬과 선율의 흡입력도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장식 소재는 더욱 다양해져, 산수인물, 역사고사, 24효(孝) 등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수복(壽福)’, ‘금옥만당(金玉滿堂)’, ‘복여동해(福如東海)’, ‘장명부귀(長命富貴)’ 등 행운의 글귀를 새겨 넣었다.

6) 석양만조(夕陽晚照)의 청대 용천요

청대에 용천 요장은 몇 군데 남지 않아 대요(大窯), 손항(孫坑) 등 몇몇 지방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청대 말기에는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이 시기 용천청자 제품은 태토가 조악하고 색이 회백색을 띠며, 유층은 얇고 투명하고 유색은 황색이 짙게 감도는 청색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완(碗), 반(盤), 잔(盞), 합(盒), 관(罐), 병(瓶), 필통과 화분 등이 있다. 문양은 주로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 모란, 연잎, 연판(蓮瓣), 용, 물고기, 팔괘(八卦), 고정(鼓釘), 보주(寶珠), 기하문(幾何文) 등이 있고, 장식 방식도 각화 혹은 투각기법인 누공(鏤空)이 대부분이었다.

7) 전성기 회복한 민국(民國) 시기의 용천요

민국 초기에 용천의 도자기 산업은 대요, 손항에서 보계(寶溪), 계두(溪頭) 일대로 옮겨왔고, 민간에서는 번조방식에서 전통 용천 청자를 고수하면서도 일상용 청화자기를 번조하였다. 주로 가족 전수 방식과 도제 방식으로 청자 번조기법이 계승되었다. 그중, 이생화(李生和), 장이창(張義(二)昌), 공삼흥(龔三興) 등 공방이 송대 용천청자를 모방 제작하였고 용천청자 제작기법 전승의 대표사례이다.

8) 중흥으로 나아가는 현대 용천요

1959년 ‘절강성용천청자복원위원회(浙江省龍泉青瓷恢復委員會)’가 설립되면서 용천자기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 과학적 분석실험, 복제품 실험과 생산이 진행되었고, 용천청자는 다시 번영의 길을 걷게 된다. 21세기 들어 용천청자는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2009년 9월 30일 용천청자 전통 번조기술은 도자기로서 유일하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용천청자는 영원불멸의 생명력으로 인류 문명의 찬란한 한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다.

3. 용천청자의 전통 기법 특징

작고한 국제도자협회 의장 Janet Mansfeld는 “용천청자의 아름다운 유색은 세계 도자기의 기준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용천청자의 위상과 영향력은 기술력과 청자 재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은 商, 周나라 때부터 아름다운 원시 자기를 창조해 냈고, 중국인들은 청자 재질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으로 도예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자기는 송대에 와서 또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되고 주로 관요, 민요라는 두 가지 계통으로 왕성하게 발전되었는데 관요(官窯), 가요(哥窯), 여요(汝窯), 정요(定窯), 균요(鈞窯)의 5대 명요(名窯)가 생겨나고 그중 가요 유적이 용천에 있다. 이와 더불어 월주요계(越州窯系), 용천요계(龍泉窯系), 요주요계(耀州窯系), 경덕진요계(景德鎮窯系), 자주요계(磁州窯系), 건양요계(建陽窯系), 정요계(定窯系)와 균요계(鈞窯系) 등 8대 요계를 이룬다. 이런 가운데 송대 황실이 절강성 임안(지금의 항주)으로 남하하면서, 조정의 예호 속에 용천청자는 각종 청자 제작기법을 흡수 발전시켜 청자 발전사의 최고봉에 오르게 된다.

용천청자는 청유(靑釉) 배합기법, 여러 번의 시유(多次施釉), 후유(厚釉) 번조, 빙열 제어 기술이라는 네 가지 기법을 통해 탄생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유 배합기법: 유약을 만드는 주요 재료는 자금토(紫金土), 자토(瓷土), 석영(石英), 석회석(石灰石), 식물재가 있다. 배합과정은 상술한 재료를 각각 배소(굽기), 분쇄, 씻기 후 비율에 따라 혼합해 유장(釉漿)을 만든다. 좋은 유약의 배합은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대부분은 도제방식이나 가족간에만 계승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도공들은 청유 배합에 석회염(石灰碱=칼리유)을 써서, 분청, 매자청의 아름다운 유색을 만들어냈다.

여러 번의 시유 기법: 유약 덧바르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형한 기물을 말리고, 굽고, 유약을 바른 후 다시 말리고, 굽고, 유약 바르기를 3~4번 반복하면 옥처럼 은은한 후유(두꺼운 유약) 청자를 번조해 낼 수 있다. 도공들은 번조와 유약 덧바르기를 이용해 후유 장식으로 옥과 같은 미학적 효과를 냈다.

후유 번조기술: 용천청자 번조 과정은 건조(烘干), 산화(氣化), 항온(恒溫), 환원(還原), 강온(降溫)의 5개 단계로 나뉜다. 용요(龍窯)에서의 청자 번조는 다양한 지소(支燒)와 장소(裝燒) 방법이 있다. 후유 청자 번조는 난이도가 높고,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옥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없다. 도공들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불꽃의 색깔과 기타 수단으로 육안을 통해 가마 내 온도 상황을 조절하는 불 조절 기술을 숙련하고, 가마 내 번조온도, 시간, 상황을 조절하여 최장 97미터인 가마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청자를 한 번에 만들어낸다.

빙열 제어 기술: 빙열 제작 기술은 태토와 유약의 팽창 계수가 각기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이다. 태토의 배합을 조절하고 열팽창과 수축의 기술적 처리를 더해 빙열이 있거나 혹은 없게 할 수도 있고 빙열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도 할 수 있으며, 용, 물고기, 계 문양과 같은 형상의 빙열을 만들어 낸다. 재질이 아름답고 자연미, 장식미가 완벽히 결합되어 최상의 예술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런 최고의 기술로 생산해낸 고품질의 청자는 역대 황실과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고 늘 공급이 부족했다. 용천요는 원대, 명대에 급속히 팽창되어 대량으로 수출되었고, 강서(江西), 복건(福建), 광둥(廣東), 광서(廣西) 등의 지역과 심지어 동남아 지역의 도예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용천청자 도예의 발전수준, 기술의 정교함, 넓은 분포지, 다량의 생산량, 연속성과 파급력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용천청자의 미학적 의미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용천청자의 그 강력한 내재적 생명력은 바로 탄탄한 인문학적 정신에서 나온다. 용천청자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세속을 뛰어넘는 비범한 아름다움을 내뿜으며 온유하고, 차분하고, 우아하며, 청아한 미학적 특징을 창조했다. 그 속에는 유교(儒學), 도교(道敎), 선종(禪宗)의 전통 문화사상이 녹아들어 있으며, 중국 전통의 자연관과 인문정신이 고도로 한데 어우러져 전형적인 동양의 미학세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공자는“군자의 덕은 옥에 비유할 만하다(夫玉者, 君子比德也)”고 했다. 중국 전통문화에서 옥은 인(仁), 지(智), 예(禮), 의(義), 신(信) 오덕의 완벽한 인격에 비유된다. 이런 완벽한 인격의 경지는 후세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송대에 최고봉에 달하게 된다. 청자의 아름다움은 찬란함의 극치이자 평범함으로의 회귀여서 옥의 아름다움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비덕상옥(比德尚玉, 옥에 비유할 수 있는 덕)은 용천청자의 핵심적인 미학의 경지인 것이다.

유약은 용천청자의 영혼으로 유색 속에 도예인들의 대자연에 대한 독특한 깨달음이 녹아있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문화사상이 녹아있다. 역대 용천청자를 총론하면서 기물의 조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형체의 곡선이 적절하며, 상하 대응, 좌우대칭, 주차(主次, 어떤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지)가 명확하고 비율이 균등하며, 부드럽고 강함이 공존하는 원만한‘중화(中和)’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미학적 경지에서 보면 용천청자는 자연 그대로의 재질을 중시하면서도 창작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매우 중요시하고 평범하고 간결하며, 얼음이나 옥과 같은 청자의 품모는 양자의 완벽한 결합이다. 따라서 용천청자의 품격은 용천의 푸른 자연과 맑은 물, 자연에서 얻은 재료 덕분이며, 신묘한 청자 제작기술과 인문학적 정신에서 발원한 것이다.

용천요는 매우 방대하고 깊이 있는 청자문화의 집성으로 관요, 민요를 모두 품고 있다. 조형이나 장식 면에서 전통적인 절학사상과, 궁정 미학, 민간 신앙의 문화 충돌과 문화 융합도 잘 보여 주고 있다. 남송 황궁 청자 예기(禮器)인 종식병(琮式瓶), 격식로(鬲式爐) 등의 조형은 대부분 상나라, 주나라의 청동기에서 유래했고 남송 왕조의 국토 수복의 염원과 한나라 문화에 대한 고수를 잘 드러내고 있다. 종교, 식물, 동물, 인물, 문자 등 각종 장식과 문양은 그 소재가 광범위하고 풍부하며, 의미가 깊고 각 시기의 사회적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고 다양한 생활의 재미와 미학적 이상을 잘 투사하고 있다.

오늘날, 세인들은 용천청자가 세계 도자기 문명에 기여한 혁혁한 공로를 기억하고 있고, 용천청자를 인류 최고의 문화의 전당에 올려놓았으며 현재 도자기로서 유일하게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이는 용천청자가 도자기 부문 유일의 세계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중화문화를 대표하고 앞으로 더 막중하고 숭고한 사명을 짊어지며 새로운 여정을 내딛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청자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삶을 풍성하게 만들길 진심으로 바란다!

龙泉窑青瓷文化综述

周晓峰(龙泉青瓷博物馆 馆长)

陶瓷是人类文明的坐标。早在新石器时代,在龙泉东北郊区的牛门岗遗迹就开启了龙泉的陶瓷文明发展史。在中国,青瓷技艺最早形成。浙江省是青瓷的发祥地,龙泉窑处于浙江省西南部山区。龙泉窑可能始于公元三世纪,至迟在唐代形成一定规模,并在宋代开始后居上,成为中国最著名的青瓷名窑。龙泉窑的发展在历史上有起有落,但龙泉青瓷传统烧制技艺递代相传,至今它的传承发展仍然保持着旺盛的、顽强的生命力,成为中国陶瓷史上的一颗常青树和人类陶瓷文明的代表。

一、龙泉窑的地位及影响

龙泉窑以龙泉市为中心,包括了浙江省西南部的庆元、丽水(处州)、云和、景宁、松阳、遂昌、缙云、武义、青田、永嘉、文成、泰顺,以及福建省的松溪、浦城等十多个县(市、区),形成了一个窑场众多、分布范围很广的青瓷窑系。龙泉窑发现窑址600多处,其中龙泉境内有近400处。古代文献记载:“瓯江两岸窑窑林立,烟火相望,江上运瓷船只往来如织”,可见历史上它的兴旺。

中国野外考古先驱陈万里先生曾说:一部中国陶瓷史,半部在浙江;一部浙江陶瓷史半部在龙泉。虽然这句话稍有些夸张,但说明龙泉窑的重要地位。龙泉窑在中国的青瓷窑系中虽然大器晚成,但它形成了一个文化内涵庞杂、窑址分布广阔、窑业规模空前的青瓷窑业系统,倍受世人青睐。它融南北瓷业技术和窑窑文化,在“官窑”和“民窑”不同文化层相互碰撞中,博采众长,集青瓷技艺之大成,最后超越其它青瓷窑系,在南宋之际把青瓷烧制技艺推上历史巅峰。

在相当长的一段历史时期中,龙泉窑开创的“哥窑”、“弟窑”青瓷以鬼斧神工的传统技艺、如翠似玉的精美釉色、端庄典雅的典范造型影响着东西方人的生活方式和审美取向,在人类陶瓷发展史上扮演着重要的角色,在世界商贸文化交流史中对人类产生着至深的感召力。

宋代庄绰《鸡肋编》载:“处州龙泉县……又出青瓷器,谓之秘色。……宣和中,禁庭制样需索,益加工巧。”明人陆容《菽园杂记》中对龙泉窑制瓷情况曾记录:“……然上等价高,皆转货他处,县官未尝见也。”可见早在宋代,龙泉青瓷上等产品即被列为贡品,并按规定样式生产皇宫所需产品。传世宋代龙泉青瓷在清宫中使用或收藏的地点均集中在乾隆皇帝幼儿、成年、亲政及预备归政后居住之所,乾隆御制诗也多次针对宋代龙泉青瓷,说明清宫和乾隆本人对于龙泉青瓷的重视。古代龙泉青瓷器物造型多种多样,既有各类盘、碟、碗、盏、壶等日用器皿,也有水注、笔筒、笔架等文房用具,还有鸟盏与各式香炉,更值得注意的是出现了不少仿制青铜器和玉器的青瓷造型。这表明龙泉青瓷工艺上的成就受到社会各阶层的喜爱,反过来也受不同层次审美需求的影响。

从唐代始,中国瓷器即作为新兴的商品进入国际贸易行列。宋代,在“市舶之利以助国力”的政策激励下,中国瓷器开始大规模的输出。宋、元、明时期龙泉青瓷的外销量是中国瓷器中最大的,成为当时中国对外贸易和文化交流的主角之一。南宋赵汝适《诸蕃志》和元代汪大渊《岛夷志略》于此多有记载。特别是当代丰富的考古资料 and 世界各大博物馆的收藏陈列证明,龙泉青瓷自宋代以来远销亚、非、欧等五十多个国家和地区。14世纪后半叶至15世纪,琉球是当时中国陶瓷贸易的重要中转地。阿拉伯半岛的巴林岛,甚至远到津巴布韦和南非联邦,都有数量可观

的宋元龙泉青瓷出土。在欧洲龙泉青瓷被称为“雪拉同”，至今仍流传着美丽动人的故事。在土耳其的托普卡帕皇官珍藏有大约1350余件龙泉青瓷，大多数是元代和明代初期的产品，这些中国青瓷在奥斯曼人眼中是权势和财富的象征。龙泉青瓷自它登上世界陶瓷史的舞台，就扮演着文化使者的身份，并承担传播陶瓷文明的重要使命。

二、龙泉窑的历史沿革与风貌演变

步履蹒跚的早期龙泉窑

根据朱伯谦先生所著的《龙泉窑青瓷》中所述，龙泉及周边地区陆续发现的一批三国两晋南北朝时期的古墓，墓内出土的瓷器与越窑、婺州窑、瓯窑的产品有些差别，具有自己的特色，由此推测龙泉窑可能源于三国两晋时期。

根据最近的考古资料，我们在龙泉县境内的金村、安福，以及周边的黄坛、界首、石帆、吕步坑等地陆续发现了唐、五代时期的窑址，具备了一定的规模。其产品釉色淡青，青中泛黄，基本形成龙泉窑早期产品淡青釉的特征。五代的吴越国王钱镠把龙泉窑青瓷作为秘色瓷纳贡。据古文献记载：“钱氏所贡，盖取于此。”

快速发展的北宋龙泉窑

北宋时期是龙泉窑的快速发展期，在生产规模和制瓷技艺上都有了很大的突破。宋代庄绰《鸡肋编》记载“……宣和中，禁庭制样须索，益加工巧。”赵彦卫《云麓漫钞》记载：“青瓷器，皆云出自李王，号秘色。又云出钱王，今处之龙溪出者，色粉青，越乃艾色……近临安亦自烧之，殊胜二处。”从以上宋代文献可证明，宋代龙泉窑追求工巧，并根据宫廷的需要按样稿烧制宫廷用瓷，而且可能在临安官窑之前已能烧制出粉青的青瓷，渐渐取代了越窑的地位。

北宋时期龙泉窑规模迅速扩大。以龙泉市的金村、大窑、安福、大白岸和庆元县上垟等为中心，逐渐向南向东沿瓯江流域扩展，发现的北宋遗址有多达159处。

器型有碗、盏、盘、碟、壶、瓶、炉、罐、多罐瓶等各种造型，古朴大方，式样丰富；釉为石灰釉，器物胎骨多呈灰色，釉色多为艾叶青或略为偏黄的色彩，透明度和光亮度较好，比较清新亮丽，却又不飘浮。胎壁薄而均匀，胎釉结合致密。

装饰手法基本上是采用刻划技法，刻划的纹饰清晰明亮。刻划刀法有宽有窄，有深有浅，当地俗称“半刀泥”。运刀有轻重缓急，体现出刻划的节奏与韵律。器物装饰高雅洁净，层次分明，划纹舒展、流畅自如，动静对比强烈。

登峰造极的南宋龙泉窑

因宋室南移至临安，宫廷对龙泉青瓷审美上和经济上的需求，使龙泉青瓷生产质量和生产规模迅速地提升。同时因为越窑的衰落，龙泉青瓷担当起传承重任，迎来很大的发展机遇。

经考古调查发现，在龙泉大窑、金村、溪口、梧桐口、小白岸、大白岸、道太、松溪、安福、安仁口、大棋、黄金坑、武溪，及周边各县的上垟、梓枋、水碓坑、湖山镇、大溪滩、碗窑山，甚至泰顺、文成、永嘉等地都有青瓷窑场，窑址达319处，形成了庞大的龙泉窑系。

其造型有各种礼器、食用器、卫生用器、照明用器、文房用器、娱乐器、祭器等器形。纹饰则比较简练，主要有弦纹、莲瓣纹、牡丹、龙、凤和鱼纹等。

其成就主要体现在：一是改进坯料的配方。坯料从原来以瓷石一元配方，改为瓷石和紫金土二元配方，以增强其耐高温强度。二是改进青釉的配方。在釉中增加了含K⁺、Na⁺量较高的本地原料，从而增加了釉的高温粘稠度和熔融温度范围，这种釉被称为石灰碱釉。并配制出粉青、梅子青的精美釉色。三是创新工艺技术。采用素烧和多次

施釉的工艺技术，能烧制出温润如玉的青瓷品质。四是开创哥窑、弟窑的产品。哥窑为紫口铁足，釉面开片装饰，风格古朴端庄，纹饰奇丽。弟窑则为白胎，常见朱砂底，釉面不开片，莹润、优雅、简洁、洗炼，如翠似玉。

迅猛扩张的元代龙泉窑

元代疆土辽阔，各种文化大交融，经济贸易活跃，龙泉青瓷大量出口，窑业迅速扩张。沿瓯江两岸，窑窑众多，其生产规模盛况空前，窑址多达445处。

元代一些龙泉青瓷器型硕大，胎壁增厚，釉层相对变薄，玉质感与南宋相比相对欠缺。但元代的器型层出不穷，花色品种非常丰富，常见的器型有碗、盘、盏、盏托、杯、执壶、匜、罐、粉盒、唾壶、瓶、花盆、洗、笔筒、笔架、鸟食罐、香炉和塑像等。每种器型又延伸出许多种产品造型。

元代龙泉青瓷在装饰方面重纹饰，形式多种多样，多采用刻、划、印、贴、镂和褐色点彩等各种装饰技法。常见纹饰题材有牡丹、莲花、荷叶、菊花、梅花、茶花、灵芝、海棠花、缠枝花、桃、石榴、莲瓣、卷草、梅月纹、弦纹、锯齿纹、方格、回纹、勾连纹、云纹、火焰纹、水波纹、浪涛纹、龟、鱼、鸭、龙、凤、鸂鶒、飞雁、八仙、八宝、杂宝和十字杵纹等。从纹饰看，体现了多种文化的交融，同时也迎合了国内外各种文化层次的需求。

元代龙泉窑青瓷胎釉配方继续改进，胎中铁含量明显降低，白度进一步提高；釉中钙、镁含量进一步降低，而钾、钠含量进一步提高，使得釉在高温下黏稠度继续提高，烧成温度范围继续拓宽。

风采犹存的明代龙泉窑

据《大明会典》载，洪武二十六年（1393年）明朝宫廷供用器皿等物，数少者“行移饶、处等府烧造”。可见明早期龙泉窑还在为宫廷烧造官器。同时，我们从龙泉的枫洞岩遗址的大量考古资料可佐证，明代早期龙泉窑青瓷依然繁荣，产品质量较高，畅销海内外，仍作为官窑烧造御供器物。明中期以后逐渐衰落。

明代器型胎体厚重，一些器型较大，胎色白中发灰，釉层透明度较高，成型草率，质量粗糙。常见的器物有碗、盘、杯、执壶、盒、罐、瓶、炉、砚、砚屏、烛台、凳和雕塑等。其装饰方法基本承袭了元代的刻、印等方法，但是在纹样的结构、形象以及刀法上比宋代、元代大为逊色，工整规矩的纹饰稍显得呆板，刻花常常按照花纹外形运刀，运刀的轻重、起落、宽窄，粗细都不甚讲究，缺乏节奏和韵律的感染力。但在装饰题材上略有拓展，常出现山水人物、历史故事、二十四孝等故事画面，以及刻有“福寿”、“金玉满堂、福如东海、长命富贵”等吉祥语款。

夕阳晚照的清代龙泉窑

清代龙泉窑窑场所剩无几，只有大窑、孙坑等少数地方在烧造。至清末时处于濒危状态。这时的龙泉青瓷产品胎质粗糙，胎骨灰白；釉层薄而透明，釉色青中泛黄。产品主要有碗、盘、盏、盒、罐、瓶、笔筒和花盆等；纹饰主要有梅、兰、竹、菊、牡丹、荷叶、莲瓣、龙、鱼、八卦、鼓钉、宝珠、几何纹等；装饰方式多为刻划，或镂空。

复苏传奇的民国龙泉窑

民国初期，龙泉窑业从大窑、孙坑转移到宝溪溪头一带，民间坚持烧造传统龙泉青瓷，同时也烧制日用青花瓷器。以家族和师徒方式传承青瓷烧制技艺。其中，“李生和”、“张义（二）昌”、“龚三兴”等窑坊在仿制宋代龙泉青瓷，是龙泉窑青瓷技艺薪火传承的典范。

走向中兴的当代龙泉窑

1959年成立“浙江省龙泉青瓷恢复委员会”，开始对龙泉窑进行全面系统的考古发掘、科学测试、复制试验和生

产，使龙泉青瓷再次走向繁荣。进入二十一世纪，龙泉青瓷的发展突飞猛进。2009年9月30日，龙泉青瓷传统烧制技艺被联合国教科文组织批准列入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成为目前全球唯一入选的陶瓷类项目。龙泉青瓷以其亘古不衰的生命力，续写着人类文明的华彩篇章。

三、龙泉青瓷的传统技艺特征

已故的国际陶协主席珍妮特·曼斯非尔德说：“龙泉青瓷的唯美釉色是国际陶瓷的标杆。”龙泉青瓷的地位及影响与它的技术成就和人们对青瓷材质的认同分不开。中国在商周之际就创造出精美的原始瓷，国人对青瓷材质的亲近感和认同感与生俱来，促进了瓷业的发展。瓷器到了宋代是中国陶瓷的又一个高峰期，主要表现在官窑、民窑两大系统都蓬勃发展，出现了“官、哥、汝、定、钧”五大历史名窑，其中哥窑遗址在龙泉。同时形成了越州窑系、龙泉窑系、耀州窑系、景德镇窑系、磁州窑系、建阳窑系、定窑系和钧窑系等八大窑系。在这样一个良好的氛围中，再加上宋朝皇室南迁至浙江临安，在朝野的推崇下，使龙泉窑青瓷能够吸收各种青瓷制作技艺，在南宋时期登上青瓷发展的历史巅峰。龙泉青瓷形成了青釉配制、多次施釉、厚釉烧成、开片控制四大独特传统烧制技艺。

青釉配制技术：制釉的主要原料为紫金土、瓷土、石英、石灰石、植物灰。配制过程是将上述原料分别焙烧、粉碎、淘洗后按比例混合制成釉浆。好的釉的配方需要数百次试验才能成功，多以师徒或家族相传，秘而不宣。窑工们在青釉配制中使用石灰碱釉，配制出“粉青”、“梅子青”的精美釉色。

多次施釉技术：即采用多次施釉的方法，将坯体晾干、素烧、施釉，然后再晾干、素烧、施釉，如此反复三至四次，最后烧制成温润如玉的厚釉青瓷。艺人们利用素烧和多次施釉的工艺技术，以厚釉装饰来达到如玉的审美效果。

厚釉烧成技术：龙泉青瓷烧成过程分烘干、氧化、恒温、还原、降温五个阶段。龙窑中青瓷烧成有多样的支烧和装烧方式。厚釉青瓷烧成难度大，温度偏高或偏低，都达不到如玉的效果。窑工们可根据长年积累的经验，通过观察火焰颜色及其它手段，熟练掌握用肉眼判断窑内温度气氛的火控技术，控制窑内烧成温度、时间与气氛，甚至能在最长可达97米的龙窑中烧制数以万计的大批量青瓷。

开片控制技术：釉面开片技术主要是利用胎釉膨胀系数不同，控制胎的配方，同时配以热胀冷缩的技术处理，使釉面开片或不开片，开大片或开小片，产生龙纹、鱼纹、蟹爪纹等象形开片，使材质美、自然美、装饰美达到了完美地结合，从而取得良好的艺术效果。

以这种高超技艺生产出来的高品质青瓷产品倍受国内朝野和世界人民的青睐，供不应求。龙泉窑在元、明时期迅速扩张，大量出口，影响到江西、福建、广东、广西等省甚至东南亚国家的瓷业发展。其窑业之盛、技艺之精、分布之广、产量之丰、延续之久、影响之大令人叹为观止。

四、龙泉青瓷的美学内涵

亘古不衰的龙泉青瓷，其强大的内在生命力源自于人文精神的有力支撑。龙泉青瓷散发着温文尔雅、超凡脱俗的气质，形成了温润、沉静、典雅、清远的审美特征。其中凝聚了儒家、道家、禅宗的传统文化思想，将中国传统自然观与人文精神高度地统一于一体，体现出典型的东方美学意境。

孔子云：“夫玉者，君子比德也。”在中国传统文化中，玉具有仁、智、礼、义、信五德的完美人格意向。这种完美的人格意向对后世产生了深远的影响，尤其在宋代，几乎到了登峰造极的程度。青瓷之美，绚烂之极，又归于平淡，与玉的品质极为吻合。所以，比德尚玉是龙泉青瓷的核心审美价值取向。釉是龙泉青瓷之魂，釉色之中饱含着窑匠们对大自然独到的感悟，也体现了“天人合一”的文化观念。纵观历代龙泉青瓷产品，器物造型流畅和谐，形体

变化伸缩适度，上下呼应对照，左右对称均衡，主次明确，比例匀称，刚柔相间，体现着一种圆满中和的美。在审美活动的发生与审美境界的构成上，龙泉青瓷既注重材质本身的自然，同时也极为重视作为主体人的介入，平淡简约、如冰似玉的青瓷风格正是两者的完美结合。因此，龙泉青瓷品格得益于龙泉的青绿山水和原真材料，也得益于巧夺天工的青瓷技艺及人文精神的倡导。

龙泉窑是一个庞杂、深厚的青瓷文化集成，既有官窑的成份，也有民窑的成份。无论在造型还是装饰上都体现出传统哲学思想、宫廷审美、民间信仰的相互碰撞和相互影响。南宋皇宫青瓷礼器如琮式瓶、鬲式炉等的造型大多源自商周的青铜器，体现了南宋王朝渴望收复江山意愿和固守汉文化的心理。宗教、植物、动物、人物、文字等各类装饰纹样，题材广泛、内容丰富、内涵深刻，反映出不同时期的社会心理，折射出不同生活情趣和审美理想。

当今，世人没有忘记龙泉青瓷为世界陶瓷文明所做出的丰功伟绩，把龙泉青瓷推上人类最高的文化殿堂，成为目前世界唯一的陶瓷类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它填补了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中陶瓷类的空白，彰显了中华文化，也标志着龙泉青瓷将背负更崇高的使命，步入新的发展里程。

希望人们通过青瓷文化的剖析和解读，能增强自觉，教化心灵，充实生命。

주제발표 3

일본의 茶湯文化와 陶磁器

키라후미오(吉良文男, 도자사연구가)

1. 일본에서 ‘다완(茶碗)’의 의미
2. 초기의 다기(茶器)
3. ‘唐物(카라모노)’
4. ‘安南(안남)’, ‘宋胡錄(순코로크)’, ‘한네라’, ‘南蠻(난반)’
5. ‘高麗(코오라이)’
6. 주문생산과 ‘和物(와모노)’ 다완의 탄생

1. 일본에서 ‘다완(茶碗)’의 의미

‘다완’이 ‘차를 넣어 마시는 완’을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 현대생활속에서도 이 말은 다의적(多意的)으로 사용되어왔다.

일본인에게 ‘어떤 『그릇에 밥을 먹는가?』 하고 물어 보면 대개 ‘茶碗에 먹는다’라는 대답이 되 돌아온다. ‘식 후 어떤 그릇에 차를 마시는가?’하고 물으면 대개 ‘유노미(湯飲)로 마신다’ 라는 대답이 되 돌아온다. 이런 경우 ‘茶’와 ‘湯’은 碗의 내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한편 말차(抹茶)를 마실 때의 그릇은 다완(茶碗)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내용물은 그릇의 명칭과 일치한다. 첫 용례인 식기에 해당하는 다완은 ‘飯茶碗(메시자완=밥 공기)’의 생략형으로 생각되는데, 문자만 보면 [밥(飯)+茶碗]인지 [말차(飯茶)+碗]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전자가 정답이지만 이 경우 차의 의미는 없어져서 다완이란 말은 다만 그릇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현상이 일어나는 것에는 일본인이 차를 만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 고대~중세의 문헌에는 ‘다완병(茶碗瓶)’, ‘다완발(茶碗鉢)’과 같은 말들이 보인다.¹⁾ 이런 경우 기형 자체는 다완이 아니라 병, 발이어서 기종(器種)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다완은 자기(磁

1) 예를 들면 『佛日庵公物目錄』(1320년의 목록을 기초로 1363년에 다시 정리된 소장품목록, 神奈川縣 圓覺寺 소장)에 「茶碗鉢」 등이 기술되어 있다.

器)를 의미하고, 상술한 ‘다완병’, ‘다완발’은 [磁器瓶], [磁器鉢]로 이해된다. 일본에서 자기 생산이 시작된 시기는 17세기이므로 여기에 표기된 다완(=자기)은 중국산 백자 혹은 청자인 것이다.²⁾ 그런 중국산 자기들은 당초 ‘瓷器’로 인지되었다고 생각되지만³⁾ 차와 함께 중국산 자기가 다완으로 일본에 전해짐에 따라 다완이 ‘瓷器’대신 ‘磁器’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차가 언제 일본에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일본의 정사(正史: 이른바 ‘6국사(六國史)’로 통칭되는데, <일본서기(日本書紀)>,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일본문덕천황실록(日本文德天皇實錄)>,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등이다.)에 815년 사가천황(嵯峨天皇)이 사가현(滋賀縣) 카라사키(韓崎=唐崎)에서 차를 마셨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⁴⁾ 그래서 9세기 초에 일본에서 차를 마셨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 최초의 차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

후대의 다른 문헌에는 729년에 [行茶事], 735년에 ‘쇼무천황(聖武天皇)이……백승(百僧)에……차를 하사했다’라는 기사가 있어 이미 8세기에 음다풍습이 조정과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⁵⁾ 그리고 나라(奈良)~헤이안(平安) 시대에 차를 마시는 다완으로 주로 중국산 자기가 쓰이면서 일본인에게 ‘茶碗=磁器’란 관념이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음식용기로 나무 또 잎과 같은 식물성 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일본에서는 밥을 담는 그릇은 도자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국을 담는 그릇은 목기(漆器)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러한 전통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밥을 담는 그릇을 ‘메시자완(飯茶碗)’이라 부르는 것이 자기로 만든 밥 그릇이 일반에 보급된 17세기 후반 이후에도 고대 이래의 ‘茶碗=磁器’란 관념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초기의 다기(茶器)

일본에서 초보적인 다기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중국 차기에 대한 정보⁶⁾나 일본 출토품을 참조할 때 다완은 아마 월주요系 청자나 중국 북방 또는 남방의 백자였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815년의 記事에도 다기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당시 견당사(遣唐使)로 당나라에 가서 차, 차씨와 함께 다기들을 가져왔던 승려가 많았다고 추정한다. 실제 후쿠오카현 하카다(福岡縣 博多)유적이거나 헤이안쿄(平安京, 교토)유적에서 그 흔적이 엿보인다.⁷⁾ 그런데 헤이안(平安)시대 문학에는 월주요 청자를 의미하는 ‘히소쿠(秘色)’라는 말도 나온다.

이상과 같이 헤이안(平安)시대 천황 주변 사회에 어느 정도 차문화가 존재한 것은 뚜렷하지만 그 후 헤이안(平安)시대를 통해 차가 일본사회안에 유행했다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차재배 또는 제다법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894년에 견당사(遣唐使)가 폐지되었

2) 늦어도 11세기후반에 고려청자가 일본에 들어온 것이 확실하지만 당초에는 중국에 유입된 고려청자가 중국 도자기와 함께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고려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시기는 12세기 이후라고 생각된다. 片山まび, 「동아시아속에서 고려청자의 유통경로에 대한 考察-일본 사례에 대한 개관」; 鄭銀珍, 「日本出土の高麗青磁と中國商人」, 『高麗青瓷國際學術會議論文摘要集』, 浙江大學韓國高等教育財團, 2013年.

3) 747년의 문서에 기재된 용기라고 믿어지는 항아리(도쿄국립박물관 소장)에는 ‘靑瓷器子壺’란 중이가 달려 있다.

4) 森田悌, 『日本後記』中, (講談社 學術文庫), 2006年.

5) 重森三玲, 『日本茶道史』日本文化史叢書1, 藤森書店, 1982年(초판은 1934年); 林屋晴三, 『特別展 茶の美術 總說』, 東京國立博物館, 1980年.

6) 陸羽, 『茶經』, 茶道古典全集 第一卷, 淡交社, 1956年.

7) 長谷部樂爾·今井敦, 「日本出土の中國陶磁」, 『中國の陶磁』 12, 平凡社, 1995年; 大庭康時·佐伯弘次·菅波正人·田上勇一郎 編, 『中世博多を掘る』, 海鳥社, 2008年.

던 것도 중국의 새로운 차문화가 들어오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에 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계기가 된 것은 12세기 후반에 요사이 선사(榮西禪師, 1141~1215)가 차씨를 송나라에서 가지고 귀국한 것이며, 이 시기는 헤이안(平安)시대에서 카마쿠라(鎌倉)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였다.⁸⁾ 그때 선사가 선불교(禪佛敎)와 함께 송나라의 다기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⁹⁾

3. ‘唐物(카라모노)’

고대 일본인은 외국을 ‘카라’로 인식했다고 생각한다. ‘카’는 건너편을 의미하여 후세에 자주 ‘彼’란 한자를 가리킨다. ‘라’는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라(國)’의 의미로 쓰여 왔다. 신라(新羅)나 탐라(耽羅)의 ‘羅’, 또 백제(百濟)를 일본에서 ‘쿠다라’라고 할 때의 ‘라’가 그것이다. 조선반도가 일본에 주요한 외국이었던 시대에는 韓이 ‘카라’로 읽혔다. 그러나 당나라가 일본의 주요한 외국이 되면서 ‘唐’이 오로지 ‘카라’에 해당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카라’는 대개 중국을 가리킨다. ‘唐物’는 따라서 원래 ‘당나라의 물품’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중국에서 건너온 물품의 호칭으로 쓰인다.¹⁰⁾ 특히 13세기~16세기 카마쿠라(鎌倉)시대부터 무로마치(室町)시대에 걸쳐 송, 원, 명의 문물이 대량으로 수입되었으며 차에 관한 도구류도 중국산 물품=‘唐物’이 중심이었다. 그 안에 서화, 화병, 향로를 비롯하여 차호(茶壺), 다입(茶入:말차를 담는 차통), 다완, 향합 등 다양한 것들에 중에서 도자기도 큰 위치를 차지하였다.

‘唐物’ 도자기의 산지는 중국각지에 걸쳐 있는데 특히 절강성(浙江省), 복건성(福建省) 등 중국 남부의 생산품이 두드러진다. 절강성에는 용천요(龍泉窯)가, 복건성에는 건요(建窯)의 건잔(建盞)이 유명하다. 또 차호로서 광둥성(廣東省) 불만기석요(佛灣奇石窯),¹¹⁾ 차이레(茶入)는 복건성(福建省) 복주시(福州市) 홍당요(洪塘窯)의 제품이 많이 사용되었고,¹²⁾ 강서성(江西省) 공주요(贛州窯) 등 기타 지역의 제품도 포함된다. 향합중에는 강서성(江西省) 경덕진요(景德鎮窯) 청화백자나 용천요(龍泉窯) 청자가 많이 있는데, 명성높은 것으로는 ‘코오치(交趾) 향합’이라 부르는 일군이 있다. 코오치(交趾)는 본래 베트남의 일부를 가리키는 지명이기 때문에 코오치향합이 베트남산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었지만 그 후 복건성(福建省) 평화현(平和縣) 전갱(田坑)에서 향합을 생산한 가마가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했다.¹³⁾

일본 중세의 카라모노 수입상황을 잘 보이는 실례는 신안침물선이겠다. 이 배은 절강성 영파(寧波)를 출항하여 1323년경 한국 전라남도 신안바다에 침몰했다. 목적지는 아마 일본 후쿠오카현 하카다(博多)항이며, 일본의 사찰이나 사람 이름을 적은 목간들과 함께 수많은 중국산 제품이 발견되었다. 도자기가 많이 인양되었

8) 요사이선사(榮西선사)가 차씨를 이식한 시기에 대해 1168년설과 1191년설이 있다. 森鹿三, 『榮西禪師年賦』, 『茶道古典全集』 第二卷, 淡交社, 1956年.

9) 요사이선사(榮西선사)가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전하는 天目다완(福岡縣 聖福寺 소장)과 차씨를 넣고 明惠上人에 보냈다고 하는 차이레(茶入, 京都府 高山寺 소장)가 현존한다. 『特別展 榮西と建仁寺』, 東京國立博物館, 2014年.

10) ‘唐物’란 말은 문헌상에서 9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宇津保物語>(10세기후반)나 <源氏物語>(11세기중반)에 ‘히소쿠’와 함께 ‘카라모노’ 혹은 ‘카라물’란 말이 나온다.

11) 徳川義宣, 『茶壺』, 『茶道聚錦 十 茶の道具一 花入, 茶入, 茶壺』 小學館, 1986年.

12) 栗建安, 『福州地區における‘胎醬釉器’の發見と研究』, 『研究紀要』 13, 野村美術館, 2004年; 海のシルクロード 出發点 “福建” 展 開催實行委員會 편, 『東アジアの海とシルクロードの接点 福建—沈沒船, 貿易都市, 陶磁器, 茶文化—』, 2008年.

13) 平和縣博物館·福建省博物館, 『福建平和縣田坑素三彩窯址調查』, 『福建文博』 1997-1; 福建省博物館, 『福建平和縣南勝田坑窯址發掘報告』, 『福建文博』 1998-1. 전갱요지의 발견과 조사는 赤沼多佳와 복건성 도자고고학자들의 협력으로 진행된 것이다.

는데 용천요 청자나 복건성 지역 여러 가마의 흑유(黑釉) 자기들은 일본에 전하고 있는 사찰 소장품, 다도구류와 유사성이 극히 높고 신안선과 같은 선박이 카라모노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했다는 실태를 알 수 있다.¹⁴⁾

신안 침몰선과 다도구의 관련으로 주목되는 하나는 인양품 중에 시대적으로 출항시점보다 시기가 꽤 올라가는 도자기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많은 건잔(建盞)에 사용 흔적이 보이며, 당시 일본에 있어서 왕성한 건잔 수요에 대응하고자 중국내에 남아있었던 건잔을 모아서 선적했다고 생각한다.¹⁵⁾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건잔은 元代에는 이미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았다.¹⁶⁾ 한편 다완으로 건잔을 쓰고 싶은 요구는 일본에 확실히 있었다.¹⁷⁾ 또 공주요(贛州窯)산 蕾座柳斗文茶壺가 인양되었는데 유사한 소호가 일본에서 차이레(茶入)로 쓰이며 愛知縣 세토요(瀬戸窯)에서도 모방했다.

건잔과 시대적으로 가까운 黑釉 다완으로 강서성(江西省) 길안현(吉安縣) 길주요(吉州窯)에서 번조된 일종의 黑釉 다완들이 있다. 이들은 바다거북 대모갑과 닮은 유색이나 나뭇잎 혹은 형지와 같은 골을 쓴 문양이 있는 화려한 것들이 많다.

건잔 이후의 복건성産 黑釉 완들도 계속 수입되며 다완으로 쓰였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이카쓰기(灰被)’ 또는 ‘키텐모쿠(黃天目)’ 라고 하는 일군이 있다. 이들은 남평(南平) 차양요(茶洋窯)에서 만든 것인데 일본산 天目 다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체로 天目形완은 일본다완의 규범의 하나를 이루며 일본각지 요장에서 만들어졌다. 天目 다완을 쓰는 차는 의례적인 차로 현재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탕(茶湯)이 일본사회에 침투하면서 고급한 카라모노 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카라모노도 차도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귀족, 큰 사찰, 승려, 유력한 무사 등 상류계층과 기타 상인 등 도시 사람들을 중심으로 와비차(侘茶)가 발흥하면서 종래와는 다른 미의식적 선택이 시작했다.

와비차는 현재 일본의 많은 차 유파(流派)의 원류가 되는 차범이지만 원래 ‘쓸쓸함’이나 ‘가난함’의 의미를 포함하는 다풍(茶風)이다. 센노 리큐(千利休)의 고제 이었던 야마노우에 소오지(山上宗二)는 ‘무슨 도구도 가지지 않는 茶風이 와비차다’고 했다.¹⁸⁾ 물론 아무 것도 없으면 차를 마실 수 없으니까 이 말은 하나의 정신론적인 표현이지만 와비차 근처에 있는 사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다도구에도 그런 관점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르렀다.

와비차의 시조라고 전하는 무라타 슈코오(村田珠光, 1423~1502)가 좋아했다는 다완들 몇 개가 전하는데 그들은 복건성 남부에서 많이 만든 대량생산품 중에서 선택된 청자 완이다. 카라모노이지만 특히 고가이지 않으며 또 높이 평가되지 않는 도자기였다. 그런 ‘粗相(소소오=粗抹한 모습)’인 도구에 와비차 다인들이 주목했다.

그런 경향이 明代의 오채자기(五彩磁器)나 청화자기를 선택할 때에도 잘 보인다. 중국에서 元代 이후 경덕진이 중심적인 요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영향은 복건성 여러 요장에도 파급되었다. 일본에는 이전부터 용천요 제품과 함께 주변 가마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계속 수입되었는데, 다인들이 좋아한 것은 반드시 고급품도 아니었으며 자연스러운 감각을 갖는 ‘코소메즈케(古染付)’나 ‘아카에(赤繪)’였다.¹⁹⁾

14) 『新安船 The Shinan Wreck』,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년.

15) 鄭良謨 「新安海底遺物の建盞天目」, 『特別展 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別冊, 茶道資料館, 1994年.

16) 栗建安, 「福建省の建窯系黑釉茶碗」, 『特別展 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 茶道資料館, 1994年.

17) 筒井絃一, 「茶法の移入とその展開—平安, 鎌倉時代を中心に—」, 위의 책.

18) 「侘数寄ト云ハ、一物モ不持者、胸ノ覚悟一ツ、作分一ツ、手柄一ツ、此三ヶ条調ル物ヲ云也」(田中博美藏刻 [武田家乙本]) 茶の湯懇話會 編, 「山上宗二記研究 二」, 三徳庵, 1994年.

19) 『古染付と祥瑞展 桃山文化と景德鎮の出会い』, 毎日新聞社, 1981年.

16세기부터 17세기를 걸쳐 복건성 남부에 분포하는 장주요(漳州窯)산²⁰⁾ ‘吳州手(고수테)’ 청화와 오체가 매우 인기있었으며 明代 자주요(磁州窯) 제품 등도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다인들의 기호를 생각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술한 코오치 향합도 그런 흐름 안으로 채용된 것 같다.

4. ‘안난(安南)’, ‘순코로크(宋胡錄)’, ‘한네라’, ‘난반(南蠻)’

동남아시아 도자기도 일본 차노유(茶湯)에 받아들여졌지만 그것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다. 또 명칭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

다기로 쓰이는 동남아시아 도자기의 호칭으로 ‘安南’, ‘宋胡錄’, ‘한네라’, ‘南蠻’ 이 대표적인 말이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근현대에는 ‘류큐(琉球=沖繩)南蠻’, ‘南蠻한네라’, ‘宋胡錄청자’ 란 말들도 있다.

‘안난’은 베트남의 호칭에 유래하는 것으로 베트남산 청화백자를 가리키는 것이 많지만 청화가 없는 것들도 있다. 다도구로서 전세된 안난 중에 명대 초기 청화 양식에 가까운 용문과 연관문이 있는 병이 있는데 15세기 베트남 북부 産이라고 생각되며, 17세기에는 이미 다도구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언제 일본에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안난 청화백자 안에 ‘시보리테(絞手)’라고 하는 타입이 있으며 청화안료인 코발트가 유약 속으로 번진 것이다. 이들은 16~17세기 경의 제품이며 자유분방한 느낌을 다인들이 좋아했다고 생각된다. 기타 ‘베니(紅)안난’이라고 하는 유상채(釉上彩) 백자다완 등도 전세되고 있다. 또 백토로 분장한 뒤 그 위에 투명유를 입힌 백자에 가까운 도기도 있으며, 에도(江戸)시대 17세기에 활약한 닌세이(仁清)라는 장인이 만든 뚜껑이 같이 있기도 한다. 이것도 언제 일본에 왔다 다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품 자체는 14세기 경의 것이다.²¹⁾ 유사한 작품 하나가 1633년에 운행한 무역선으로 일본에 운반된 예가 있어²²⁾ 다도구가 갖고 있는 골동품 취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宋胡錄’은 태국 시사차나라아이(Si Sacchanalai=사완카로오크Sawankalok의 옛 지명) 또는 수코오타이(Sukhothai)산 철화도기(鐵畫陶器)를 가리켜 사완카로오크가 태국에서 도자기를 의미하는 산가로오크(sangalok)로 전하다 다시 한자화해서 순코로크란 말로 전해져 왔다고 추정되고 있다. 宋胡錄에는 작은 합을 향합(香合)으로 한 예가 많은데 다완이나 미즈사시(水指)도 있다. 과일인 만고수친 형태의 합을 감(栴)에 빗대어 ‘카키 코오고오(栴香合)’라 부르며 즐겨 사용했다. 전세품의 많은 것들이 16~17세기 제품이라고 생각되며, 유행한 시기는 17세기 이후일 것이다.

‘한네라’는 대체로 태국 아유타야(Ayuttaya)부근에서 만든 토기를 가리키는데 일부 타 지역의 제품도 섞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네라에는 외반구연(外反口緣)에 둥근 몸체를 가진 호가 켄수이(建水)나 미즈사시(水指)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뚜껑만 다른 그릇과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토기 단지는 지금도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16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각지와 일본을 연결하는 항로에 있어서 해상생활 요구로 선적된 것 같다. 그 때문에 제작연대와 생산지를 엄밀히 규정지을 수 없지만 전세되는 한네라에는 16~17세기 것들이 많다고 추정된다.

‘한네라’란 말의 어의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반련(半練)’이란 한자로 표기된 예가 있지만 이것은 음에 가까운 문자를 들어맞게 선택한 것이다. 태국어에는 마을을 가리키는 ‘반’이란 말이 있고 옛날 일본어 표기법에 탁음기호가 없었기 때문에 한네라는 ‘반네라’라는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지명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20) 福建省博物館, 『漳州窯』, 福建省漳州地區明清窯址調查發掘報告之一, 福建人民出版社, 1997年

21) 도쿄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22)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난반(南蠻)’은 원래 중화사상에 따라 주변민족 지역을 멸시적으로 표현한 고대 한어중에 하나였지만 일본 어에서는 시대 및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 고문헌에는 현재 카고시마현(鹿兒島縣)에 속하는 아마미(奄美) 제도를 가리키는 예가 있고, 또 동남아시아 또는 인도를 포함하는 남방지역을 난반이라고 했을 것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일본에 대항한 16세기 중반 이후 이 나라들도 난반으로 인식되었다.²³⁾

그러나 다도구에서 난반은 대체로 동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산으로 추정된 물건들을 가리키며, 도자기로서 베트남産 도기나 토기를 중심으로 회유(灰釉)나 갈유(褐釉)를 시유한 것들도 포함한다. 다만 난반이라고 하는 도자기에는 생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으며 류큐난반(琉球南蠻)이란 말은 그런 사정에 따라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또 다회기(茶會記)에 ‘南蠻 이나 高麗’라는 기록도 있고 특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던 것도 추정할 수 있다. 금년에 고고학보고에서 가끔 보이는 ‘南蠻한네라’라는 용어도 동남아시아산 도자기의 생산지 추정에 있어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다도구로서 ‘南蠻物’라는 말은 1437년의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도자기가 아니라 금속기로 추정되고,²⁴⁾ 南蠻物 도자기가 문헌상에 나오는 것이 1542년이 처음이며 이것은 아마 베트남 無釉도기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南蠻物 도자기들은 그 이전부터 일본에 유입되어서 와비차 물품과 함께 차도구로 쓰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난반에 가까운 분류명칭으로 ‘시마모노(島物)’가 있다. 뜻은 ‘남방 섬들에서 온 것’이며 전세품중에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여러 지역 생산품들이 혼재하고 있다.²⁵⁾

5. ‘高麗(코오라이)’

옛날에는 일본에서 코오라이(高麗)라고 했을 때는 고구려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고려(高麗)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조선(朝鮮)시대를 포함하는 조선반도 전체를 대표하여 코오라이라고 했다. 다도구에 대해 ‘高麗’ 또 ‘高麗物’라고 할 때 반드시 고려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 혹은 그 산물을 의미한다. 도자기로서 ‘코오라이’는 고려시대 제품도 있지만 주체는 조선왕조의 도자기이다. 특히 발(대접) 혹은 다완으로 쓰여진 기물이 많으며 ‘코오라이다완(高麗茶碗)’이라고 총칭된다. 기타 병, 잔 등이 있지만 여기에는 다완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코오라이다완을 구성하는 도자기 종류를 보면 고려청자, 분청사기, 회청사기, 백자 그리고 에도(江戸)시대에 대마번(對馬藩)의 요청에 따라 부산요(釜山窯)에서 만든 ‘고혼(御本)’ 및 조선통신사 일행이 가져왔다고 하는 ‘한수(半使)’ 등이 있다. 그 많은 것들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생산품으로 보인다.

고려청자의 코오라이다완은 확실히 전세품으로 있으며, 이런 예로서 12~13세기 상감청자 혹은 14세기 청자 상감운학문대접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전래된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분청사기란 말이 도자사의 용어로 인식되기 이전에 일본에서 ‘미시마(三島)’라는 말을 통상 사용하였다. 이 말은 코오라이다완의 전통적인 명칭이며 근대 도자연구자들이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미시마는 학술용어도 아니고 그 개념이 분명하지도 않지만 대체로 상감기법의 분청사기 타입을 가리키는 것 같다. ‘미시마(三島)’라는 용어가 문헌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은 1565년이다.²⁶⁾ 그 기록이 있는 다회기에서 이 말은 주석도 설명

23) 清水實, 「文獻史料に見る‘南蠻’の語義と茶道具の‘南蠻’をめぐって」, 『平成14年秋季特別展 わび茶が傳えた名器 東南アジアの茶道具』, 茶道資料館, 2002年

24) 清水實, 위의 책; 赤沼多佳, 「傳世品に見る南蠻茶道具の様相」, 위의 책

25) 赤沼多佳, 위의 책; 西田宏子, 「南蠻, 島物—南海請來の茶陶—」, 『南蠻, 島物—南海請來の茶陶』, 根津美術館, 1993年.

26) 『天王寺屋會記』 속에 있는 [宗達他會記] 永祿8년6월22일 조에 ‘みしま茶碗’ 이 있다. 長島福太郎 교정, 『天王

도 없이 쓰였기 때문에 미시마는 茶湯界에서 당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였다고 생각된다.

상감 이외의 분청사기로는 ‘하케메(刷毛目=귀얄문)’, ‘무지하케메(無地刷毛目)’, ‘코히키(粉引)’가 있다. 무지하케메와 코히키는 모두 담금기법인데 기본적으로 무지하케메는 허리부터 아래까지 백토분장이 없는 것, 코히키는 전체에 백토분장한 것을 가리키는 명칭이지만 기형에 따라 전체에 분장이 있는 무지하케메도 있다. 회청사기에 속하는 코오라이다완으로 ‘柿노혜타’, ‘토토야’ 등이 있으며, 전자는 기물을 본 인상으로부터 명명된 명칭이고 감(柿) 열매의 꼭지와 비슷한 느낌이 있기 때문 이다. 후자의 유래는 잘 모른다. 傳承에 따라 토토타로 분류된 다완에는 백자로 판단되는 것도 있다.

백자에는 ‘카타테(堅手)’, ‘코모가이(熊川)’ 등이 있다. 카타테는 경질 타입을 의미하고, 코모가이는 경상남도 진해(鎭海)라는 지명에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웅천(熊川)의 의미를 ‘곰강’으로 설명받은 왜인(倭人) 또는 일본 상인을 통해 일본 다인들이 그렇게 발음하게 되어 온 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오라이다완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도(井戸)다완일 것이다. 이도다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있었지만 2001~2002년의 경상남도 진해시 웅천도요지 발굴조사결과로 적어도 생산지의 하나가 분명히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사는 일본 코오라이다완 연구에 몇 개의 시사하는 바 큰 가설들을 제시했다. 그 중에 첫째의 주요한 제언은 이도다완을 연결백자로 규정해 분청사기에서 백자에 이행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 연대를 1450~1500년경로 추정한 것이다. 셋째는 이 가마터에서 분청사기, 회청사기, 흑유자기 등이 공반생산되면서 이들이 융착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다.²⁷⁾

이도다완을 백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아직 일본에서는 다소 반론이 있다. 이 문제에는 백자(porcelain)는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관한 측면 및 근대적인 학술용어(nomenclature)와 전통문화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 자라난 감상적인 용어라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코오라이다완의 명칭은 일본인에게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엄밀히 정의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적 또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틀림없으며 도자사적인 위치를 생각하면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도다완의 생산연대에 대해 일본에서 15~16세기라고 막연한 추정이 있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 점으로 웅천도요지 연대설정은 앞으로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지만 하나의 가설적인 定點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하다. 이도다완이 문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578년인데 발굴조사자의 생산연대 추정보다 100년 정도 후이다. 다만 다도구의 유행 및 평가와 그 생산연대 사이에 자주 차이가 보이며²⁸⁾ 또 잔존기록의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동일한 요양내에서 다양한 도자가 번조되는 예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충청남도 공주시 학봉리 요지 경우 분청사기의 기법에도 상감(象嵌), 인화(印花), 조화(彫花), 귀얄, 철화(鐵畵) 분청사기 이외에 회청사기, 백자, 백자인화, 흑유자기 등도 번조되었다.²⁹⁾

웅천도요지 조사결과를 다시 그런 상황을 확인시킨 것인데 특히 말기적인 상감이나 귀얄 등의 분청사기와 이도(井戸)타입이 동반하는 것이 주목되며 또 ‘카키노혜타’와 유사한 파편도 발굴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이도타입과 함께 그런 것들이 같은 시기에 일본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 문헌상에 코오라이다완이 최초로 확인되는 것이 1506년이며,³⁰⁾ 이 ‘高麗茶碗’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15세기 후반 이후 코오라이다완 도자기 상당량이 일본에 건너왔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寺屋會記』, 茶道古典全集 第七卷, 淡交社, 1956年.

27) 鎭海市, 慶南發展研究院歷史文化센터 [鎭海熊川磁器窯址(1)-- 鎭海市 熊東面 頭洞里 熊川磁器窯址試掘調査略報告書--] 2001年; 同 [鎭海熊川陶窯址II] 2004年.

28) 徳川美術館・五島美術館, 『茶碗に花開く桃山時代の美 茶の湯 名碗』, 2002年; 同 『新たなる江戸の美意識』, 2005年

29) 國立中央博物館, 『鷄籠山陶磁器』, 2007年.

30) 谷晃, 『高麗茶碗概説』, 『高麗茶碗 論考と資料』, 高麗茶碗研究會責任編集, 河原書房, 2003年.

한편 코히키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요지가 확인된 유일한 종류의 코오라이다완이다. 그러나 이도 등 경상남도 산 코오라이다완들의 출항지에 대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코히키가 일본에 수입된 시기나 경로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도 없다.

지금 전라남도 보성군과 고흥군 운대리에서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므로 그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더욱 코히키에는 완(碗)의 형태이외에 병이나 기타 기형도 상당량 전하고 있다.

6. 주문생산과 ‘和物(와모노)’ 다완의 탄생

일본 다도구중에 일본에서 외국에 주문해서 만든 것들 혹은 아마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관여하면서 일본 대상으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다. 그들의 주요한 산지는 중국, 조선반도, 베트남이다. 몇 가지 그 예를 소개하겠다.

명말~청초 중국 경덕진에서 번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화백자로 ‘코소메쥬게(古染付)’라고 하는 일군이 있다. 아직 요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일본 다도구로 특히 다회(茶會)에서 요리 식기로서 즐겨 쓴 것이다. 그 안에 후지산(富士山)이나 일본풍속과 같은 명백히 일본의 모양, 문양을 표현한 기물이 있으며 제작과정에 일본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¹⁾

용천요 청자에도 일본적인 소품이 있으며 역시 일본으로부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코오라이다완중에 포함되는데 에도(江戸)시대에 대마번이 부산에서 가마를 만들고 조선왕조에 부탁하여 번조한 ‘고혼(御本)’은 주문생산의 대표적인 예이다.³²⁾ 그러나 그 이전에도 조선에 주문한 것들이 있었다고 보이고 ‘御所丸(고서마루)’, ‘伊羅保(이라보)’, ‘彫三島(호리미시마)’, ‘金海(킨카이)’도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된다.³³⁾ 모두 16세기 4/4분기부터 17세기 1/4분기의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임진왜란~정유재란 전후의 시기에 어떠한 경로로 발주(發注), 수주(受注)가 이뤄졌는지 명백히 알 수는 없다. 또 이라보 이외 가마터의 소재도 분명하지 않지만 역시 경상남도에서 만든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안난(安南)’ 다완중에는 의도적으로 구연(口緣)을 삼각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가 베트남에서 자연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며, 일본인의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³⁴⁾

‘난반(南蠻)’에도 의도적인 비틀림이나 불룩함을 더하여 만든 예가 있는데, 이 역시 일본에서 현지에서 주문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³⁵⁾ 이것들도 16~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발주수주 문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조선반도와 베트남에 모두 일본인들이 항상적에 거주했었던 사실이 있고, 공적 통행, 대규모 통상 이외에도 여러 형태와 규모로 교섭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기타 ‘和蘭(오란다)’ 혹은 ‘阿蘭陀(오란다)’라고 하는 델프트도기(Delft陶器) 등 서양도기도 다도구로 쓰였는데, 이것들 중에는 일본 다인의 취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예가 있다.³⁶⁾

이상과 같이 일본 다도구에 있어서 카라모노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조선반도, 유럽에 이르는 세계각지에

31) 『古染付と祥瑞—日本人の愛した〈青〉の茶陶』, 出光美術館, 2013年.

32) 泉澄一, 『釜山窯の史的硏究』 1986年; 『平成四年秋季特別展 高麗茶碗 御本とその周邊』, 茶道資料館, 1992年

33) 赤沼多佳, 『茶の湯と高麗茶碗』, 『開館10周年記念秋季特別展 高麗茶碗』, 茶道資料館, 1989年.

34) 주23 茶道資料館 문헌; 주25 根津美術館 문헌; 『南蠻貿易と陶磁器』, 第32回 日本貿易陶磁硏究集會 大分大會 資料集, 日本貿易陶磁硏究集會, 大分市教育委員會, 2011年.

35) 『肥後松井家の名品 武家と茶』, 茶道資料館, 2011年.

36) 西田宏子, 『阿蘭陀—日本傳世のオランダ陶器』, 『エドウィン・ファン・ドレヘト・コレクション オランダ陶器 響きあう東と西』, 朝日新聞社, 1995年.

서 수입해서 선택한 도자가 쓰여 왔으며, 물론 ‘和物(와모노)’라고 하는 일본산 다도구도 어느 단계부터는 등장했다. 앞에서 기술한 『山上宗二記』에는 ‘다완으로서 대체로 카라(唐)다완은 유행하지 않으며 요즘에는 코오라이 다완, 이마야키(今焼)다완, 세토(瀬戸)다완들이 중심이다’고 했다.³⁷⁾ 이 기록은 1586년 경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와비차(侘茶)에는 카라모노 지향이 쇠퇴해서 이미 코오라이다완이나 와모노다완이 주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치현 세토요(愛知縣 瀬戸窯)에는 13~14세기 경부터 카라모노의 모방이 시작되어 초기적인 와모노 다도구를 번조했지만 오카야마현 비젠요(岡山縣 備前窯), 시가현 시가라키요(滋賀縣 信樂窯), 사가현 카라츠요(佐賀縣 唐津窯) 등의 제품이 다도구로 쓰였던 시기는 아마 16세기 이후라고 생각된다. 가고시마현 사즈마요(鹿児島縣 薩摩窯)나 야마구치현 하기요(山口縣 萩窯) 등이 발흥한 것은 임진왜란~정유재란에 의하여 조선 장인들을 데려온 이후이고 위의 여러 가마가 다도구를 번조한 시기는 17세기부터이다.

기타 주요 참고문헌

- 東京國立博物館 編集發行, 『特別展圖錄 茶の美術』, 1984年.
- 林屋晴三責任編集, 『愛藏版 高麗茶碗』 第一~第五卷, 中央公論社, 1991~92年.
- 五島美術館, 『山上宗二記 天正十四年の目』, 1995年.
- 『茶陶の創成 唐物から和物へ』, 茶の湯のやきもの 茶陶の美1, 淡交社, 2004年.
- 『和物と海外陶磁 裝飾化と多様化』, 茶の湯のやきもの 茶陶の美3, 淡交社, 2004年.
- 根津美術館, 『戦國武將が憧れたうつわ-井戸茶碗』, 2013年.

37) 『惣別茶碗之事唐茶碗ハ捨リタル也、当世ハ高麗茶碗 今焼茶碗・瀬戸茶碗以下迄』 주18 문헌

주제발표 4

唐宋의 茶文化和 茶器

서은미(부산대 중국연구소 연구원)

1. 서론

2. 당송의 차문화

남겨진 기록을 따라 본 차문화의 시작

북중국 사람들에게 낯설었던 차 : 낙노(酪奴), 수액(水厄)

남북통일과 운하의 힘

스님, 도사님, 뭐 드세요?

배와 수레에 산처럼 쌓인 차

훼손론(毀茶論)도 쓴 육우(陸羽) : 육우(陸羽)와 상백웅(常伯熊)

개봉(開封)과 항주(杭州)의 화려하고 다양한 찻집

개문칠건사(開門七件事)의 하나

리떼아트와 같았던 차 거품내기

3. 가루차시대의 다기

기술력의 힘

차 마시는 방법의 변천

가루차를 마실 때 필요한 다기

4. 송대 차와 산업의 발전

차의 생산량과 종류

다구 수요의 급증과 차 산업의 발달

5. 결론을 대신하여 : 『사조선록(使朝鮮錄)』을 통해 본 고려의 차 문화

1. 서론

중국 최초의 다서(茶書)인 『다경(茶經)』의 첫 구절은 ‘남방지가목야(南方之嘉木也)’로 시작된다. ‘차는 남쪽 지역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나무’라는 차에 대한 평가는 평생을 바쳐 몰두했던 대상인 차에 대한 육우(陸羽)의 아낌없는 찬사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나무의 잎은 중국인들에게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송대에 이르던 ‘개문칠건사(開門七件事)’,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중국인에게도 차가 처음부터 보편적인 음료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8세기에 이르러 차가 중국인의 보편적인 음료가 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편중된 일부지역의 문화로 남아 있었다. 즉 고대 중국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황하 중하류지역인 중원(中原)에서 보면 차라는 음료는 남쪽지역의 것으로 이질적인 것이었다. 가장 기본적으로 차의 재배와 생산이 발전하기를 기다려야 했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통일과 안정의 시기도 필요하였으며, 남쪽의 음료로 저평가된 인식도 개선되어야 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 중기에 이르러 이루어져 차를 마시는 풍속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었고, 송대 이르면 생활 필수품의 자리에 오를 정도가 되었다. 차를 마시는 풍속은 더욱 확대되어 국경을 넘어 주변민족에게도 전해졌다. 이러한 소비는 송대 신종연간(1068~1085)에 이르면 공식적인 차마무역(茶馬貿易)이 성립될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중국에서 차를 마시는 풍속이 보급되고 보편화되는 시점은 시대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 격변이 이루어지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사대부’라고 불리게 되는 독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하던 시기였고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기반으로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면서 서민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였다. 양세법(兩稅法)의 시행에 따라 세제가 전납화(錢納化)되면서 도자기가 일상실용기로 등장하던 때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차는 역사적으로 당송변혁기(唐宋變革期)라고 부르는 시기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고려의 차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차문화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2. 당송의 차문화

1) 남겨진 기록을 따라 본 차문화의 시작

차에 관련된 최초의 문헌적 기록은 사천지역에 대한 것이다. 기원전 1,000년경 상주(商周) 교체기에 주의 통치에 순응하여 파촉에서 주 무왕에게 지역특산물을 바쳤는데 여기에 차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4세기 동진(東晉)시대 기록인 『화양국지(華陽國志)』에 실려 있지만 사천지역이 차의 생산과 문화의 요람이라는 것은 부동의 역사적 사실이다.

사천지역의 제한된 차 문화가 지역 밖으로 전파된 시점에 대해, 청대의 고증학자 고염무(顧炎武)는 『일지록(日知錄)』 권7 「도(茶)」에서 ‘진나라가 촉 지역을 병합하고 난 이후 비로소 차 마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였다.¹⁾ 오랫동안 차를 마시는 풍속이 파촉(巴蜀)지역에 제한되어 있다가 진나라에 의해 파촉지역이 병합되면서 점차 그 풍속이 외부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기원전 316년 진의 혜문왕(惠文王)이 전국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략상 파촉을 먼저 병합하려는 전략을 세워 군사를 파견해 파촉을 취하였다. 이후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에 의해 중국 전역이 통일되었는데 이러한 진의 통일 과정을 통해 차를 마시는 풍속도 파촉지역을 벗어나 중원으로, 양자강 중하류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이해한 것이고 이러한 흐름의 이해는 다른 문헌과도 일맥상통한다.

기원전 3세기 말경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 만들어진 자서(字書)인 『이아(爾雅)』에 “가(檟)는 고도(苦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4세기 전반기 곽박(郭璞)의 주석에 따르면, “나무 모양은 치자나무 같고 겨울에 잎이 자란다. 끓여서 국을 만들어 마신다(可煮作羹飲). 지금 사람들은 일찍 따 찻잎을 도(茶)라고 한다. 늦게 채취한 찻잎을 명(茗)이라고 하고 일명 천(荈)이라고도 한다. 촉지역 사람들은 고도(苦荼)라고 부른다”고 하였다.²⁾ 이로써 지금의 사천지역에서 차는 고도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끓여서 국처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日知錄』卷7 茶, “自秦人取蜀而後 始有茗飲之事.”

2) 『爾雅』, “檟 苦荼.” 郭璞註, “樹小如梔子 冬生葉 可煮作羹飲 今呼早採者爲茶 晚取者爲茗 一名荈 蜀人名之苦荼.”

이와 같이 차잎을 끓여서 국처럼 만들어 마신 ‘갱음(羹飮)’이 차를 마신 최초의 형태라고 하겠다. 먹는 것에서 바로 마시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개연성을 갖기 어려운 것처럼 ‘갱음’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독자적인 음료의 영역을 확보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차 마시기가 일찍이 독립적인 음료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한나라 때의 기록인 『동약(僮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약』은 기원전 59년에 작성된 노비계약문서인데³⁾ 노비가 해야 할 일들이 기재되어 있는 흥미로운 기록으로, 노비가 매일 해야 할 일과 달별로 계절에 맞춰 해야 할 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차와 관련된 것으로 2월에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무양에 가서 차를 구입하는(武陽買茶)’ 일과 매일 해야 할 일 가운데 ‘차를 끓이고 도구를 갖추어 놓는(烹茶盡具)’ 일이 있었다. 이는 서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천지역 내에서는 차 생산지를 중심으로 차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차를 마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기록이다.

요컨대 오랫동안 차 마시기는 사천 등 서남지역에 제한되어 있다가 진의 통일시기를 맞아 지역 밖으로 보급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일부 소수 지식인들과 양자강을 따라 차의 자연 생장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보급이라는 제한된 범위였다.

2) 북중국 사람들에게겐 낯설었던 차 : 낙노(酪奴), 수액(水厄)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남지역에서 양자강을 따라 동쪽으로 차의 생산과 차 마시기가 전파되는 것은 순조로웠지만 회수(淮水)를 넘어선 북쪽 지역에서는 여건이 달랐다. 영토가 넓은 만큼이나 지역의 문화 차이는 커다란 것이었다. ‘굴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자연환경이 다른 만큼이나 회수를 경계로 한 중국의 남과 북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회수를 경계로 북중국에도 차가 일찍이 소개되었지만 남중국에서처럼 쉽게 성행하지는 못하였다. 각기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익숙한 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게다가 북조의 통치 집단인 선비족 등이 중국의 남방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은 동진시대까지 황하유역에 조금씩 전해지던 차 문화가 꾸준히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북중국에서는 차를 ‘낙노(酪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남쪽에서 전해진 음료에 대해 경시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차를 낙노라고 부르게 된 것은 북위(北魏)의 효문제(471~499)와 왕숙(王肅 464~501)과의 일화에서 기인하였다. 그 일화는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자세히 남아 있다.

왕숙은 산둥 낭야(琅琊) 출신이라는 호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남에서 태어나 남경(南京)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가 남조의 제(齊 479~502)나라에서 웅주자사(雍州刺史 지금의 湖北省 襄樊)를 지냈고 왕숙도 비서승(秘書丞)까지 올랐으나, 아버지가 까닭없이 화를 당한데 대한 원한으로 494년 그는 제나라를 등지고 북위로 귀순하였다.

왕숙은 강남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므로 당연히 남방의 풍속이 몸에 익어있었다. 왕숙이 처음 북위에 왔을 때 그는 양고기와 낙장(酪漿 유제품 음료) 등 북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고 생선요리와 차 등 남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만을 먹었다. 그는 차를 한번 마실 때 마다 한말이나 마셨으므로 사람들은 그에게 ‘밀빠진 잔(누치漏卮)’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⁴⁾

몇년 지나 그가 궁중에서 효문제가 베푼 연회에 참석했을 때는 양고기와 낙장을 잘 즐겼다. 이에 효문제가 “어찌 양고기가 생선죽만 하지 못하고 차가 낙장만 하지 못하겠는가” 하며 음식을 화두로 삼았고 이때 왕숙이

3) 王褒의 『僮約』은 실제 노비계약문서가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노비를 길들이기 위한 꾀로 계약문서를 작성하며 잘못을 깨닫게 한 경험을 기록한 수필기록이다.

4) 『洛陽伽藍記』卷3, “肅初入國 不食羊肉及酪漿等物 常飯鯽魚羹 渴飲茗汁 京師士子見肅一飲一斗 號為漏卮.”

화답하여 “양고기는 육지에서 나는 진미이고 생선은 물에서 나는 진미이니 각기 기호가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자면 양고기는 제(齊)와 노(魯)나라 같은 대국이고 생선은 주(楚)와 거(莒)나라 같은 소국입니다. 단지 차는 낙장에 대적하지 못하니 종(奴)이 됩니다”라고 효문제의 기분을 돋우었다.⁵⁾ 연회에 참석했던 쑹성왕(彭城王) 협(勰)이 왕숙에게 “당신은 제와 노나라 같은 대국은 중시하지 않고 주거와 같은 소국을 아끼는구려”하니 왕숙이 “시골구석의 아름다운 바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소”라고 대답하였다. 협이 거듭 왕숙에게 말하기를 “내일 당신이 나를 방문해주면 주거의 음식으로 대접하려하는데 낙노도 준비하겠소”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화에 기인하여 이후 차를 낙노라고 부르게 되었다.⁶⁾

낙노 이외에도 차에 대한 별칭으로 수액(水厄)이라는 말이 있었다. 『낙양가람기』에는 앞의 이야기에 이어 쑹성왕 협이 북중국 관리들이 차 마시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차를 수액이라고 지칭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즉 쑹성왕 협은 당시 급사중이던 유호(劉縡)가 왕숙의 풍류를 사모하며 차를 좋아하자 그를 비난하며 “자네가 수액(水厄)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세상에 더러움을 쫓는 남자가 있고 정그리는 것을 배우려는 아낙네가 있다는 말이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이네”라고 하였다. 당시 각종 연회가 열리면 차를 준비해두었는데 사람들이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남중국에서 북중국으로 귀순한 사람들뿐이었다고 하니⁷⁾ 여전히 북중국 사람들에게 차는 익숙한 음료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북중국에서는 차를 즐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차를 수액이라고 불렀다. 그 단어의 유래는 차를 즐겨 마셨던 청담사상가 동진(東晉)사람 왕몽(王蒙)의 일화에서 기인하였다. 왕몽은 손님이 오면 반드시 차로 대접하였는데 한번에 마시는 양이 지나쳐 마시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고역으로 여겼고 왕몽의 집에 갈 일이 생기면 “오늘 수액(水厄) 물난리)이 있겠구나”라고 말하곤 할 정도였다.⁸⁾ 이후 수액이라는 말은 차의 별칭으로 남중국에서 재미삼아 사용되곤 하였다.

남조 양(梁 502~557)나라 무제(武帝 502~549)의 아들 소정덕(蕭正德)이 북조의 위나라에 투항하였을 때 원의(元義)가 차를 준비하려고 소정덕에게 “수액은 얼마나 하시오?”하고 물었는데 이는 차를 얼마나 마시느냐는 질문이었다. 이때 소정덕은 수액을 그대로 수재(水災)로 받아들이고 “나는 물의 고향에서 태어나 입신 이래 물난리를 겪어본 적이 없소”라고 대답해 좌중이 모두 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⁹⁾ 수액이란 단어는 남중국에서 장난말로 쓰이고 있었지만 이를 북중국에서 사용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북중국에서 차를 수액이라고 할 때에는 차를 마시는 것이 고역이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들이 즐기는 유제품 음료인 낙장이 차보다 유익한 음료라는 비유의 의미가 보태어졌다.

이와 같이 차를 낙노라고 부르고 혹은 수액이라고 불렀던 북중국 사람들에게겐 ‘낙장과 같이 좋은 음료가 있는데 왜 차를 마시느냐’하는 의식이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부서지고 중국인들 모두가 차에 열광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많은 시간과 함께 새로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5) 『洛陽伽藍記』卷3, “經數年以後 肅與高祖殿會 食羊肉酪粥甚多 高祖怪之 謂肅曰 卿中國之味也 羊肉何如魚羹 若飲何如酪漿 肅對曰 羊者是陸產之最 魚者乃水族之長 所好不同 竝各稱珍 以味言之 甚是優劣 羊比齊魯大邦 魚比荊葛小國 唯若不中與酪作奴 高祖大笑。”

6) 『洛陽伽藍記』卷3, “彭城王謂肅曰 卿不重齊魯大邦 而愛荊葛小國 肅對曰 鄉曲所美 不得不好 彭城王重謂曰 卿明日願我為卿設荊葛之食 亦有酪奴 因此 復號若飲為酪奴。”

7) 『洛陽伽藍記』卷3, “時給事中劉縡 慕肅之風 專習若飲 彭城王謂縡曰 卿不慕王侯八珍 好蒼頭水厄 海上有逐臭之夫 里內有學顰之婦 以卿言之 即是也 其彭城王家有吳奴 以此言戲之 自是朝貴譙會 雖設若飲皆耻不復食 惟江表殘民遠來降者 好之。”

8) 晉 司徒長史王濛好飲茶 人至輒命飲之 士大夫皆患之 每欲往候 必云今日有水厄。

9) 『洛陽伽藍記』卷3, “蕭正德歸降時 元義欲為之設若 先問卿於水厄多少 正德不曉元義意答曰 下官生於水鄉 而立身以來 未遭陽侯之難 元義與舉坐之客皆笑焉。”

3) 남북통일과 운하의 힘

회수유역을 경계로 차에 대한 남중국과 북중국의 인식 차이는 비단 북중국이 차 생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만은 아니었다. 고대제국인 한나라가 붕괴된 이후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오랜 분열의 시기를 겪으면서 남과 북의 양 지역은 더욱 상이한 사회상을 가지게 되었다. 북중국은 흉노, 선비 등 북방 유목민족이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통치권을 장악하였으므로 군사적 정치적 긴장감이 유지되었고 황제권을 중심으로 정치체제가 점차 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족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서역의 이국적인 문화를 받아들여 참신하면서 소박한 문화를 형성하였고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다.

남중국은 북쪽의 전란을 피해 내려간 북중국의 귀족세력들이 강남의 지방세력과 교묘히 결속되어 풍부한 강남의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귀족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들은 우아하면서 화려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북중국 사람들은 남중국의 문화가 현란하게 치장되어 있을 뿐 패기가 빠져 기풍이 느껴지지 않고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남중국 사람들은 북중국의 문화가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 마치 '나귀 우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 같다고 하였다. 이렇듯 서로의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까닭은 각자의 자긍심에서 기인하였던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던 정치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군사적 정치적 대치상황은 양견(楊堅)이 수(隋 581~618)를 세우고 589년 전국 통일을 이룩하여 300여년의 긴 분열시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 정복만으로 통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남북을 잇는 운하의 개통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하의 건설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결과적으로 수나라를 단명왕조로 몰고 가고 수 문체와 양제를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으로 낙인찍히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대운하의 건설은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동원될 정도로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을 강요했고 운하건설지역 주변을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기존에 있었던 도시가 운하의 건설로 사라지는가 하면 운하주변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던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결과를 만들려는 노력은 결국 성과에 따른 혜택보다는 피폐함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수나라는 2대 황제를 끝으로 왕조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당시 확립된 운하는 이후 중국 남북의 교류에 있어서 대동맥 역할을 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황하와 회수를 잇는 통제거(通濟渠), 회수와 양자강을 연결하는 한구(邢溝), 그리고 황하와 탁군(涿郡 현재의 北京)을 잇는 영제거(永濟渠), 양자강에서 항주로 연결되는 강남하(江南河)가 개통되었다. 중국의 남과 북이 수로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강남의 풍부한 물자가 운하를 통해 북중국으로 보다 쉽게 운반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두 지역이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점차 전반적인 사회 융합이 진행되었다.

운하로 남과 북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상호 문화가 융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차도 점차 북중국 사람들에게 호감있게 알려지면서 차 마시기가 다시 북중국의 문화에 스며들었다. 남에서 북으로 보급된 차 문화는 남북조의 분열기를 마감하고 수당으로 이어지는 통일왕조에 있어서 지역문화의 보급과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4) 스님, 도사님, 뭐 드세요?

먹어 보지 못한 음식을 맛보게 되는 데는 무언가 강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선진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모방의 욕구를 갖게 한다면, 혹은 다른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거나 건강에 좋다면 가 하는 등등. 멀리서 운반해 와 진열대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낯선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차를 '낙노'라고 부르던 북중국 사람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자극이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봉씨문견기』에 의미있는 기록이 있다.

남중국인들은 차 마시기를 좋아하였지만 북중국인들은 처음에 차를 많이 마시지 않았다. 개원연간(開元 713~741)에 태산 영암사에 향마사가 있었는데 선종을 크게 일으키고 선을 가르쳤다. 잠을 자지 않았으며 또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차를 마시는 것은 허락했다. 사람들이 품에 끼고 도처에서 차를 끓여 마셨다. 이때부터 효험이 알려졌고 드디어 풍속을 이루었다.¹⁰⁾

차를 많이 마시지 않던 북중인들이 차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시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던 원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선종 승려와 도교 도사들의 활동이 있었다. 위 『봉씨문견기』의 기록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반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선승들의 활동과 생활은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섭취하는 음식물은 보잘 것 없었으며 나아가 저녁 식사는 하지도 않았다. 낮에도 활동이 적지 않은데 밤에는 잠자지 않고 수련에 임하면서 졸지도 않는 모습에서 그들만의 비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한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선승들이 즐겨 마시는 차가 새롭게 보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남중국인들이 마시는 유제품 음료보다 못한 낙노가 아니라 이제 정신도 몸도 열심히 수련하는 승려가 마시는 효험이 좋은 음료로서 차를 인식하게 되면서 차의 효능에 대한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던 것이다. 이제는 북중국 사람들도 차를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차가 운하를 따라 배에 가득 실려 오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원연간(開元 713~741)에는 차와 관련된 종교인의 활동 기록으로 도인인 왕천사(王天師)의 일화가 있다. 왕천사는 도의 경지가 높은 인물로 당 현종에 의해 천사에 봉해진 인물이었다. 그가 행자 생활을 할 때의 일로, 그는 뜻한 바가 있어 큰 산에서 차 200여개를 떼어서 경사로 들어왔다. 매번 다기를 휴대하고 성문 안에서 차를 배풀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당시 환관이었던 고력사가 보고 경사에 온 까닭을 묻게 되었다. 당시 왕천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남악의 행자입니다. 지금은 구진관에 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특별히 차를 가지고 와서 시주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현종을 알현하게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고 구진관의 건물도 수건하였다. 그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그의 명성이 높아졌고 이에 천사에 봉해졌다고 한다.¹¹⁾

이와 같이 선승이나 도사들이 차를 즐겨 마시며 그들에 의해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차의 이미지가 북중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되었다.

5) 배와 수레에 산처럼 쌓인 차

운하가 개통된 이후 남방에서 시작된 차 마시기는 빠른 속도로 북방으로 보급되었다. 나아가 8세기에 이르러 북방에서도 차는 매우 익숙한 음료로 자리 잡게 된다. 봉연(封演)의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에 보면 “산동과 하북(鄒, 齊, 棣는 산동이고 滄은 하북)으로부터 점차 낙양과 장안에 이르기까지 각 도시에는 많은 점포가 개설되어 차를 끓여 팔았다. 종교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돈을 내고 차를 사서 마셨다. 차는 양자강과 회수로부터 올라오는데 배와 수레가 잇달아 가는 곳마다 산처럼 쌓였으며 종류와 수량도 매우 많았다”라고¹²⁾ 하여 북중국에서도 차가 유행하였고 거리의 찻집에서 차를 사마시는 생활이 일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량의

10) 封演, 『封氏聞見記』卷6, “南人好飲之 北人初不多飲 開元中 泰山靈巖寺 有降魔師 大興禪教 學禪 務於不寐 又不夕食 皆許其飲茶 人自懷挾 到處煮飲 從此轉相倣效 遂成風俗.”

11) 李冲昭 『南嶽小錄』九真觀, “唐開元年中 有王天師 仙喬 初天師為行者 道性冲昭 有非常之志 因將嶽中茶二百餘串 直入京國 每携茶器 於城門內 施茶 忽一日遇高力士見而異之 問其所來 乃曰某是南嶽行者 今為本住九真觀 殿宇破落 特將茶來 募施主耳 於是力士上聞 玄宗召見嘉歎之 問曰爾有願否 對曰願鬱鬱家國盛 濟濟經道興 上深加禮焉俾於內殿披度 厚與金帛建置 令歸嶽中修剎觀宇 不數年而完全道行 逾高聲流上國 尋有詔命封為天師 乾元二年三月三十日得道.”

12) 封演, 『封氏聞見記』卷6, “自鄒齊棣漸 至京邑城市 多開店鋪 煎茶賣之 不問道俗 投錢取飲 其茶自江淮而來 舟車相繼 所在山積 色額甚多.”

차가 운하를 통해 공급되었으므로 차를 마시는 풍속도 운하를 따라 올라와 전해졌으므로 '산동과 하북의 각 도시로부터 낙양과 장안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을 하였을 것이다. 이제 차는 더 이상 남방의 음료가 아니고 중국의 음료로의 자리를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8세기의 흐름을 양엽(楊擘)의 『선부경수록(膳夫經手錄)』에서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옛날에는 차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근래 (남조의) 진(晉)과 송(宋) 이후 오(吳)지역 사람들이 차잎을 채취해서 달여 마셨다. 이것을茗粥(茗粥)이라 한다. 개원(開元 713~741)과 천보(天寶 742~756)연간 조금씩 차가 보이더니, 지덕(至德 756~757)과 대력(大曆 766~779)연간에 많아졌고 건중(建中 780~783)이후에 성행하였다.¹³⁾

위의 글에 의하면, 황하유역의 북중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은 낯선 것이었으나 남중국에서는 동진과 송 이후 오(吳)지역 사람들이 차를 즐기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북쪽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8세기 전반기에 북중국에서도 차를 마시기 시작하더니 중반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셔 성행하였다고 하였다. 결국 거리마다 찻집이 즐비하며 사람들이 떠나할 것 없이 차를 사 마시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증가하는 차 수요에 따라 장강과 회수의 차 집산지를 통해 남방의 차가 배와 수레로 끊임없이 운송되었다. 수량도 많았고 종류도 다양하였던 것이 당연하였다.

6) 韋(韋)다론(毀茶論)도 쓴 육우(陸羽) : 육우(陸羽)와 상백웅(常伯熊)

육우(733~804)가 「다경(茶經)」을 저술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그가 『韋(韋)다론(毀茶論)』도 지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韋(韋)다론」의 내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차 문화를 이해하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것이다.

생존 당시부터 다선(茶仙), 다성(茶聖)으로 칭송받았던 육우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차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있고 다신(茶神)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가 쓴 「다경」 역시 '차의 경전'이라고 불리며 현재까지도 차와 다도의 이해를 위한 필독서로 통하고 있다. 또한 가장 오래된 다서라는 명성과 함께 가장 우수한 다서라는 평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육우의 활동과 다경의 성립은 중국 차 문화 발전의 커다란 획기였다. 즉 당 중기는 불교신앙을 타고 차를 마시는 풍습이 회수(淮水)를 넘어 북쪽까지 확대 보급된 때로 차를 마시는 문화의 성숙기를 맞이한 시기였고 차를 마시는 방법도 규범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때였다. 이때 육우가 차의 전문서적인 「다경」을 지어 차에 대한 일반 지식을 소개하고 차를 끓여 마시는 방법의 모범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당나라 시대 문인과 관료들 사이에서 차를 마실 때의 형식이 규정되어 나갔고 사원다례(寺院茶禮)와는 다른 민간다례(民間茶禮)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즉 육우는 차를 대중적인 음료로, 또한 종합문화로써 완성시킨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육우가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도는 문인관료들의 후원과 차 활동에 있었다. 이제물(李齊物)과 안진경(顏真卿) 등의 후원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문인이나 관료들과의 교류가 항상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韋(韋)다론』의 저술 배경이 되는 이계경(李季卿)과의 고사가 그 대표적인 일화일 것이다. 육우와 이계경의 얽힌 이야기는 봉연(封演)의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계경과의 일화에 앞서서 당시 육우와 상백웅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당시 육우의 「다경」은 전국의 호사가들이 집에 한부씩 소장할 정도로 유명하였는데 이를 틈타 상백웅이라는 사람이 육우의 것을 빌어 더 꾸미고 덧붙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다도(茶道)가 크게 유행하

13) 『膳夫經手錄』, “茶古不聞食之 近晉宋以降 吳人採其葉煮 是爲茗粥 至開元天寶之間 秒秒有茶 至德大曆 遂多 建中已後盛矣.”

였고 왕공과 조정의 관료에서부터 선비에 이르기까지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¹⁴⁾ 아류인 자가 활동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예법에 따라 차를 마시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 8세기 중국 사회의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차 문화가 개화한 시기에 명성을 누리고 있던 육우가 『훼다론』을 집필하게 된 경위는 이제경(李季卿)과의 만남에 있었다. 어사대부 이제경이 강남에 선위사(宣慰使)로 내려왔을 때 그는 이르는 곳에 명망있는 예능인들을 청하곤 하였다. 회수지역에 이르렀을 때 상백웅(常伯熊)이 차를 잘한다고 듣고 그를 청하여 시연케 하였는데, 상백웅은 황색 모시옷을 휘날리며 조사모(鳥紗帽)를 쓰고 와서 손에 다기를 들고 입으로 차 이름을 통송하며 시연하였다고 한다. 양자강 가에 이르러서는 육우를 청해 시연하게 하였는데 육우는 야복(野服)을 입고 들어와 잠시 앉았다가 상백웅과 다름없이 시연을 마쳤고 이제경이 노복에게 명하여 전다박사(煎茶博士)의 보수로 육우에게 30문을 주었다. 이때 『봉씨문견기』에는 이제경이 육우를 낮추어 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⁵⁾

그래서일까 육우는 이 일을 크게 수처스럽게 여겼고 돌아와 『훼다론(毀茶論)』을 지었다. 『훼다론』은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육우가 사람들이 차의 검소하고 정신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화려하고 꾸미는 것에 현혹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7) 개봉(開封)과 항주(杭州)의 화려하고 다양한 차집

당 중기에 차가 중국인들의 보편적인 음료로 보급되었다면 송대는 한걸음 나아가 필수품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후술하는 송대 차의 생산과 종류를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송대 도시 생활을 통해 차의 일상화를 살펴보자.

개봉의 도시 생활에서 차집을 드나드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였다. 차를 마실수 있는 곳은 노점에서 호화스런 치장을 한 차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개봉부의 구조문가(舊曹門街) 북쪽에 위치해 있던 '산자다방'은 그 내부에 신선동굴과 신선다리가 있는 호사스런 치장을 한 차집이었다. 양가집 규수들도 저녁에 산책삼아 나와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가곤하였다니 차집을 찾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기도 하였다.

양가집 규수들까지도 다방을 드나들었다고 해서 다방 출입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원씨세범(袁氏世範)』을 보면 “시정 거리에 있는 다방과 주점은 모두 소인잡배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여 그곳에 드나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박스럽고 후회하는 일들과 취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다방이나 술집의 출입 자체를 금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정도를 지나치게 즐기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독서인층의 신분의식을 강조한 입장이기도 하였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더라도 차집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셨다는 것은 이들도 인정하는 사회현상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차통이나 수레를 끌고 차를 파는 노점이 있었는데 거리 점포에 상점을 열고 차를 파는 곳도 즐비하였다. 그런 만큼 판매 경쟁도 불이 붙었고 손님을 끌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차 맛뿐만 아니라 차집의 분위기는 손님을 끄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차집들은 벽에 그림을 걸거나 눈에 띄는 집기를 사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14) 封演, 『封氏聞見記』 卷6 「飲茶」, 楚人陸鴻漸為茶論 說茶之功效并煎茶炙茶之法造茶具二十四事以都統籠貯之 遠近傾慕好事者 家藏一副 有常伯熊者 又因鴻漸之論 廣潤色之 於是茶道大行 王公朝士無不飲者.

15) 封演, 『封氏聞見記』 卷6 「飲茶」, 御史大夫李季卿宣慰江南 至臨淮縣館 或言伯熊善茶者 李公請為之伯熊著黃衫烏紗帽 手執茶器 口通茶名區分指點左右刮目 茶熟 李公為歡兩杯而止 既到江外 又言鴻漸能茶者 李公復請為之鴻漸身衣野服隨茶具而入 既坐教攤如伯熊故事李公心鄙之 茶畢 命奴子取錢三十文 酬煎茶博士……及此羞愧 復著毀茶論.

개봉 거리에 유명한 찻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왕명청(王明清)이 지은 『척청잡설(擘靑雜說)』에 남아 있다. 이 찻집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고상하고 청결한 분위기가 일품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그릇과 의자 탁자가 모두 가지런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차가 잘 팔렸다고 한다. 게다가 이집 주인은 손님들이 두고 간 물건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돌려주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몇 해가 지나고 찾으러 가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 찻집 주인은 유실물에 ‘모년 모월 모일 어떠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두고 간 것’이라고 꼬리표를 달아놓았는데, 유실물은 우산, 신발, 의복, 그릇 등 다양하였고 심지어 돈주머니까지도 있었다. 손님들의 인상착의로는 ‘관인인듯한 사람’, ‘승려인듯한 사람’, ‘부인’, ‘상인인듯한 사람’ 등등 외모로 판단한 인상착의로 그 사람의 신분을 적어 넣었다. 외모로 알 수 없는 경우는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적어 넣었다니 가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찻집을 드나들었는가 알 수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찻집은 작은 찻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50여명이라고 하니, 당시 개봉 거리에 있던 주점이나 찻집의 규모를 상상해 볼 수 있겠다.

항주는 송나라가 여진족에게 하북지역을 빼앗기고 개봉에서 쫓겨나 회수를 경계로 남쪽 지역만을 통치했던 때의 수도였다. 송나라는 북방 회복을 국시로 삼았으므로 항주를 정식 수도라고 부르지 않고 임시 수도라는 의미에서 행재(行在)라고 하였다. 국토의 절반을 상실한 암울한 시대이기도 하였지만 상업의 발달에 따른 경제의 부흥은 지속되어 도시는 한층 소비적이고 활발하였다.

이때 이르면 그간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던 찻집은 좀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찻집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많은 찻집들이 영업 경쟁하는 가운데 각 찻집의 분위기와 고객 성향에 따라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영업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겨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각 찻집에 특별히 출입을 제약하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연스레 소비자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선택되었다.

『몽량록(夢梁錄)』에는 항주 거리에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한 찻집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야시장이 열리면 큰길에 서서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노점 찻집이 여전히 성업을 이루었던 반면 대범다루(大凡茶樓)라는 찻집은 고급 손님들을 주로 받았다. 그 찻집의 고객은 대부분 부유층 자체와 관리들이었는데, 이들은 퇴근길에 이곳에 모여 차를 마시며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좋은 가르침 등을 배우기도 하였다. 찻집이 상층 사교 모임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같은 업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찻집들이 있었다. 잡일을 하는 남자들이 주로 모이던 곳이 있었던가 하면, 제행(諸行)의 기술자와 기예자들이 모이는 찻집이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직업적 정보를 교환하면서 여유를 즐겼을 것이다. 그리고 사대부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장소로서 역할한 점잖은 분위기의 찻집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화다방(花茶房)’이라고 하여 기녀를 앞세워 이목을 끌고 호객하는 요란한 찻집들이 있었다. 이곳의 기녀들은 미모와 미소로 손님들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서 저녁까지 노래와 현악기를 울려 마음과 눈을 요동치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다. 즉 이곳의 기녀들은 미색과 기예도 출중하였고 찻집은 매우 호화스럽게 치장되어 있었다. 어떤 곳은 모든 집기까지 금으로 만들었고 덮개와 휘장 같은 것들은 비단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는데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은 지금이나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기녀들에 따라오는 판매자들까지 분분하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런 찻집들은 대개 시끄럽고 이래저래 다툼이 잦았으므로 일반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찻집이기도 하였고 군자들이 발들일 곳이 아니라고 『원씨세법』에 기록되어 있다.

찻집 규모의 대형화와 호화스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하여 개봉에서보다 항주에서 찻집의 치장은 더욱 화려하였다. 개봉에서도 식당 벽에 유명한 그림을 걸어 눈요기를 제공하는 등 실내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항주에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사계절 꽃을 장식하는 등 치장에 더욱 열을 올렸다. 금으로 만든 호화 집기를 사용하기까지 하였고 그 정도의 물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각종 물건들을 임대해 사용하여 손님이 올 때마다 모두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갖추어 놓곤 하는 일들까지도 벌어졌다.

이렇듯 송나라는 소비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사회였다. 따라서 많은 재부를 모을 수도 있었지만 흥청망청하다 가산을 잃는 일도 허다하였다. 그래서였을까 『원씨세범(袁氏世範)』에는 흥청망청하고 현명치 못한 남편과 아들을 두었다면 여자가 집안일에만 신경 쓸게 아니라 바깥일일까지 모두 주관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차의 소비는 도시에서만 활발했던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는 훨씬 더 심했다고 한다. 이는 풍부한 차 생산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 마시는 풍속이 남에서 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보급되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8) 개문칠건사(開門七件事)의 하나

중국인들에게 차는 우리가 생각하듯 그저 기호품의 하나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보리차와 같이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음료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습관은 유래가 깊은 것이었다.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라는 말과 같이 개문칠건사 혹은 칠반사(七飯事)는 차가 중국인들의 생활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개문칠건사는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부터 일상에서 꼭 필요한 7가지 물건을 의미한다. 즉 생활필수품인 것이다. 당시 중국인들이 꼽은 7가지 물건들은 쌀나무, 쌀, 기름, 소금, 장, 식초, 차였다.¹⁶⁾ 생활필수품으로 꼽힌 이 7가지 품목은 남송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도록 중국인들에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하고 먹게 되는 품목에 차가 끼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차를 기호음료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차는 쌀이나 소금과 같아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된다”¹⁷⁾라든가 “군자소인 모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부귀빈천 모두 음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¹⁸⁾ “여러 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쉼잖으나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안된다”¹⁹⁾ 등의 표현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차는 본래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때 이르면 차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관료나 문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인 것이 되어있었다. 아래 보이는 주옥의 『평주가담』의 기사에 의하면,

지금 世俗은 손님이 도착하면 茶를 내고 떠날 때에는 湯을 낸다. …… 이 풍속은 천하에 보편적이다.²⁰⁾

라고 하여 당시 손님이 오면 차와 탕으로 대접하는 것이 보편적인 풍속이라고 하였다. 객차(喫茶)와 객탕(喫湯)이 조합된 객례(客禮)는 궁정이나 관청에서만 만 아니라 민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행해졌다.²¹⁾ 여기에서 탕이라는 것은 약재를 사용하여 만든 따뜻하거나 찬 음료로 감초를 사용해 단맛과 향을 더하기도 한 것이었다.²²⁾ 송대 사람들이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음료를 즐겼다는 사실은 오자목의 『몽량록』 권16, 「다사」에 기록된 사시사철 다양한 차와 탕에 대한 기사가 보여준다. 찻집에서는 “사시 다양한 차와 탕을 판매하였는데 겨울에는 칠보뢰다와 산자총다, 또는 염추탕을 팔았다. 여름에는 설포매화주를 더해 팔았고 축비음서약(비장을 오그라뜨리고 더위를 쫓는 약) 같은 종류를 팔았다”²³⁾ 한 것처럼 약재와 건강에 좋은 식품을 혼합해 섞은

16) 吳自牧, 『夢梁錄』卷16 「養鋪」, 蓋人家每日不可闕者 柴米油鹽醬醋茶.

17) 王安石, 『臨川集』卷70 「議茶法」, 夫茶之民用 等於米鹽 不可一日以無.

18) 『全宋文』卷905 李觀 「富國策第十」, 君子小引靡不嗜也 富貴貧賤靡不用也.

19) 楊華, 『膳夫經手錄』累日不食猶得 不得一日無茶也.

20) 朱彥, 『萍洲可談』卷一, 今世俗客至則啜茶 去則啜湯……此俗遍天下.

21) 前中美佐, 『宋代の喫茶喫湯』(『史泉』66호, 1987), pp.63-64.

22) 朱彥, 『萍洲可談』卷1, 湯取藥材 甘香者屑之 或溫或涼 未有不用甘草者.

다양한 음료가 발달하였다.

차와 탕을 함께 갖추어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더라도 茶가 손님을 대접하고 사교의 매개가 되었던 것은 하층민에게도 동일하였다. 송나라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던 이야기를 모은 책인 『이견지(夷堅志)』에 실린 복주(福州) 지역의 한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차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소 엽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복주 고전현에 사는 한 사람은 집안에서 돼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집이 좁았기 때문에 돼지를 항상 침실에 두고 길렀다. 집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는데 아직 포대기에 쌓여있는 간난아이였다. 어느 날 그 어미가 아이가 잠든 사이 이웃집에 차를 마시러 나갔다. 침상위에는 아이가 누워있는 요람이 있었는데, 집안에 있던 돼지가 아이를 물고 들어 올려 내동댕이쳤고 요람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돼지는 아이의 두 다리를 넓적다리까지 물어뜯고 또 아이의 팔까지 거의 먹어버렸다. 아이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²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 이웃집에서 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茶湯을 보내주었다.²⁵⁾

이 이야기는 아이 엄마가 차를 마시러 이웃집에 놀러간 사이 키우던 돼지가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의 팔과 다리를 먹어버려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돼지와 침실에서 함께 생활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빈민에게도 차를 마시는 것은 익숙한 생활습관이었고 차 마시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웃과의 교제에서 차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주에서는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 짐도 옮겨주고 차탕을 보내주면서 이웃 간에 우의를 다졌던 것도 일반적인 생활의 일부였다.

나아가 차는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가 되기도 하였고 구걸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거리나 골목마다 다병을 들고 문 앞에서 차를 끓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차를 팔기도 하였고 이웃간의 소식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도 하였다. 송대인들은 초하루나 보름, 또한 길흉사가 있을 때면 이웃에 차를 끓여 보내 소식을 전했는데, 이때 다병을 들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이 고용되었다.²⁶⁾ 또한 ‘작차’라고 하여 관사 등의 문 앞에서 자리를 깔고 찻물을 끓이며 사람들에게 전물을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²⁷⁾

9) 라떼아트와 같았던 차 거품내기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고고하게 앉아 차맛을 음미하며 조용히 차를 마셨던 것은 아니다. 차는 이제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라는 범위를 넘어 약용으로, 정신적 구도를 위한 수단으로, 또한 사교와 놀이의 하나로서 다양하게 인식되어졌다. 앞서 개봉과 향주의 찻집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은 목적과 기분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사람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입맛에 맞고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 했고 목을 적시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얻고자 했다.

최근 유행하는 라떼아트와 같이 볼거리를 함께하는 음료의 등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꽤 오래전에 사람들은 이러한 볼거리를 즐겼다. 송나라 때의 다서로 분류되는 도곡(陶穀)이 쓴 『천명록(茶茗錄)』에는 이와

23) 吳自牧, 『夢梁錄』卷十六, 「茶肆」四時賣奇茶異湯 冬月添賣七寶擂茶散子蕊茶 或賣鹽鼓湯 暑天添賣雪泡梅花酒 或縮脾飲暑藥之屬.

24) 洪邁, 『夷堅志』戊卷一, 「福州民家豬」福州古田小民 家有一豬 其居狹隘 常置之寢室中 民有一子 未脫襁褓 其母出隣舍啜茶 以臥籃貯兒於床上 豬銜薦拽下 而籃隨仆地 遂齧兒雙足至股 又食其臂幾盡 經宿方死.

25) 吳自牧, 『夢梁錄』卷十八「民俗」或有新搬移來居止之人則隣人爭借動事遺獻茶湯.

26) 『夢梁錄』卷十六, 「茶肆」, 處巷陌街坊 自有提茶瓶沿門點茶 或朔望日 如遇凶吉二事 點送鄰里茶水 倩其往來傳語耳.

27) 『夢梁錄』卷十六, 「茶肆」, 有一等街司衙兵百司人 以茶水點送門面鋪席 乞覓錢物 謂之點茶.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생성잔(生成盞)」과 「차백희(茶百戲)」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를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차 거품으로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며 차를 즐겼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탕을 부어 점차하면서 탕의 표면에 물상이 현묘하게 나타나는 것은 茶匠이 신에 통한 藝이다. 사문인 福全은 금향에서 태어나고 茶海에서 자라서 탕을 부터 차탕 표면에 모양을 만들어 시 한 구절을 이루는데 능하였다. 네 사발을 타면 모두 詩 한 絶句가 탕 표면에 떠올랐다. 소소한 모양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施主者들이 날마다 문을 이르러 湯戲를 보기 구하였다.²⁸⁾

근세에 탕을 부어 손가락으로 젓다가 따로 묘수를 부려 탕의 무늬와 수맥이 物象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다. 금수, 벌레, 물고기, 화초 같은 종류로 섬세함이 그런 것 같다. 다만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지니 이는 차의 변화이다. 때의 사람들이 茶百戲라 이른다.²⁹⁾

「생성잔」이라는 것은 차를 타내는 과정에 차의 표면에 기묘한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하는 기술로 차장(茶匠)의 기술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정도의 것이었다. 당시 복전(福全)이라고 불렀던 승려가 이 기술에 능하였는데, 그는 차 네 사발을 타면서 시 한구절을 차탕의 표면에 떠오르게 하곤 하여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이를 보려고 사람들은 절에 와서 시주하고 이 탕희(湯戲)를 즐기고 싶어 했다. 이 놀이는 사찰에 제한된 것이 아니어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차놀이를 차백희(茶百戲)라고 불렀다. 차사발에 끓은 물을 부어 손가락으로 젓다가 갖가지 묘수를 부려 모양을 만들었던 것이다. 온갖 동물과 물고기에서 화초 모양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냈고 그 묘사도 무척 섬세하였다고 한다.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차를 마시기 전부터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무척 즐거워했음에 틀림없다.

탕희와 차백희는 차를 끓이고 마시는 과정에서 차의 맛을 최상으로 살리려는 노력과 차를 통해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을 찾으려는 목적 외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것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를 통해 문화를 즐기려는 성향은 차를 만들고 마시는 절차와 예절, 다구의 선택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이에 이르면 오락적인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다. 차를 마시는데서 그치지 않고 보고 즐기려는 문화가 자리 잡았음을 위의 탕희 차백희를 통해 볼 수 있다.

3. 가루차시대의 다기

1) 기술력의 힘 (찌내는 방법에서 튀는 방법으로)

여러 분류법이 필요하고 발효 정도가 다양한 차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차잎을 덩어서 만드는 초제법(炒製法)이 발달하면서였다. 그 이전은 주로 찌내는 증제법(蒸製法)에 의해서 차가 만들어졌고 이 제조 방법으로는 녹차만 생산될 수밖에 없었다. 최소 5,300만여 근이라는 생산량의 기록이 보이는 송나라에서도 생산된 차는 대개 녹차였다. 그렇다고 이 녹차의 시대에 차의 종류가 적었던 것은 아니다. 『宋會要輯稿』食貨29를 살펴보면 당시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거두어들였던 차의 종류만 해도 수십가지를 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발효정도가 다양한 차의 종류는 차 제조의 기술적인 면이 보강되어야 했다. 즉 찌내는 방법에서 덩어내는 방법이 개발되고 나서야 우롱차, 홍차 등의 발효 정도가 높은 차가 생산될 수 있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16세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처음 차는 아무 처리공정 없이 생잎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테지만 그때는 저장에 문제가 되었을 것이므로 매우 제한된 식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비알콜음료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은 저

28) 陶穀, 「荈茗錄」, 「生成盞」, 饜茶而幻出物像于湯面者 茶匠通神之藝也 沙門福全生于金鄉 長于茶海 能注湯幻茶 成一句詩 并點四甌 共一絶句 泛乎湯表 小小物類 唾手辦耳 檀越日造門求觀湯戲.

29) 陶穀, 「荈茗錄」, 「茶百戲」, 近世有下湯運匕 別施妙訣 使湯紋水脉成物象者 禽獸虫魚花草之屬 纖巧如畫 但須臾即就散滅 此茶之變也 時人謂之茶百戲.

장 기술의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차의 경우도 음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장과 함께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해져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제공되어야 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건조처리를 통해 저장의 기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방법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관해 역사학적으로는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 차를 만드는 방법에 관련된 기록은 차를 마신 것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그리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한 방법에 대한 기술은 차가 전국적이며 일반적인 음료로 자리 잡은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보다 앞서 단편적이지만 단서를 찾아볼 수는 있다.

저장과 운반이 가능하였던 상태의 차는 떡차 혹은 덩어리차로 번역되는 병차(餅茶)였다. 이러한 형태의 차는 시기에 따라 단차(團茶), 편차(片茶)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졌다. 3세기 삼국시대 기록인 『광야(廣雅)』에 병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 있다. 차잎을 따서 병차로 만들어 차를 마셨다고 하였는데 병차의 제작 방식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단지 병(餅)으로 만들었고 잎이 노쇠한 경우 쌀기름(米膏)을 넣어 만들었다고 하였다.³⁰⁾ 당나라 때 육우(陸羽)가 760년경 저술한 『다경(茶經)』에 이르러서야 찌서 만드는 병차의 방법(증제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경』에 의하면 차는 총 7가지의 공정(채蒸증蒸도搗搗拍拍배焙전穿봉封)을 거쳐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먼저 음력 2·3·4월 사이 맑은 날에 차잎을 따고 시루에 찌서 질구에 찜었다. 찜은 차잎을 둥글거나 네모, 혹은 꽃모양의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어냈다. 대나무로 짠 손잡이가 달린 네모난 체 위에 차를 넣어 모양을 유지시켰다. 송곳칼로 가운데 구멍을 내고 대나무 막대기에 차를 꿰어서 불을 쪄서 말리고, 다시 대나무나 다나무 껍질로 꼬아 만든 줄에 꿰어서 대나무로 짜고 종이로 풀칠해 만든 보관함에 걸어둔다고 하였다. 이 보관함은 2단으로 되어 있어 위에 차를 보관하고 밑은 잿불을 담아 놓는 불자리로 사용되었다. 강남지역에서는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습기가 높아져 차가 습기에 부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보관함 아랫단에 잿불을 놓아 차의 건조 상태를 유지시켰다고 한다.

그렇다고 당시에 차가 병차 형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경』에는 추차(攄茶), 산차(散茶), 말차(末茶), 병차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 산차와 말차는 형태에 있어 병차와는 다른 것이었다. 추차는 조차(粗茶)라고도 하며 거친 차잎으로 만든 차였는데 형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산차는 병차와 반대되는 개념의 차로 덩어리 형태가 아닌 흩어져있는, 차잎 형태 그대로의 차였다. 말차는 글자 그대로 가루를 낸 차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 차들은 모두 찌서 만드는 증제법에 의해 만든 것이었을까? 증제법이 유일한 제조법이었을까? 당시 증제법이 유일한 제조 방법은 아니었지만 주요 방식이었고 그 후로도 송원시대까지인 14세기까지는 증제법이 주류의 방법으로 유지되었다.

당나라 때에도 뒤어서 만드는 초제법이 존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 유우석(劉禹錫 772~842)의 시 「서산사원에서 차를 마시며 노래한다(西山蘭若試茶歌)」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매우 단편적인 것이다. “향기나는 풀 무리 곁으로 가 매부리 같은 잎을 따네. 이것은 모름지기 뒤어야(炒)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니”라고³¹⁾ 한 시 구절이 초제법 존재의 증거일 뿐이다. 따라서 당나라 때의 산차가 초제법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아직 무리가 있고, 단지 초제법이 이미 당나라 때부터 일부 사찰을 통해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송원을 거쳐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산차를 만드는 주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송나라 때에는 차를 편차(片茶)와 산차로 구분하였고 편차 가운데에서는 복건(福建)의 납차(臘茶)가 유명하여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산차는 초차(草茶)라고도 불렸으며 가장 대표적인 생산지는 양절(兩浙)이었다. 차는 형태적으로 덩어리차(고형차固形茶)와 잎차, 가루차가 있었는데, 덩어리차는 병차, 편차, 단차, 과차, 납

30) 『廣雅』, “荊巴間采茶作餅 葉老者 餅成以米膏出之.”

31) “自榜芳叢摘鷹觜 斯須炒成滿室香”(劉禹錫의 「西山蘭若試茶歌」)

차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잎차는 산차, 초차를 포함하고 가루차는 그것이 덩어리차였든 아니든 다마(茶磨)나 다연(茶碾) 등 차를 가는 기구를 이용해 갈아낸 차를 의미하였다.

차잎을 뒤어내는 초제법이 부분적으로, 혹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 하여도 차잎을 찌내는 증제법에 의한 차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절에는 덩어리차건 잎차건 마실 때에는 대개 갈아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 마셨다. 따라서 차의 형태를 분류할 때 가루차가 존재하였던 것이고 또한 그것은 차 마시는 것이 상당히 대중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매번 마실 때마다 차를 간다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를 가는 기구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성제품으로 갈아서 파는 차를 손쉽게 사서 마셨던 것이다. 이렇듯 가루차의 존재는 중국 차 문화의 보급과 발전 정도를 대변하는 요소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초기 차의 형태가 병차와 같은 덩어리 형태였다는 것은 제조 방식에 있어서 저장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알맞은 수분 함량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미숙했으므로 지나치게 건조되어 잎이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덩어리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덩어리 형태가 보관상 편리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초기 상황에서 후에 산차의 형태가 출현했다는 것은 차의 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차를 만드는 방법은 증제 병차로 시작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제 산차가 등장하는 발전 단계를 형성하였다. 그 다음 발전 단계는 증제 산차에서 초제 산차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이 단계는 오랜 기간을 거쳐 명나라에 들어와서야 그 방법이 주류로 확립되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 의해 1391년 용봉단차(龍鳳團茶)의 제조가 금지되면서 점차 병차는 쇠퇴하고 산차가 주도적인 위치에 올랐다. 이때가 초제산차법이 주류 방식으로 확립되는 시기였다고 하겠다. 명나라 때의 다서(茶書)에 와서야 초제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실려 있다는 사실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2) 차 마시는 방법의 변천

차 만드는 방법이 발전하고 변화된 만큼이나 차를 마시는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갠음(羹飮)과 죽음(粥飮)이라고 하여 끓여서 국과 죽 형태로 마셨으므로 지금 우리가 마시는 차와는 많이 달랐다. 차잎에 대한 처리 공정이 부족했고 또한 오래 끓여서 마셨으므로 쓴맛이 많이 우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쓴 차(苦茶)’라고 불렀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삼국시대 230년경 기록인 『광야(廣雅)』에는 병차를 마시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당시 차는 병차로 만들어 보관하였는데, 마실 때는 분량만큼 떼어내어 불에 붉은 색이 돌게 구운 다음 찜어서 가루를 내었다. 그리고 가루차가 담긴 도자기 그릇에 끓는 물을 붓고 파, 생강, 꿀 등을 함께 넣어 마셨다고 한다.³²⁾

같은 3세기의 기록인 광의공(郭義恭)의 『광지(廣志)』에는 차 마시는 방법이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즉 眞茶로 끓이는 것을 ‘명음(茗飮)’이라고 하고 수유와 꿀 같은 것으로 기름지게 끓인 것을 ‘차(茶)’라고 하였으며 붉은 색이 도는 것은 쌀과 기름과 함께 끓인 것으로 ‘무주차(無酒茶)’라고 하였다고 한다.³³⁾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명(茗)은 茶芽”라고 하였던 것을 보면 어린 싹으로 만든 차는 그대로 음용하기도 하고 여러 첨가물을 넣어 마시기도 하는 등 마시는 방법이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차의 형태가 덩어리든 흩어진 잎차 모양이든 차를 끓일 때에는 모두 가루로 갈아서 마셨다. 그 과정에서 시대적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첨가물을 넣어 끓여 마시는 방법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광야』의 기록과 같이 파, 생강, 대추, 꿀꺽질, 산수유, 박하 등 여러 첨가물을 넣어 마시는 것이 오래된 차 끓여 마

32) 『廣雅』, “荊巴間采茶作餅 葉老者 餅成以米膏出之 欲煮茗飲 先炙令色赤 搗末 置瓷器中 以湯澆覆之 用蔥姜橘子茗之.”

33) 『廣志』, “煮眞茶爲茗飲 茶葉橘子之屬 膏煎之 或以茶葉煮脯胃汁 謂之曰茶 有赤色者 以米和膏煎 曰無酒茶.”

시는 방법이었는데 당나라 때 이르면 소금으로 첨가물이 통일되는 경향이 보였다. 당시 차의 교본이자 교양서로 널리 읽혔던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에 소금 이외에는 넣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이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다경』에서 기술되어 있는 차 끓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 덩어리에서 필요한 분량만큼 떼어내어 불에 굽고 식기를 기다려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술에 물을 끓이는데 처음 끓기 시작하면 물의 분량을 맞추고 소금으로 맛을 고른다. 다시 끓으면 물 한 표주박을 떠내고 대젓가락으로 끓는 물을 가운데서 휘저으면서 가루차를 넣는다. 잠시 후 물거품이 일어나면 미리 덜어냈던 물을 부어 이를 멈추게 하고 차가 우러나게 한다.” 이를 자차법(煮茶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차를 끓여 마시는 방법이다. 물을 끓여 차를 우려내 마시는 지금의 방법과는 사뭇 다르다.

송나라 때에 이르면 현재 우리가 가루차를 마시는 방법이나 일본의 말차 다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를 마셨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에도 편차나 산차 모두 갈아서 사용하였다. 편차는 필요한 분량을 나무 망치로 떼어내어 다연(茶碾)이나 다마(茶磨)로 곱게 갈고 체에 걸러냈다. 찻잔에 일정 분량의 가루차를 넣고 끓인 물을 부어서 찻술로 휘저어 거품을 내어 마셨다. 이러한 방법을 점차법(點茶法)이라고 한다.

이때에 이르면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차를 끓여 마시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는 차의 재배와 제작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첨가물을 많이 넣었다는 것은 약용적인 기대감도 있었지만 차의 쓴맛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게다가 소금을 넣었다는 것은 차의 맛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 재배기술과 제조기술이 송나라 때에 이르면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루차에 끓인 물을 부어 술로 저어 마시는 점차법은 당시 주류 혹은 정식으로 마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송나라의 유일한 차 마시는 방법은 아니었다. 송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여러 첨가물을 넣어 마시는 방법이 지속되고 있었다. 소식이 쓴 「장기가 차를 보내준데 화답하여(和蔣夔寄茶)」에는 “자금백병(紫金百餅)은 값이 만전인데…누가 훔쳐갈까 걱정하며 밀봉해 싸두었는데 나이든 처와 아이는 아끼는 줄 모르고 절반이나 생강 소금을 넣고 끓였다”라고³⁴⁾ 하여 부녀자들이 가정에서 생강이나 소금을 넣고 차를 끓여 마시는 습관이 여전히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송대 전다법(煎茶法)은 당대 자차법과 동일하게 술에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었다. 이는 명대 포약법(泡瀹法)으로 이어진다.

명나라 때에 이르면 뒤은 초차의 생산이 확립되고 태조 주원장에 의해 단차의 생산이 금지되면서 점차 덩어리차가 쇠퇴하여 일차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졌다.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명나라 사람들은 가루차에 대한 기억조차 없게 되었다. 당시 훈고학자들조차도 송나라 때의 시에 나오는 찻술(茶筴)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였다. 당연히 점차법도 명나라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렇다면 명나라 때 차는 어떤 방식으로 마셨을까?

명나라 때에는 포차법(泡茶法)이 주류를 이루는 차 마시는 방법이었다. 포차법은 일차를 더운 물에 우려내는 방식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장원의 「다록」에 차 마시는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차를 먼저 넣고 끓인 물을 붓는 것을 하투(下投)라고 한다. 끓인 물을 반쯤 붓고 차를 넣은 다음 다시 물을 채우는 것을 중투(中投)라고 한다. 물을 먼저 붓고 차를 나중에 넣는 것을 상투(上投)라고 한다. 봄과 가을에는 중투하고, 여름에는 상투, 겨울에는 하투한다.”³⁵⁾ 허차서의 「다소」에는 “먼저 차를 손에 쥐고 다호(茶壺)에 끓인 물을 부은 다음 손으로 차를 떨어뜨려 넣는다. 뚜껑을 덮고 그대로 세 호흡정도 기다린다. 다음으로 발우에 기울여 부어내고 다시 다호에 물을 부어서 향기를 발산하게 하고 겸해 색도 가라앉지 않게 한다. 다시 세 호흡 정도 기다려 향기와 색을 안정시킨 다음 손님에게 따라낸다”고 하였다.³⁶⁾ 이러한 방법은 지금의 차 우리

34) 『東坡全集』卷7, 「和蔣夔寄茶」, “紫金百餅費萬錢…只恐偷乞煩封緘 老妻稚子不知愛 一半已入薑鹽煎.”

35) 張源, 「茶錄」投茶, “先茶後湯曰下投 湯半下茶 復以湯滿 曰中投 先湯後茶曰上投 春秋中投 夏上投 冬下投.”

는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차를 마시는 풍습은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의 하나이지만 중국인만 마셨던 것은 아니었다. 주변민족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혹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차를 마셨다. 특히 유목민족 사이에서 차는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주요한 식품에 속했으므로 차무역의 필요성이 높아져 1070년대에 이르면 공식적인 무역으로서 차마무역(茶馬貿易)이 성립하게 되었다. 견마무역(絹馬貿易)에 이어 차가 중국과 주변민족 간의 대표적인 교역 물품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유목민족에게 차를 보관하고 마시는 방법은 정주민족과 비교해 간단하고 편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들의 생활이 항상 이동을 준비하는 만큼 덩어리 형태의 차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각광받았다. 그들은 소금을 넣어 마시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지는 유제품을 넣어 마시기도 하였다. 영국의 홍차 마시는 방법이 이들 유목민족들의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목축국가인 영국에서 독자적으로 찾아진 방법인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환경에 적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3) 가루차를 마실 때 필요한 다기

당 중기 양세법(兩稅法)에 따른 전납화(錢納化)에 따라 민간에서의 동기(銅器) 주조 및 사용을 금지하는 동금령(銅禁令)이 내려지면서 지배계층의 동기(銅器) 사용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일상생활 용기로서 도자기는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빠르게 보급되었는데 이러한 시점과 전용다기를 사용하며 차를 마시는 풍속의 보편화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당대와 송대는 모두 가루차를 주로 즐겼지만 마시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다구에도 차이가 있었다. 당대의 다구는 육우(陸羽)의 『다경(茶經)』 「四之器」를 통해, 송대 다구는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조길(趙吉)의 『대관다록(大觀茶錄)』, 심안노인(審安老人)의 『다구도찬(茶具圖贊)』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경』에서는 병차(餅茶)를 끓일때 필요한 25가지의 다구에 대한 명칭과 소재, 형태, 제작방법, 사용법 등과 다구 소재가 차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언급하였다. 진열대인 구열(具列)을 제외한 23가지의 다구를 모두바구니인 도람(都藍)에 담았다. 『다록』에는 9가지, 『대관다록』에는 6가지, 『다구도찬』에는 점다(點茶)에 필요한 12가지의 다구가 열거되어 있다.

『茶經』에 보이는 25가지의 다구

불피우는 도구(4종) : 풍로(風爐, 灰承),

거(筥 숯광주리),

탄과(炭槌 숯가르개),

화협(火筴 부젓가락)

차 끓이는 도구(2종) : 복(鑊 솥),

교상(交床)

차를 굽고, 갈고, 무게를 재는 도구(5종) : 협(夾 집게),

지낭(紙囊 종이주머니),

연(碾 절구)와 불말(拂末 가루털개),

라함(羅合 체함),

칙(則 구기)

물을 담거나 거르거나 뜨는 도구 (4종) : 수방(水方 물통),

녹수낭(澆水囊 물거름자루),

36) 許次紆, 『茶疏』 烹點, “先握茶手中 俟湯既入壺 隨手投茶湯 以蓋覆定 三呼吸時 次滿傾盃內 重投壺內 用以動蕩香鈞 兼色不沉滯 更三呼吸頃 以定其浮薄 然後瀉以供客.”

표(瓢 표주박),

숙우(熟盂)

차를 달이는 도구 (1종) : 죽협(竹筴 대젓가락)

소금을 담거나 뜨는 도구(1종) : 차궤(齏盥 소금단지)와 계(揭 소금주걱)

차를 마시는 도구(1종) : 완(盃 주발)

청결도구(4종) : 깔(札 술),

척방(滌方 개수통),

재방(滓方 찌꺼기통),

건(巾 행주)

차를 담거나 진열하는 도구(3종) : 분(畚 삼태기),

구열(具列 진열장),

도람(圖籃 모듬바구니)

당대 가루차를 술에 넣어 끓여 마시는 방법을 주류로 하였다. 이를 위해 완벽한 다구를 갖추려면 위의 『다경』에서 제시한 25가지가 된다. 이와 같이 다구의 가지 수가 많았던 이유는 술에 끓이는 방법이었으므로 연료인 숯과 술은 없는 도구 등 풍로부터 술까지 필요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첨가물로 소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소금단지와 소금주걱까지 필요하였다. 또한 차와 물이 서로 용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숙우가 꼭 필요하였다.

송대 점다법은 찻잔에 차 가루를 넣고 끓은 물을 부어 저어서 마시는 방법이었으므로 당대와 중시되는 다구에 차이가 있었다. 송대는 상대적으로 차를 더 곱게 갈아야하는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차를 가는 기구의 발전이 보였다. 특히 곱게 갈 수 있는 다마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당대 풍로가 중시되어 적당한 열로 끓이는 것이 중요하였다면, 송대는 오히려 다병에 끓인 물을 알맞게 식히는 것이 중요하였다. 당대 술에서 차가 가라앉지 않도록 치던 죽협이 사라지고 대신 다완속에 차를 치는 다시와 다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다록』에 보이는 9가지 다구 : 다배, 다룽, 침추, 茶鈴, 茶碾, 茶羅, 茶盞, 茶匙, 湯餅

『다관다록』에 보이는 6가지 다구 : 다년, 다라, 잔, 선(筥), 병, 작(勺)

『다구도찬』에 보이는 12가지 다구

풍로(風爐)

침추(砧椎)

다년(茶碾)

다마(茶磨)

다표(茶杓, 水杓)

다라(茶羅)

다추(茶帚) 다쇄(茶刷)

다탁(茶托)

다잔(茶盞) 다완(茶碗)

다병(茶瓶)

다시(茶匙) 다선(茶筥)

다건(茶巾)

각광받는 다완도 시대에 따라 달랐다. 당대 다완은 ‘남청북백(南靑北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색의 월주

요(越州窯) 다완과 백색의 형주요(邢州窯) 다완이 유명했다. 육우는 『다경』에서 절강의 월주요를 최고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호남의 악주요, 섬서의 정주요, 강서의 무주요로 순위를 지었다. 허북의 형주요의 백색 자기는 차색을 붉게 보이게 하고, 안휘의 수주요(壽州窯)의 자기는 황색이므로 차의 색을 자줏빛으로 보이게 하고, 강서 홍주요의 자기는 갈색으로 차의 색을 검게 보이게 해서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육우는 차의 빛깔이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청색자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송대의 경우 흑색 다완이 각광받았다. 이것은 차를 겨룰 때 백색의 탕화(湯花)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백색을 돋보이게 하는 흑색 도자기가 선호되었다. 건안(建安)의 건양요(建陽窯)가 흑색잔 제작으로 유명하였다. 차 겨루기(鬪茶)의 유행으로 흑잔이 선호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청자, 백자, 청백자 등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하남(河南)의 자주요(磁州窯), 허북(河北)의 곡양정요(曲陽定窯), 강서(江西)의 영길길주요(水吉吉州窯), 산서(山西)의 회인요(懷仁窯) 등이 대표적인 생산지였다. 송대 도자기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생산지의 증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대 陶窯址가 24곳이었다면 송대는 63곳으로 3배의 증가를 보였다.³⁷⁾ 窯場의 규모도 커져, 饒州饒의 경우 당대 1곳이었는데 오대시대 2곳, 송대는 12곳에 요장이 있었으므로 도자기의 생산수량은 10여배에 달하였다.

4. 송대 차와 산업의 발전

1) 차의 생산량과 종류

송대 차 산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의 하나는 차의 종류와 생산수량이다. 차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차의 가격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충분한 소비량과 함께 소비 형태 또한 다양하였음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차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였다.

송대 차 생산량과 차의 종류를 살펴보면, 송대 차는 15로(路) 2부(府) 82주(州) 13군(軍) 275현(縣) 2성(城)에 달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생산량 또한 북송전기 사천(四川)을 제외한 동남지역의 경우 매차량(買茶量), 절세차(折稅茶), 공차(貢茶), 모차(耗茶) 등의 수량을 합산하면 4937만근(斤)정도였으며, 사천지역의 차 생산이 3,000만근에 달하였다. 이로써 북송전기 차 생산량이 1억근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송대 차 생산량에 관심을 보였는데 사천지역의 3,000만근, 동남지역이 총생산량의 2/3을 차지하였다고 보거나, 동남지역의 생산량은 최소 6,000만근이라고 산정하기도 하였고, 총생산량은 1.5억근에 달하였다고도 보았다.³⁸⁾ 이를 통해 송대 차 문화가 풍부한 차 생산의 토대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茶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 크게 편차(片茶)와 산차(散茶)로 구분되었고 편차에 포함되는 납차(臘茶)가 별도로 취급되었다.³⁹⁾ 차의 품등(品等)이 다양하여 편차의 경우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상중하 및 제1에서 제5호'로 구분되고 다른 하나는 소위 '26명(名)'으로 실제상 45가지에 달하였다. 『문헌통고』에는 40가지, 『송회요집고』에도 그 이상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⁴⁰⁾ 산차에도 '상중하 제1에서 제5'의 품등과 '11명'이 있는데, 11명의 경우 『문헌통고』 기록에는 실제 23종에 달한다. 이밖에 사천차의 품등 22종이 별도로 있었다.⁴¹⁾ 납차의 종류를 살펴보면 『송사』 식화지에 용봉(龍鳳)과 석유(石乳), 백유(白乳) 등 12품등이 있다고 하였다.

37) 愛宕松男, 『中國陶磁産業史』(三一書房, 1987), pp.203~204.

38) 孫洪升, 『唐宋茶業經濟』(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p.81; 皇純純, 『宋代茶法研究』(昆明: 雲南大學出版社, 2002), pp.5-6. (1990년대 중국의 차 생산량은 대략 61만톤인데 이를 근수로 환산하면 대략 10억 1,663만근이 된다. 인구수가 1억이 도달하는 송대에 차의 생산량이 1억근에 접근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39) 朱重聖, 『北宋茶之生產與經營』(臺北: 學生書局, 1985), pp.93-108.

40) 『文獻通考』卷18 征權五; 『宋會要』食貨29-1.

41) 朱重聖, 『北宋茶之生產與經營』(1985), pp.110-126.

여기에서 12품등이라고 한 것은 『송회요』 식화 29-10의 기록보이는 적유(的乳), 백유(白乳), 두금(頭金), 납면(臘面), 두골(頭骨), 차골(次骨), 제삼골(第三骨), 말골(末骨), 산정(山挺)의 9품등에 용(龍), 봉(鳳), 석유(石乳)의 3품등을 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⁴²⁾ 이 등급은 각차법(榨茶法)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적용되었다.⁴³⁾ 상등 3품등인 용봉과 석유는 공차(貢茶)로서 일반에게 판매되지 않았고 다음의 9품등이 전매제도를 통해 일반에게 판매되었다. 선화2년(1120)에 이르면 백유, 적유, 석유의 제조가 정지시키고 화과(花鈔)⁴⁴⁾ 20여 가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41가지의 공차와 33가지의 차 모양 목록이 『선화북원공차록』에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송대에는 상상을 넘어선 다양한 차가 생산되고 있었다.

차의 가격도 매우 다양하여 저가의 차가 있었던 반면 “금은 가질 수 있어도 차는 얻을 수 없다(金可有而茶不可得)”고 할 정도의 귀하고 비싼 차도 존재하였다. 북송시대 전매제도와 관련된 기록에서 전매기구인 각화무(榨貨務)에서 차 생산자인 원호(園戶)에게 매입한 가격(買茶價)과 상인에게 불하한 판매가격이 남아있다. 여기에서 상인에게 불하한 판매가격은 상인 입장에서 상품원가에 해당되는 가격인데, 하등품의 경우 1근당 50~60문을 형성하기도 하였고 상등품의 경우 1관(貫 1,000文)에 육박하는 가격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⁴⁵⁾

2) 다구 수요의 급증과 차 산업의 발달

당시 대규모의 차 생산과 소비와 함께茶具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송대 다구는 당대에 비해 간략해졌는데, 육우의 「다경」에 따르면 병차(餅茶)를 끓이려면 총 25가지의 다구가 소요되었던 데 반해 채양의 「다록」에서는 차를 보관할 때 필요한 다배(茶焙)와 다롱(茶籠)을 제외하고 7가지의 다구가 필요하였다. 차를 부술 때 필요한 침추, 차를 구울 때 쓰는 다검(茶鈴), 차를 갈 때 쓴 다년과 다라, 차를 담는 차잔, 차를 짓는 다시, 물을 끓이는 탕병이 그것이었다. 조길의 「대관다록」에는 6가지가,⁴⁶⁾ 심안노인의 「다구도찬」에서는 12종의 다구가 열거되었다.⁴⁷⁾ 이 중 탕병의 사용은 송대 점다법에 필요했던 새로운 다구였다.

다구의 소재를 살펴보면 차잔의 경우 도자기 잔이 일반화되었다. 탕병은 황금제가 상품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은, 철과 자기나 돌이 사용되었다. 다롱과 다시의 소재는 대나무였고, 다년, 다시 등도 은제품이 많았다. 다구의 소유 정도는 재력에 따라 천대만상이었겠지만 말차(가루차)가 상품으로 판매되었을 정도로 음차가 생활화되었던 시기였으므로 그 수요의 증가는 제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말차를 구입해 먹던 서민가정의 경우 차를 깨고 굵고 가는데 필요한 침추, 다검, 다라, 다년과 다마 등의 다구까지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의 전용기로서 보관용기, 찻잔, 다병 등의 다구 소유는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재력이 허락되는 경우 값비싼 장식용 다구와 일상용으로 쓰는 다구를 구별하여 여러 종의茶具를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구 사용의 증가는 이와 관련된 상공업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문상품을 발전시켰다.

차와 함께 그와 관련된 제반 산업이 함께 발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산업의 하나가 도자기산업이었다. 11세기는 농업기술의 진보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여 지주와 상인 등 부유한 백성의 수가 증가하고 서민 생활도 향상되었다. 따라서 의식주에 관계된 도구들의 제작 기술 또한 진보하였는데 도자기와

42) 반면 『宋會要』食貨29-1에는 龍, 鳳, 的乳, 白乳, 頭金, 臘面, 頭骨, 次骨, 第三骨, 末骨, 山茶(山挺)의 11품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43) 古林森廣, 「宋代福建의 茶法について」(『中國宋代의 社會と經濟』, 1995), p.226.

44) 北苑 貢茶가 기존보다 더욱 새로운 종류와 품목이 개발되면서 徽宗때 이르면 鈔茶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朱重聖, 「北宋茶之生産與經營」(1985), p.32.

45) 『宋會要輯稿』食貨29-10-14.

46) 『大觀茶錄』에서의茶具 6가지는 茶碾과 茶羅, 盞, 筥, 餅, 勺이다.

47) 『茶具圖譜』에서의茶具 12가지는 茶籠, 砧椎, 茶碾, 茶磨, 水杓, 茶羅, 茶帚, 盞托, 茶碗, 湯餅, 茶筥, 茶巾이다.

견직물이 현저함을 보였다. 도자기의 경우 이전시대에는 소수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였던 것에 비해 송대는 일반적인 사회 수요에 응해 생산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송대 요장(窯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당대 요에 비해 3배의 증가를 보였고 요장의 규모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요주요(饒州窯)의 경우 당대(唐代) 1곳이 운영되었고 오대(五代)에는 2곳에 그쳤는데 송대(宋代)에는 12곳이 운영되었고 인접한 지역으로도 확대되어 있었다. 요주요, 익주요와 같은 요장의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10배 정도 증가하였다.⁴⁸⁾ 이러한 증가로 송대의 경우 100여개의 현(縣)에 수백의 요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생산량에 있어서도 커다란 진보를 보여 한 요에서 2만개 이상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송대는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길이 50.36m, 폭 2.25~2.80m에 이르는 거대한 가마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⁴⁹⁾

『경원조법사류』 권3 「의제령」에 의하면 “민서가 사용하는 그릇에 은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도금은 할 수 없다”고 하여⁵⁰⁾ 서민이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용기는 금칠한 용기뿐이었다. 이로써 관호와 민호 사이에 금기 사항은 거의 사라졌고 그 차이는 부력에 의한 차이가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도자기는 일반 향호(鄕戶)에게도 다구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식기로 사용되었다.⁵¹⁾ 게다가 금을 사용할 수 없는 금령도 준수되지 않았다. 채양의 「다록」과 조길의 「대관다론」에 의하면 탕병의 경우 금제를 상품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시의 경우도 유력가는 금제를 사용하였고 가난한 집에서는 일상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였으므로⁵²⁾ 고가 용기사용의 가불가는 신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빈부에 있었다.

금으로 만든 다기는 궁중에서의 다례에서 쓰여졌고, 법제적으로는 금칠한 그릇을 민간에서는 쓸 수 없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금으로 제작된 다구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였다. 이에 금제 다기 제작을 통해 부정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있었다. 월주왕(越州王)이었던 중의가 서민에게 일러 금으로 다기를 만들게 하고 그 가격을 낮추어 균량권으로 사들에 남은 이익을 착복하였던 일이 있기도 하였다.⁵³⁾ 여기에서 금다기의 용도는 관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후술할 것이지만 백금 300~500성(星)을 능가하는 다구의 제작이 일반 판매를 위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음차가 보급되면서 호사자들은 다구 세트를 여럿 구비해 놓았고 다구는 대표적인 전용기로서 도자기 산업을 자극하였다. 송대는 백색의 차색을 선호하여 흑색 그릇을 선호하였는데 이 또한 확일적이지는 않았다. 아래 소식의 「시원전차」에 의하면 문언박이 백자 다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채양은 「다록」에서 청백자기가 투차(鬪茶)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청·백·흑 단색의 자기가 두루 사용되었다.

.....

銀瓶瀉湯誇第二
未識古人煎水意

은주전자로 탕수를 부으며 第二 샘물을 자랑하던
옛 사람 전수의 뜻을 모르는가

.....

.....

又不見今時潞公煎茶學西蜀
定州花瓷琢紅玉

또한 보았는가 지금潞公이 서촉의 법도를 배워 차를 달이고
定州의 꽃무늬 자기에는 홍옥이 새겨져 있네⁵⁴⁾

송대 도자의 색이 청·백·흑으로 단색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시대의 정신과 사회경제적인 요인, 소성기술의

48) 愛宕松男, 『中國陶磁産業史』(東京: 三一書房, 1987), p.264.

49) 三上次男, 『宋磁と宋代陶磁』(『中國陶磁史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89年), pp.183-186.

50) 『慶元條法事類』卷3 儀制令, 民庶器皿許用銀 不得塗金.

51) 愛宕松男, 『中國陶磁産業史』(東京: 三一書房, 1987), p.310-319.

52) 『東堂集』卷2, 「謝人分寄密雲大小團」.

53) 『宋史』卷447, 「陳遵傳」 越州王仲疑科市民 造金茶器 減直買軍糧券 而以私錢取之 仲疑坐黜杭經巨寇後河渠埋壅邦人以水潦為病.

54) 蘇軾, 『東坡全集』卷3, 「試院煎茶」……銀瓶瀉湯誇第二 未識古人煎水意……又不見今時潞公煎茶學西蜀 定州花瓷琢紅玉.

진보, 도공의 성향 등과 관련이 있었다.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는 공정의 단순화를 요구하였으므로, 여러 색의 유약을 써야 하는 당삼채(唐三彩)나 백자 위에 유채화를 그려 넣는 백자청화(白磁青花)는 적당하지 않았다. 단색이라는 도자기의 색채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였고, 단순한 색조를 견지했던 심리적인 요인은 송학과 선종의 영향이었다.⁵⁵⁾

이와 같이 송대 음차는 도자기 사업의 발전을 자극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대표적인 곳으로 건요(建窯)를 들 수 있다. 건요는 송대 유명한 흑자의 생산지로 흑유차잔인 토호잔(兔毫盞)을 만들어냈다. 건요의 흑자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송대 상층 차 문화의 대표로서 투차(鬪茶)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⁵⁶⁾ 투차시 차를 격분하여 생기는 차 분말이 흰색을 귀히 여겼던 송대의 경우 그 색과 모양을 돋보이게 하는 흑색 잔을 선호하였고, 그 결과 수요의 증가에 따라 건요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소식이 「시원전차」에서 “또한 보았는가 지금 로공이 서촉의 법도를 배워 차를 달이고 정주의 꽃무늬 자기에는 홍옥이 새겨져 있네”라고⁵⁷⁾ 읊었듯이 정요(定窯)는 송대 백자 생산으로 유명하였다. 정요에서는 부조로 도자기를 장식하여 청자와 백자가 가진 한계를 넘어섰는데 이는 송대 도자기의 특징이기도 하였다.⁵⁸⁾ 각화장식 기술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도자기의 수요 증가와 용도의 다양화라는 점이 작용하였던 것이고 이는 음차로 도자기 다구의 전용 사용이 일반화되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태원(太原)과 담주(潭州)는 동기(銅器)제작으로 유명한 지역이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다구도 유명하였다. 아래 세 개의 기사를 통해 보면, 높은 가격의 전문다구를 제작했던 두 지방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태원은 그곳에 가서 동기를 사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한 곳이었고 이와 함께 다구도 유명하였다. 그래서 필증유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을 피하려 다비(茶匕) 두개를 구매하였던 것이다.⁵⁹⁾ 담주의 다기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여 고가에 판매되었다. 장공(匠工)의 노임이 비싸 백금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들었고 다구는 백금 300~500성(星)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였다. 또한 고가의 물품인 만큼 그 보관도 격에 맞췄는데 그 방법은 굵은 은실로 짜서 만든 은상자에 보관하는 것이었다. 일부 상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장식해 놓기도 하였을 정도였다.

태원의 銅器는 세상에 유명하다. 혼자 한 가지도 사지 않아 사람들이 거짓이라 여길까 걱정했다. 다시 가서 다비 두개를 사가지고 왔다.⁶⁰⁾

장사(潭州)의 장인이 다기를 만드는데 솜씨가 매우 정밀해 장공의 노임이 많아 백금으로 만드는 것과 같았다. 사대부들이 대개 소유하고 있으면서 책상에 두었으니 사치를 자랑하고 상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¹⁾

장사의茶具는 천하에 으뜸이라 매번 백금 300이나 500에 버금간다. 대개 다구가 모두 완비되면 굵은 은실로 짜서 만든 함에 보관한다.⁶²⁾

55) 三上次男, 「宋磁と宋代陶磁」(『中國陶磁史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平成元年), pp.188-190.

56) 馮先銘, 「中國陶瓷」(上海古籍出版社, 2001), p.418.

57) 蘇軾, 「東坡全集」卷3, 「試院煎茶」……銀瓶瀉湯誇第二 未識古人煎水意……又不見今時澗公煎茶學西蜀 定州花瓷琢紅玉.

58) 馮先銘, 「中國陶瓷」(上海古籍出版社, 2001), pp.376-379.

59) 漆俠, 「宋代經濟史」(上海人民出版社, 1988), p.564.

60) 「宋史」卷281, 「畢仲游傳」太原銅器名天下 獨不市一物 懼人以為矯也 且行買二茶匕而去.

61) 周輝, 「清波雜志」卷4 長沙匠者造茶器 極精緻工直之厚 等所用白金之數 士夫家多有之 眞几案間 但知以侈靡相夸 初不常用也.

62) 周密, 「癸辛雜識」前集 「長沙茶具」長沙茶具精妙甲天下 每副用白金三百星或五百星 凡茶之具悉備外 則以大纒銀合貯之.

담주를 중심으로 한 동정호 주변지역은 차의 생산으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도 눈에 띄었다. 이 지역에서 제작된 다구는 ‘九江의 佳物’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광남서로의 뇌주는 철의 생산지 이면서 철제 다구제작으로도 유명하였다. 뇌주에서는 철을 소재로 한 다년, 탕구, 탕괘 등을 만들었는데 품질 면에서 건녕(建寧)의 것에 뒤지지 않았다.

정견은 넘어져서 머리와 손을 다쳐 무사한가를 물었는데 다기4종을 덜어뜨려 깨드리는데 이르렀다. 이는 모두 九江의 佳物이었다.⁶³⁾
뇌주의 鐵工은 기술이 좋은데 茶碾, 湯甌, 湯匱 같은 것을 제작하였다. 주조된 것 모두 건녕에서 생산한 것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⁶⁴⁾

송대는 점차법의 발달로 차 가루의 정도가 더욱 세밀함이 요구되어 차를 갈아내는 다구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차를 가는 용구는 구(臼)에서 다년으로, 또 다마로 발전하였다. 송대 차를 갈아내는 다구는 주로 다년과 다마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용도는 같으나 모양이 달랐다. 더욱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년에 비해 다마가 훨씬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었다.⁶⁵⁾ 이는 다년이 사람의 힘과 적은 면적을 이용하였던 반면 다마는 맷돌과 같이 그 도구 자체가 넓은 면적과 함께 일정한 압력을 가해 갈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년은 은이나 철로 만들었는데, 다마의 소재는 대개 돌(石)이었다. 다마의 대표적인 생산지로는 호남의 형산(衡山)이 있었고⁶⁶⁾ 이외에도 강서의 남안군(南安軍)에서 ‘장중금(掌中金)’이라고 불리던 다마가 생산되었다.⁶⁷⁾

남안軍 상유현에서 북으로 70리에 석문보와 소라촌에는 견고한 돌이 생산되는데 갈아서 다마를 만든다. 상등품은 장중금이라고 부른다. 소라촌 동남 30리에 동자보와 대당촌이 있는데 그 돌 또한 쓰임이 버금간다. 소라촌에서 생산하는 것도 좋은 것과 못한 것이 있는데 모름지기 물속에서 난 돌로 색이 빨모양을 한 것이 상품이다. 차를 갈면 사방 두루 균등하여 눈조각 같다. 툭니가 오래되어도 잘 갈린다. 건주까지 100여리인데 가격이 5천이 되는데 구하기도 힘들다. 세상에 대개 (형주)래양을 상품이라고 하고, 혹은 上猶에 이르지 못하나 (장중금은) 견고하고 작아 빠르다고 한다.⁶⁸⁾

차가 처음 정세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와 함께 정세가 되었던 다른 물품으로 죽목칠 등이 있었다. 특히 대나무의 경우 중국의 넓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일상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소재였다. 대나무의 용도는 건축뿐만 아니라 상품을 담아 운반하는 용기, 일상 용기 등 다양하였다. 다구 가운데서도 대나무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았다. 다배, 다통, 다선과 다기 세트를 담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도람(都籃)이 대표적으로 대나무 제품이였다. 구주(衢州)의 개화현(開化縣)은 산속의 후미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다통과 쇠자물쇠 제품이 유명하였다.⁶⁹⁾ 이 지역은 대나무와 철의 공급이 수월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다업과 음차가 유행하는 것을 계기로 다통 생산이 발전하였던 것이다.⁷⁰⁾

63) 黃庭堅, 「山谷簡尺」卷下, 「孟子已頷」庭堅頓首尋手 謨存問勤 至復損茶器四種 皆九江佳物也.

64) 周去非 「嶺外代答」卷6, 「茶具」雷州鐵工甚巧 製茶碾湯甌湯匱之屬 皆若鑄就 余以比之建寧所出 不能相上下也 夫建寧名茶所出 俗亦雅尚無不善分茶者 雷州方啜壺茶奚以茶器為哉.

65) 廖寶秀, 「宋代喫茶法與茶器之研究」(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96), pp.56-57.

66) 蘇軾, 「東坡全集」卷26, 「次韻董夷仲茶磨」前人初用茗飲時 煮之無問葉與骨 寢窮厥味白始用 復計其初碾方出 計盡功極至於磨 信哉智者能創物 破槽折杵向牆角 亦其遭遇有伸屈 歲久講求知處所 佳者出自衡山窟 巴蜀石工強鑄鑿 理疏性軟良可咄 予家江陵遠莫致 塵土何人為披拂.

67) 水野正明, 「宋代における喫茶の普及について」(『宋代の社會と宗教』, 東京: 汲古書院, 1985), pp.217-218.

68) 莊綽, 「雞肋編」卷下, 南安軍上猶縣北七十里 石門保小邏村出堅石 堪作茶磨 其佳者號掌中金 小邏之東南三十里 地名童子保大塘村 其石亦可用蓋其次也 其小邏村所出 亦有美惡 須石在水中 色如角者為上 其磨茶四周皆勻如雪片 齒雖久更開斷 去虔州百餘里價直五千足 亦頗艱得 世多稱來陽為上 或謂不若上猶之堅小而快也.

69) 莊綽, 「雞肋編」卷上 衢州開化山僻 人極粗魯 而製茶籠鐵鎖亦佳.

또한 송대에는 잔 받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잔탁의 소재는 칠기와 도자기가 주류였다. 따라서 잔탁의 사용 증가도 칠기와 도자기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음차 습관이 보급될수록 이들 다구의 수요도 증가하여 대나무 제조업, 칠기 등의 사업이 더욱 발전하였던 것이다.

또한 차의 생산 증가는 고용노동자를 증가시켰다. 송대 다원의 규모는 1~200斤을 생산하는 소규모 다원에서 3~5만근을 생산하는 대규모 다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⁷¹⁾ 대규모 다원의 경우 그 운영방식은 크게 조전(租佃)경영과 고공(雇工)경영으로 양분되었는데, 빈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동일하였다.⁷²⁾ 차는 그 수확기와 제품 가공에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작물이었으므로 아래 기사에 보이는 바와 같이 차잎을 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차를 가공하는 인력까지 고용되었다. 건계차장(建溪茶場)에서도 차를 따고 가공하는 人力으로 수천명이 고용되었고 이들에게 일당 70전이 지급되고 있었다. 사천의 구룡현(九隴縣)에서는 60문이 지급되었는데 식비는 제외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차를 따고 가공하는 노동자들이 현금을 지급받으며 다원에 다수 고용되고 있었다.

매년 춘동에 사람들을 고용해 立夏(음력 3월 27일)와 小滿(음력 4월 14일) 절기까지 김매고 잎을 따다. 또한 사람들을 고용해 때에 맞춰 차를 제조하였다.⁷³⁾

建溪茶場에서는……採茶工匠이 수천인이었고 每日 70錢을 지급하였다.⁷⁴⁾

光義 등이 인력을 고용해 매일 錢 60文을 지급하였는데 식비는 제외한 것이었다.⁷⁵⁾

이외에도 도자기 수요의 급증에 따라 도요가 급증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노동자 및 고용인들이 급증하였다. 도자기의 대량생산에 따라 많은 공인(工人)들이 제작에 종사하였고, 이들은 전문기술자로서 이전보다 향상된 생활을 영위하였다.⁷⁶⁾ 또한 음차의 보편화로 증가된 찻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화폐경제에 편입되었다. 『이견지(夷堅志)』 을권2, 「다복최삼(茶僕崔三)」에 의하면 황주(黃州) 시민 이십육이 소유한 다사에 경호(肩戶)로 최삼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의 월급은 1,000錢이었다고 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사조선록(使朝鮮錄)』을 통해 본 고려의 차 문화

각국의 차문화를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은 차 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각국 문화의 특색을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이웃 사료와 이웃의 문화를 통해 자국 문화의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려의 차 문화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송의 관련 자료를 통해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이 시기 양국의 차 문화가 많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조선록』에 실려 있는 송원시대 칙사자료는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이하 고려도경으로 약칭)』과 『사고려록』이 전부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중국 관료에 의한 최초의 고려전문보고서라고 하겠다. 1123년 5월 28년 제전과 조위를 겸해 파견된 송 국신사의 정·부사는 노윤적과 부목경이었으나 이들이 개별적으로 남긴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제할인선예물관으로 충원되어 사절단의 인원·선박·예물 등의 관리를 맡았던

70) 水野正明, 「宋代における喫茶の普及について」(『宋代の社會と宗教』, 東京: 汲古書院, 1985), p.219.

71) 呂陶, 「淨德集」卷1, 茶園人戶 多者歲出三五萬斤 少者只及一二百斤.

72) 孫洪升, 「唐宋茶業經濟」(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p.30.

73) 呂陶, 「淨德集」 권1 自來相承山壩茶園等業 每年春冬雇召人工鑄剗 至立夏并小滿時節 又雇召人工趁時採造茶貨.

74) 莊綽, 「雞肋編」卷下, 建溪茶場 採茶工匠幾千人 日支錢七十足.

75) 呂陶, 「淨德集」卷1, 「奏為官場買茶虧損園戶致有詞訴喧鬧事狀, 光義等 各為雇召人工 每日雇錢六十文 井口食在外.

76) 三上次男, 「宋磁と宋代陶磁」(『中國陶磁史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平成元年), pp.186-187.

서금이 총 3개월간의 국신사 일행의 고려 방문 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사조선록』에 실린 다른 칙사자료와 비교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려도경』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칙사자료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려도경』이지만 차와 관련된 기록은 여전히 단편적이다. 이를 통해 차의 상품성이라든가 중국차의 유통, 그리고 고려의 다구 등을 일면을 추론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차는 사신의 왕래와 상인의 활동을 통해 고려에 공급되고 있었는데 주로 복건산인 납차와 특히 용봉차를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⁷⁾ 『고려도경』 권6 연영전각(延英殿閣)에는 중국에 진공사로 다녀온 이자량이 하사품으로 받아온 물품 가운데 용봉명단(龍鳳茗團)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권26 관회(館會)에는 노윤적과 부목경이 낙빈정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송 조정에서 가져온 진기한 차(奇茶) 등 물품들을 보여주고 선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권32 다조(茶組)에 “(고려사람들은) 중국의 납차와 용봉단차를 귀중하게 여긴다. 하사해 준 것 이외에도 상인들이 역시 가져다 팔기 때문에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매우 좋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⁷⁸⁾

고려의 토산차는 『고려사』에 뇌원차(腦原茶)·대차(大茶)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도경』 권32 다조에도 “고려에서 생산되는 차는 맛이 쓰고 떨어 입에 덜 수 없다”고 하였듯이 고려의 토산차와 그 맛에 대한 평가가 있다. 송나라의 경우 회수(淮水) 이남지역의 2부(府) 82주(州) 13군(軍) 278현(縣) 2성(城)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풍부한 차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었고 다양한 차를 생산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차에 대한 중국사신의 평가는 야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차가 상품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다는 증거는 『고려사』 권79 식화지에 동전의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예외조항으로 차·술·먹거리 등을 파는 상점에서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 등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⁷⁹⁾ 『고려도경』 권33에도 먼 바다를 건너온 사절단 선박을 위해 식수를 싣고 맞으러 온 고려 사람들에게 보상을 차와 쌀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에서도 차가 쌀 등과 같이 상품성이 높은 물품임을 알 수 있다.

고려의 다구와 관련해서 서금은 고려의 다구 기술이 좋다고 평가하였고 금색 꽃 무늬의 검은 잔(金花鳥盞)·비색의 작은 사발(翡色小甌)·은제 화로와 솥(銀爐湯鼎) 등의 다구가 모두 중국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였다.⁸⁰⁾ 특히 검은색의 찻잔은 송대의 차 마시는 방법인 점차법(點茶法)과 잘 어울리는 다구이다. 『고려사』 최승로전에 “차를 간다(碾茶)”라는 기록이 있듯이 고려도 송조와 동일하게 가루차를 사용해 차를 마시던 점차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대 건주요(建州窯)의 검은색 잔(兔毫盞)이 점차법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던 것과 일치한다. 게다가 『고려도경』에 차를 마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지적이 없는 것도 이를 반증해 준다. 단 의례가 진행되는 연회에서 차를 모두에게 다 돌리고 나서야 마셨으므로 매번 식은 차를 마시게 된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이채롭다.

또한 사신단들은 숙소에서 매일 세 차례 차를 마셨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려사람들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사신단에 대한 예우이자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에 대한 배려로 이해된다. 차를 마신 후에 탕을 내는 것은 송대 민간 예법과 유사함이 있었다. 또한 이는 가루차를 마셨던 시기의 보편적인 습관이었을 것이다.

77) 중국 송대 차의 종류로는 편차와 산차가 있었고 납차는 편차의 한 종류였다. 납차는 복건 건주를 중심으로 생산되던 차로 납차는 일반적인 편차의 제조 방식과 구별되는 복건 특산이었다. 일반적으로 편차는 증제해서 모양틀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가운데를 찌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납차는 여기에서 차를 가는 과정이 들어가는 등 제조 방법도 특별하여 다른 곳에서는 제조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편차의 종류로는 용봉·석유·백유 등 12종이 있었다. 『宋史』 卷183 食貨志 第136 茶上, 茶有二類 曰片茶 曰散茶 片茶蒸造 實捲模中 串之 唯建劔 則既蒸而研 編竹為格 置焙室中 最為精潔 他處不能造 有龍鳳·石乳·白乳之類十二等 以充歲貢及邦國之用; 서은미, 『북송 차 전매 연구』(국학자료원, 1999) pp.60~62 참조.

78) 『선화봉사고려도경』 卷32 「茶組」, 惟貴中國臘茶 并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故邇來頗喜飲茶.

79) 『고려사』 권79 식화2, 用斷使錢之路 其茶酒食味等諸店交易 依前使錢外 百姓等私相交易 任用土宜.

80) 『선화봉사고려도경』 卷32 「茶組」, 益治茶具 金花鳥盞 翡色小甌 銀爐湯鼎皆竊效中國制度.

한국의 차 문화에 있어서 조선전기 차 문화의 쇠퇴는 기존 조선의 기록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료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제한적인 차의 생산과 유통 방식, 문인들에게 전유되었던 차문화, 불교의 쇠퇴라는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은 역으로 고려의 차문화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불교와 차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불교의 쇠퇴가 곧 생활문화인 차문화의 쇠퇴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는 불교의 쇠퇴기에 차문화는 또다른 도약적 발전을 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려의 차문화를 되짚어 보던가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조선시대 차문화의 쇠퇴를 바라보아야 하는 지점에 놓여있다. 이는 동일한 시기에 차문화가 계승발전되고 있었던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고려와 송 사이에 높았던 차 문화의 동질성이 조선과 명 사이에는 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조선전기 차 문화의 쇠퇴를 새롭게 조명해볼 수 있다.

이는 곧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고를 다음 기회를 통해 갖게 되기 기대해 본다.

주제발표 5

하사미(波佐見)의 청자

- 에도(江戸)시대를 중심으로 -

나카노유우지(中野雄二, 하사미교육위원회 학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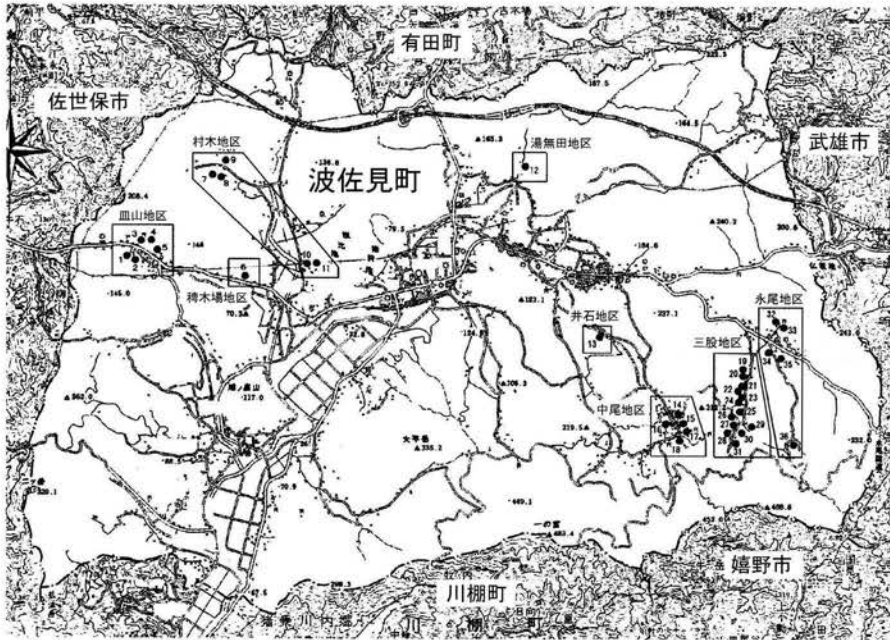
1. 머리말
2. 하사미 청자'의 각 연대별 특징
 - 1) 1610년대~1630년대
 - 2) 1630년대~1650년대
 - 3) 1650년대~1680년대
 - 4) 1680년대~1740년대
3. 정리

I. 머리말

하사미초(波佐見町)는 나가사키현(長崎県)의 중앙 북부에 위치하며 '미카와찌 도자기(三川内焼)'로 유명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長崎県 佐世保市)와 '아리타야키(有田焼)'로 유명한 사가현 아리타초(佐賀県 有田町)와 인접해 있다.

하사미 요업은 지금부터 400년 전, 아즈치·모모야마시대 말기부터 에도시대 초, 도기 생산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바로 자기의 원료가 되는 '도석(陶石)'의 발견과 조선인 도공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본내에서도 가장 이른 단계에서 자기 생산에 성공하게 된다. 이후 오무라번(大村藩)의 보호 아래, 인접한 미카와찌(히라도번, 平戸藩), 아리타(사가번, 佐賀藩)와 함께 일본내 자기 생산의 거점으로 발전하였다. 에도 후기에는 전체 길이가 170m인 세계 최대 규모의 오오신노보리(大新登(おおしんのぼり)) 가마를 비롯하여 총길이가 100m를 넘는 거대 가마 8기를 동시에 가동하여 서민용 자기를 대량 생산하였다. 메이지시대 이후에도 요업은 계속되어 현재 일본 전통 식기 출하액은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에도시대의 하사미 요업을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인 '청자'를 중심으로 연대 별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向平窯跡	7 畑ノ原窯跡	13 長田山窯跡	19 咽口窯跡	25 三股本登窯跡	31 三股新登窯跡
2 皿山本登窯跡	8 古皿屋窯跡	14 中尾下登窯跡	20 咽口新窯跡	26 三股上登窯跡	32 永尾本登窯跡
3 高尾窯跡	9 山似田窯跡	15 中尾上登窯跡	21 仕立窯跡	27 貢窯跡	33 永尾高麗窯跡
4 深川内窯跡	10 百貫西窯跡	16 白岳窯跡	22 三股下窯跡	28 鳥居窯跡	34 智恵治窯跡
5 辺後ノ谷窯跡	11 百貫東窯跡	17 大新窯跡	23 三股青磁窯跡	29 実窯跡	35 中原窯跡
6 下稗木場窯跡	12 鳥越窯跡	18 広川原窯跡	24 三股古窯跡	30 三股上窯跡	36 木場山窯跡

도1 하사미초 내 고요적(古窯跡) 분포도

II. '하사미 청자'의 각 연대별 특징

1) 1610년대~1630년대

이 시기에 들어서 하사미에서는 처음으로 자기가 생산되었고 동시에 청자도 생산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로 인한 출토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아 당시 청자 생산은 소규모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생산 가마

하타노하라요(畑ノ原窯) <국가사적> [佐々木編1988], 후루사라야요(古皿屋窯) [中野1994], 야마니타요(山似田窯) [宮崎·村川1993]가 있다.

② 기종·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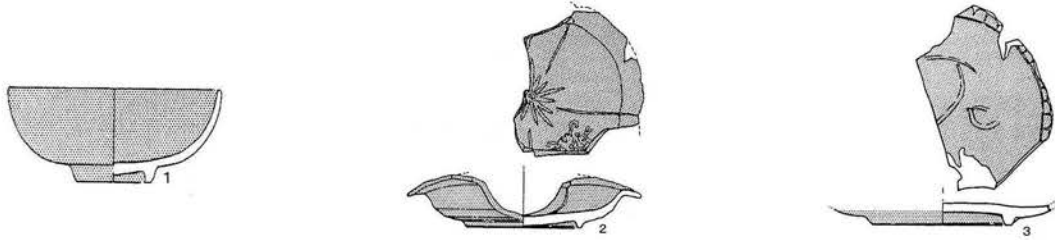
기종은 완, 접시가 있고, 기형은 완의 경우, 둥근형(도2-1), 접시는 절연형(折縁形, 구연이 꺾인 형태, 도2-2)이 있다.

③ 유조

광택이 있으며 매우 옅은 물빛을 띠는 것과 투명하면서 짙은 청록색을 띠는 것이 있다.

④ 기법·장식 등

접시는 청화나 백자와 마찬가지로 틀로 성형되거나 시문(施文) 된 것이 많으며 문양은 양각(陽刻)으로 나타난다(도 2-2). 한 점에서 편절조(片切り彫り)에 의한 음각(陰刻) 시문이 확인된다(도 2-3).



도 2 1610년대~1630년대의 청자
(1 : 하타노하라요(畑ノ原窯), 2 : 야마나타요(山似田窯), 3 : 후루사라요(古皿屋窯) S=1/4)

2) 1630년대~1650년대

이 시기부터 하사미 요업은 본격적으로 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청자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다. 청자는 다양한 기법을 구사한 우수한 제품이 많았으며 당시 일본내 최고 수준의 청자가 생산되었다.

① 생산 가마

미즈노마타 청자요(三股青磁窯) <국가사적> [中野 1998], 미쓰마타 고요(三股古窯) [中野 1994]가 있다.

② 기종·기형

기종은 다양하여서, 완(도 3-4)·발(도 3-5)·접시(도 3-6)·항로(도 3-7)·불반기(도 3-8)·천목대(도 3-9)·병(도 3-10) 등이 있다. 또한 기형도 종류가 많아 다양한 형상이 나타난다.

③ 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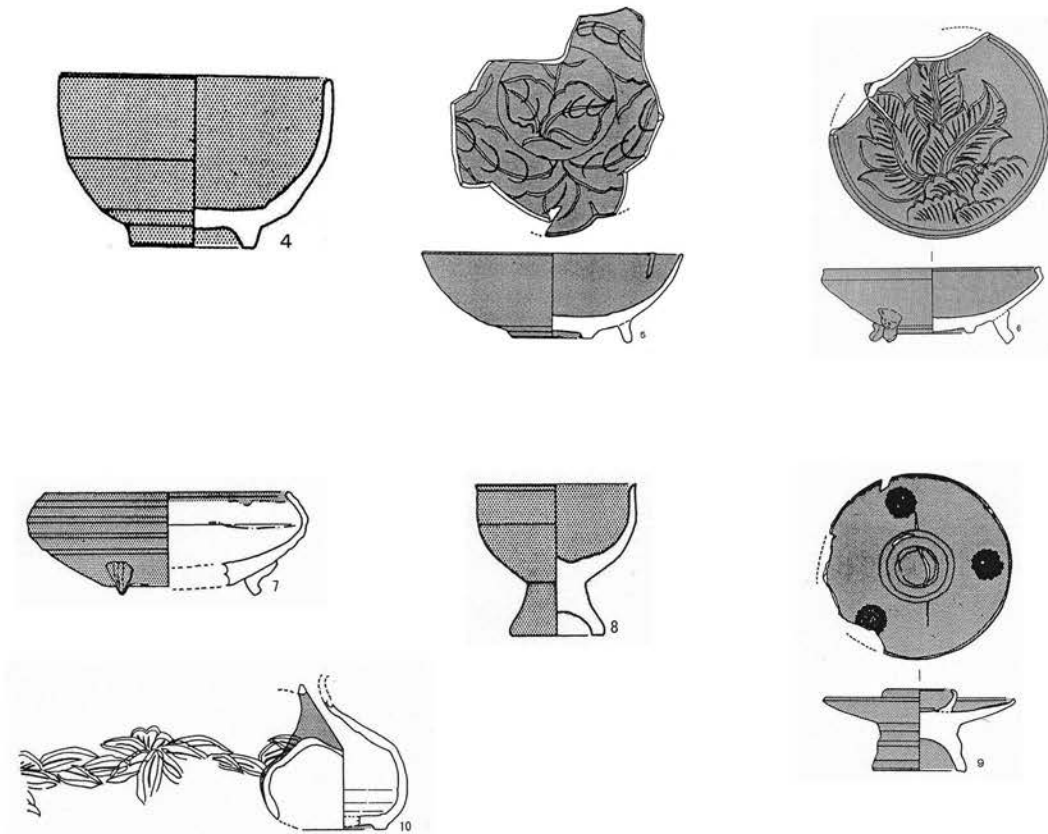
광택이 있으면서 물빛이 조금 섞인 옅은 청록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기법·장식 등

선조(線彫)·편절조(片切り彫り)·인화(印花)에 의한 음각 시문이 중심이지만 틀에 의한 양각 시문, 첩화(貼花) 등 다양한 기법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식에서는 청자와는 다른 종류의 유약을 이용한 이중시유(청자청화·청자철유·청자진사)가 보인다. 문양은 초화계 문양이 주류지만 봉황문과 어문 등도 조금 보인다.

⑤ 소비지 유적

미야기현 센다이성 유적(宮城県 仙台城跡,金森 1999), 도쿄도 시오도메 유적(東京都 汐留遺跡, 東京都教育文化財団 1997), 시가현 히코네성 가로저택부지 유적(滋賀県 彦根城 家老屋敷跡, 滋賀県立近江風土記の丘資料館編 1990), 나라현 나라봉행소 유적(奈良県 奈良奉行所 跡,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編 1984) 등 기본적으로 부유층 주거지에서 출토된 사례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당시 고가로 거래되었던 고급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3 1630년대~1650년대 청자 (4~10 : 미쓰노마타 청자요(三股靑磁窯) S=1/4)

3) 1650년대~1680년대

이 시기에 하사미 요업은 동남아시아 해외수출품을 중심으로 생산한다. 청자도 수출품이 많이 보이지만 동시에 내수용 제품도 양산되었다.

① 생산 가마

수출품은 고바야마요(木場山窯) [宮崎 외1993], 내수용은 나카오우와노보리요(中尾上登窯) <국가사적> [中野 2008] 등이 있다.

② 기종·기형

수출품은 발과 구경이 30cm 이상으로 큰 접시(도4-11) 등이 있다. 큰 접시의 기형은 둥근형, 또는 절연형(折縁形)이 많다. 내수용은 완(도4-12)·접시·향로(도4-13) 등이 있다. 전 시기에 비해 기종과 기형의 종류가 적어졌다.

③ 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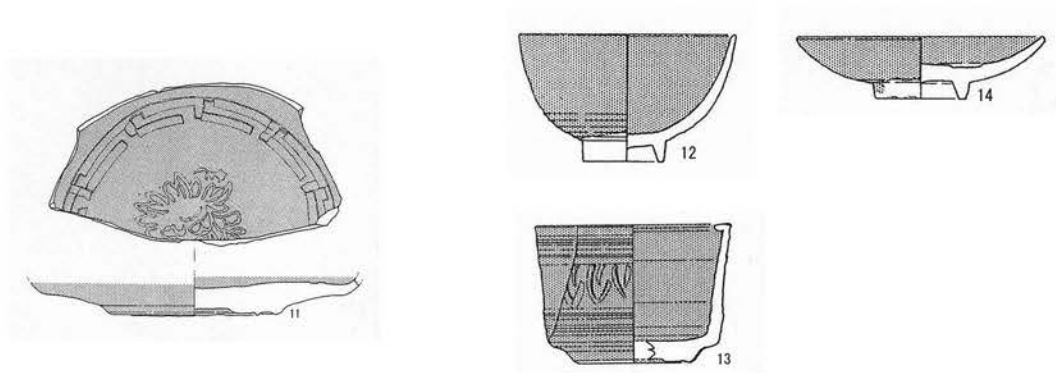
수출품은 투명하면서 청록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수용은 광택이 있는 물빛 계통의 것이 많다.

④ 기법·장식 등

수출품은 선조·편절조·인화 등에 의한 음각 시문이 중심이며, 전 시기에 보이던 다양한 기법은 사라진다. 또한 다른 종류의 유약을 이용한 이중시유도 거의 볼 수 없다. 문양은 초화계 문양이 중심이다. 특이한 기법으로는 굽 안바닥에 도넛 모양으로 유약을 닦아내고, 그 곳에 ‘챗츠(チャツ)’라고 불리는 요도구를 받쳐서 소성한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중국 저장성 용천요(浙江省 龍泉窯) 자기에서 볼 수 있는 기법이다. 내수용의 경우에, 몇 겹으로 쌓아서 포개 구이를 하기 때문에 내면 바닥에 도넛 모양으로 유약을 닦아내고 굽다리에 시유하지 않고 굽는 접시(도 4-14)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⑤ 소비지 유적

수출청자인 큰 접시는 일본내에서 출토예가 없으며, 인도네시아의 빠사르 이칸(Pasar Ikan) [三上1982], 반텐 라마(Ban ten Lama) 유적[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編 1990], 반텐 티르타야사(Ban ten Tirtayasa) 유적[坂井 외2000] 등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또한 터키의 톱카프(Topkapi) 궁전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大橋 1998]. 내수용 제품은 전국에 있는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 4 1650년대~1680년대 청자
(11·13 : 고바야마요(木場山窯), 12·14 : 나카오우와노보리요(中尾上登窯), S=1/4)

4) 1680년대~1740년대

이 시기에 하사미 요업은 해외수출품에서 내수용 제품으로 생산체제가 전환되었다. 청자도 수출품은 전혀 없으며 내수용만 남게 된다. 또한 하사미에서 청자가 주로 생산된 가마는 이 시기가 마지막이었다.

① 생산 가마

나가타야마요(長田山(ながたやま)窯) <국가사적> [中野 1997]가 있다.

② 기종·기형

발(도 5-15)·접시(도 5-16)·향로(도 5-17)·병(도 5-18) 등이 있다. 전 시기에 보였던 완, 수출용 큰 접시, 포개구이한 청자접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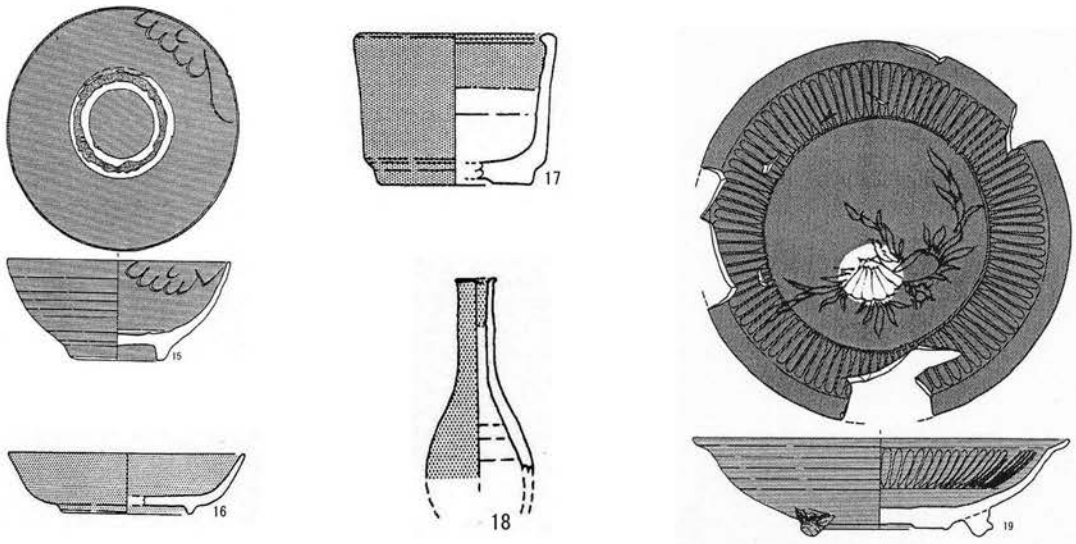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투명하면서 청록색을 띠는 것이 많다.

④ 기법·장식 등

선조(線彫)·편절조(片切り彫り)등 음각 시문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1690~1700년대 초를 중심으로 청자청화접시(도5-19)가 대량으로 생산된다. 청자청화접시는 부분적으로 모양 부분만 하얗게 하는 등 세심하게 작업한 것이 많다.

⑤ 소비지 유적

청자청화접시는 도쿄도 산에이초 유적(東京都 三栄町 遺跡)[東京都新宿区教育委員会編, 1988], 도쿄도 시바리궁 정원 유적(東京都 芝離宮 庭園 遺跡)[舊芝離宮庭園調査団編 1988] 등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청자청화접시는 당시 고급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과 향로는 전국에 있는 소비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도5 1680년대~1740년대 청자
(15~ 19: 나가타야마요(長田山窯) S=1/4)

5) 1740년대~1860년대

1740년대 이후, 하사미에서는 청화 제품이 생산의 중심이 되었으며 청자 생산은 쇠퇴해 간다. 청자유(靑磁釉)는 완과 접시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시도되는 정도였으며 전면에 청자유를 시유한 것은 불구(佛具)로 사용된 화병(花瓶)뿐이었다.

Ⅲ. 맺음말

이상 하사미 청자를 연대별로 살펴보았다. 1600년대 초부터 소규모이지만 청자생산이 시작되었으며 1600년대 전반에는 매우 우수한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그 후,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전반에 걸쳐 특징있는 수출품을 비롯하여 일본 내수용의 대량생산품 및 고급품 등을 생산하였지만 1700년대 중반 이후 청자생산은 급격히 쇠퇴해 간다.

이처럼 지금까지 실시해 온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하사미 청자생산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한반도 및 중국과의 기술적인 연관성을 비롯하여 청자생산의 쇠퇴 요인, 소비자 성격 등 다양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향후에도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상과 같은 과제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 大橋康二, 「トルコで発見した肥前の청자」, 『目の眼』 259, 里文出版, 1998
- 金森安孝, 「仙台城本丸の発掘調査」, 『考古学ジャーナル』 442, ニュー・サイエンス社, 1999
- 旧芝離宮庭園調査団, 『旧芝離宮庭園』, 旧芝離宮庭園調査団, 1988
- 坂井隆, ナニッ・H・ウィピソノ, 『バンテン・ティルタヤ사遺跡発掘調査報告書』 上智大学アジア文化研究所・国立考古学研究センター, 2000
-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編, 『国内出土の肥前陶磁』,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 1984
-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編, 『海を渡った肥前のやきもの展』,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 1990
- 佐々木達夫編, 『畑ノ原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1988
- 滋賀県立近江風土記の丘資料館編, 『出土品に見る江戸時代の生活－彦根城家老屋敷出土品を中心に－』, 滋賀県立近江風土記の丘資料館, 1982
- 新宿区教育委員会編, 『三栄町遺跡』, 新宿区教育委員会, 1988
- 東京都教育文化財団編, 『汐留遺跡』, 東京都埋蔵文化財センター, 1997
- 中野雄二, 『下稗木場窯跡・三股古窯跡・永尾高麗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1994
- 中野雄二, 『古皿屋窯跡・鳥越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1995
- 中野雄二, 『長田山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1997
- 中野雄二, 『三股青磁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1998
- 中野雄二, 『中尾上登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2003
- 三上次男, 「バサリカン遺跡出土の貿易陶磁」, 『貿易陶磁研究』 No.2, 日本貿易陶磁研究会, 1982
- 宮崎貴夫・村川逸朗, 『波佐見町内古窯跡群調査報告書』, 波佐見町教育委員会, 1993

波佐見の青磁

－江戸時代を中心とし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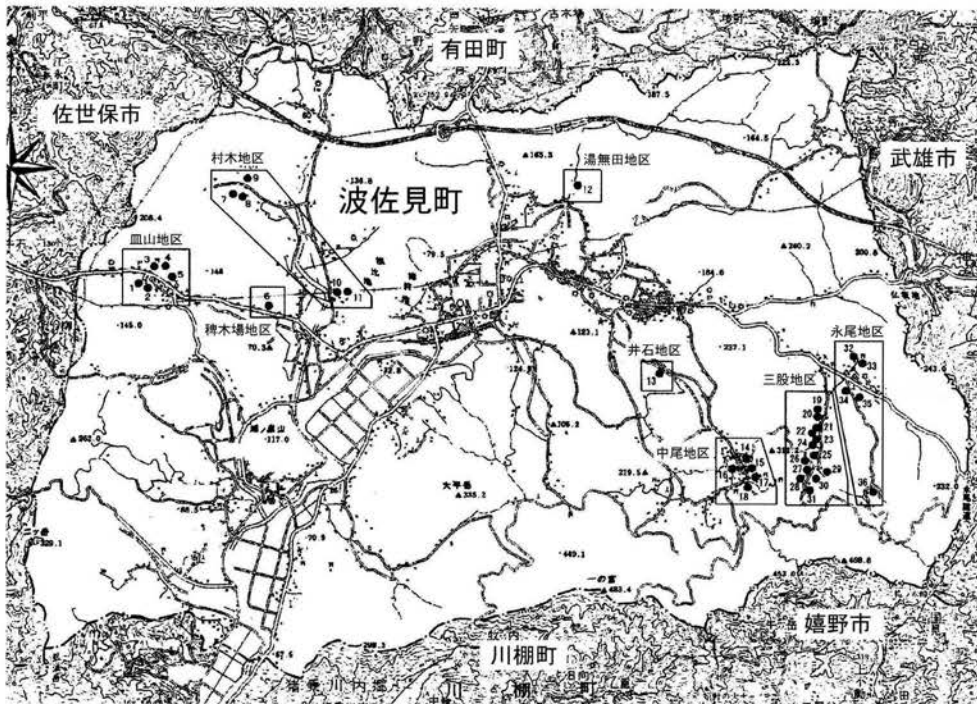
中野雄二(波佐見町教育委員会 学芸員)

I. はじめに

波佐見町は長崎県の中央北部に位置し、「三川内焼」で名高い長崎県佐世保市、また、「有田焼」で著名な佐賀県有田町に隣接している。

波佐見における窯業は、今から400年前、安土・桃山時代末期から江戸時代初期頃に陶器生産で幕を開け、その後ただちに、磁器の原料となる「陶石」の発見や朝鮮人陶工の技術導入により、国内で最も早い段階に磁器生産に成功する。以降、大村藩の庇護の元、隣接する三川内(平戸藩)、有田(佐賀藩)と並ぶ国内磁器生産の拠点として発展を遂げた。江戸後期には、全長170mを測る世界最大規模の大新登(おおしんのぼり)窯をはじめ、全長100mを越える巨大窯が8基同時に稼働し、国内庶民向けの磁器製品を大量に生産していた。明治時代以降も窯業は継承され、今日、和食器の出荷額は全国3位の実績を誇っている。

本稿では、江戸時代の波佐見窯業を代表する製品のひとつである「青磁」を取り上げ、年代毎にその特徴等をまとめていきたい。



1 向平窯跡	7 畑ノ原窯跡	13 長田山窯跡	19 咽口窯跡	25 三股本登窯跡	31 三股新登窯跡
2 皿山本登窯跡	8 古皿屋窯跡	14 中尾下登窯跡	20 咽口新窯跡	26 三股上登窯跡	32 永尾本登窯跡
3 高尾窯跡	9 山似田窯跡	15 中尾上登窯跡	21 仕立窯跡	27 真窯跡	33 永尾高麗窯跡
4 深川内窯跡	10 百貫西窯跡	16 白岳窯跡	22 三股下窯跡	28 鳥居窯跡	34 智恵治窯跡
5 辺後ノ谷窯跡	11 百貫東窯跡	17 大新窯跡	23 三股青磁窯跡	29 夷窯跡	35 中原窯跡
6 下神木場窯跡	12 鳥越窯跡	18 広川原窯跡	24 三股古窯跡	30 三股上窯跡	36 木場山窯跡

図1 波佐見町内古窯跡分布図

II. 「波佐見の青磁」 各年代の特徴

1. 1610年代~1630年代

この年代、波佐見ではじめて磁器が生産され、青磁も同時に生産される。ただし、発掘調査による出土量はわずかであり、当年代の青磁生産は小規模な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① 生産窯

畑ノ原(はたのはら)窯<国史跡> (佐々木編1988)・古皿屋(ふるさらや)窯 (中野1994)・山似田(やまにた)窯 (宮崎・村川1993) がある。

② 器種・器形

器種では、碗・皿がある。器形は、碗では丸形(図2-1)のみ、皿では折縁形(図2-2)がみられる。

③ 釉調

光沢を持ち非常に薄い水色のもの、失透気味で濃い青緑色のものがある。

④ 技法・装飾等

皿は、染付・白磁と同様、型打ちによって成形・施文されたものが多く、文様は陽刻であらわされている(図2-2)。1点のみ、片切り彫りによる陰刻施文(図2-3)が認めら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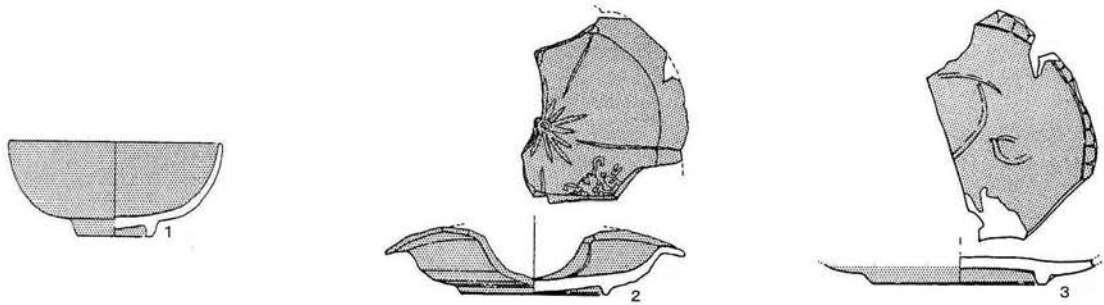


図2 1610年代~1630年代の青磁 (1:畑ノ原窯, 2:山似田窯, 3:古皿屋窯 S=1/4)

2. 1630年代~1650年代

この年代に入ると、波佐見窯業は磁器生産を本格的に開始し、とくに青磁を中心とした生産を行う。青磁は様々な技法を駆使した優品が多く、当時、国内最高水準の青磁が生産されていたと言える。

① 生産窯

三股青磁(みつのまたせいじ)窯<国史跡> (中野1998)・三股古(みつまたふる)窯 (中野1994) があげられる。

② 器種・器形

器種は豊富であり、碗(図3-4)・鉢(図3-5)・皿(図3-6)・香炉(図3-7)・仏飯器(図3-8)・天目台(図3-9)・瓶(図3-10)などがみられる。また、器形もバリエーションに富み様々な形状のものが認められる。

③ 釉調

光沢を持ち水色がかった淡青緑色を呈するものが一般的である。

④ 技法・装飾等

線彫り・片切り彫り・印花による陰刻施文が中心であるが、型打ちによる陽刻施文、貼花など様々な技法がみられ、また、以上が複合的に用いられている。釉装飾では、青磁と別種釉薬との掛け分け(青磁染付・青

磁鉄釉・青磁辰砂) がみられる。文様は、草花系の文様を中心とするが、鳳凰文や魚文なども若干みられる。

⑤ 消費地遺跡

宮城県仙台城跡(金森1999), 東京都汐留遺跡(東京都教育文化財団編1997), 滋賀県彦根城家老屋敷跡(滋賀県立近江風土記の丘資料館編1990), 奈良県奈良奉行所跡(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編1984) など, 基本的に富裕層の住居跡から出土した事例が多いことから, 当時, 高価な値段で取引されていた高級品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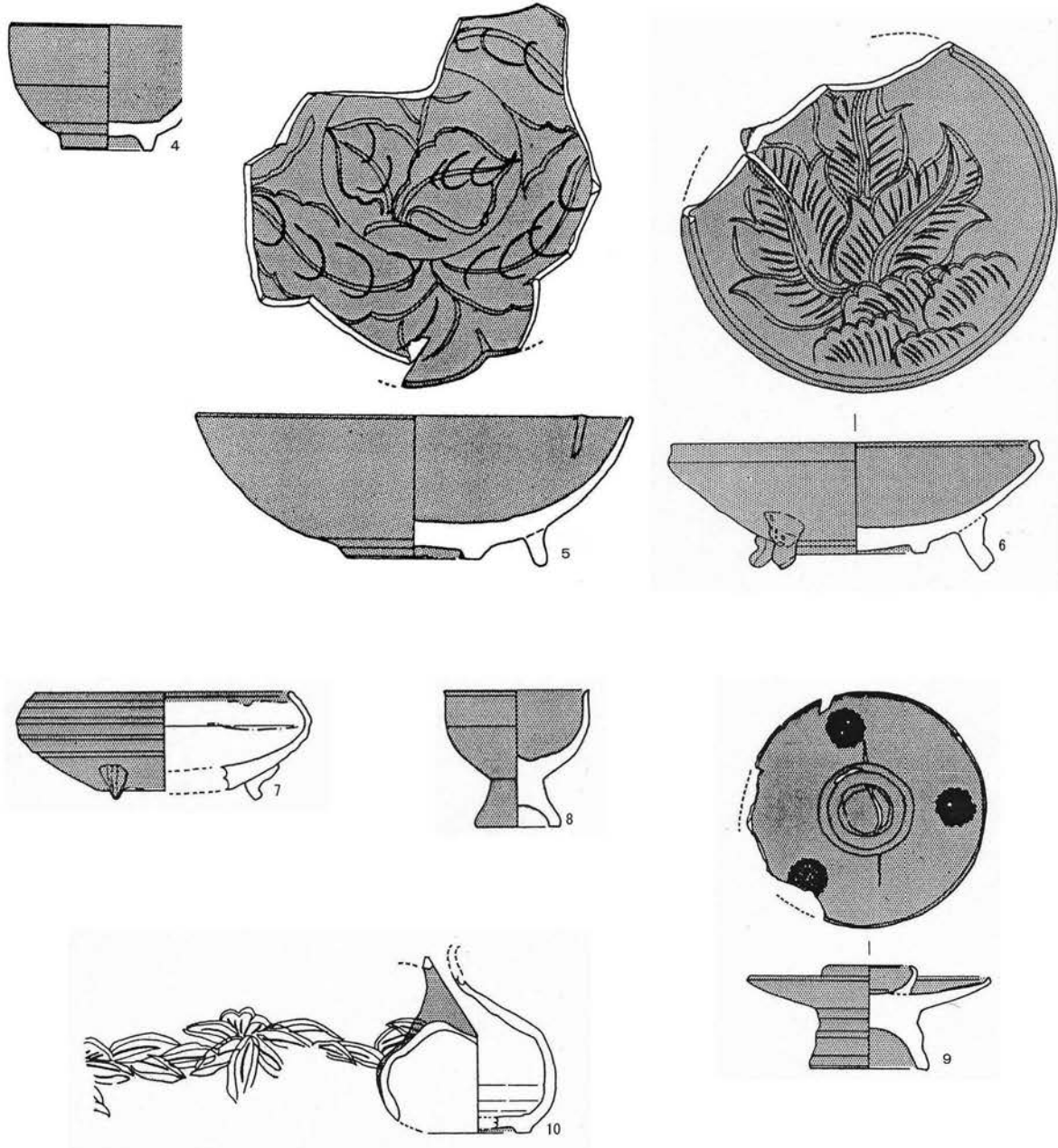


図3 1630年代~1650年代の青磁(4~10:三股青磁窯 S=1/4)

3. 1650年代~1680年代

この年代、波佐見窯業は東南アジア向けの海外輸出品を主体的に生産する。青磁も輸出品が顕著にみられるが、同時に、国内向けの量産品も生産されている。

① 生産窯

輸出品では木場山(こばやま)窯(宮崎ほか1993)、国内向けでは中尾上登(なかおうわのぼり)窯<国史跡>(中野2008)などがあげられる。

② 器種・器形

輸出品は、鉢や口径30cmを越える大皿(図4-11)などがみられる。大皿の器形は丸形、もしくは折縁形が多い。国内向けでは、碗(図4-12)・皿・香炉(図4-13)などがみられる。前代と比べ、器種・器形のバリエーションは乏しくなる。

③ 釉調

輸出品は、失透気味で青緑色を呈するものが一般的である。国内向けは、光沢のある水色系のものが多い。

④ 技法・装飾等

輸出品では、線彫り・片切り彫り・印花による陰刻施文が中心となり、前代でみた様々な技法はみられなくなる。また、別種釉薬との掛け分けもほぼなくなる。文様は草花系の文様が中心。特記すべき技法として、高台内をドーナツ状に釉剥ぎし、そこに「チャツ」と呼ばれる窯道具をあてて焼成したものがあらわれる。これは中国浙江省龍泉窯の製品にみられる技法である。国内向け製品では、重ね焼きを行うため、内面中央部をドーナツ状に釉剥ぎし、高台部を無釉にした皿(図4-14)が大量に生産されている。

⑤ 消費地遺跡

輸出青磁大皿は、国内の出土事例は無く、インドネシアのバサール・イカン遺跡(三上1982)、バンテン・ラーマ遺跡(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編1990)、バンテン・ティルタヤサ遺跡(坂井ほか2000)など、インドネシアを中心に出土している。また、トルコのトプカプ宮殿に所蔵が確認されている(大橋1998)。国内向け製品については、全国の多くの遺跡で出土が報告さ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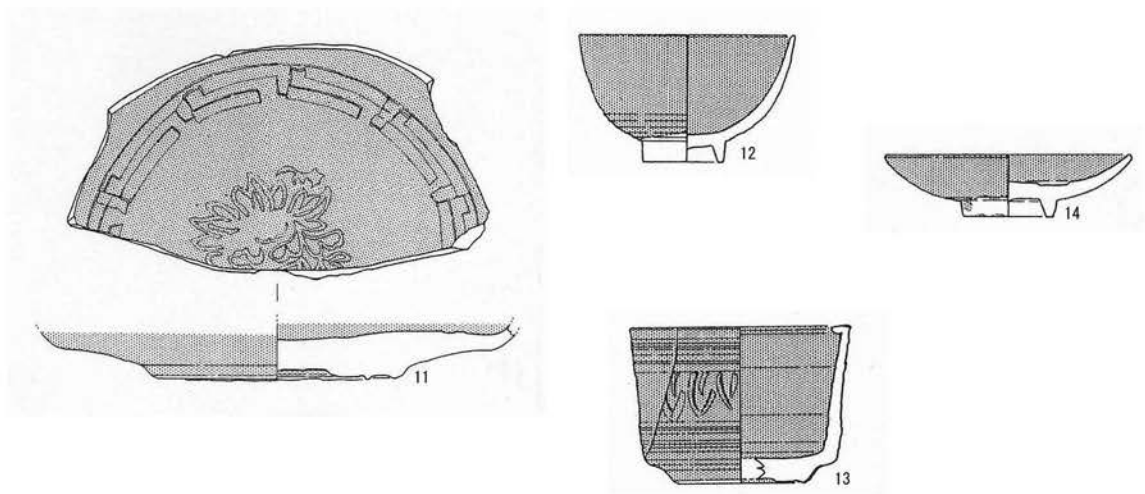


図4 1650年代~1680年代の青磁(11・13:木場山窯, 12・14:中尾上登窯 S=1/4)

4. 1680年代~1740年代

この年代、波佐見窯業は、海外輸出品から国内向け製品へ生産体制を転換させた。青磁も、輸出品は皆無となり、国内向けのみとなる。なお、波佐見において、青磁を主体的に生産した窯がみられるのはこの年代までである。

① 生産窯

長田山(ながたやま)窯<国史跡> (中野1997) があげられる。

② 器種・器形

鉢(図5-15)・皿(図5-16)・香炉(図5-17)・瓶(図5-18)などがみられる。前代でみた、碗・輸出用大皿・重ね焼きの量産青磁皿は姿を消す。

③ 釉調

基本的に失透気味で青緑色を呈するものが多い。

④ 技法・装飾等

線彫り・片切り彫りなどの陰刻施文を基本とする。なお、1690~1700年代初頭を中心に青磁染付皿(図5-19)が多く生産される。青磁染付皿は部分的に白抜きするなど、手の込んだものが多い。

⑤ 消費地遺跡

青磁染付の皿は、東京都三栄町遺跡(東京都新宿区教育委員会編1988)、東京都芝離宮庭園遺跡(旧芝離宮庭園調査団編1988)などで出土している。この青磁染付皿は出土状況から見て当時高級品であったとみられる。鉢や香炉等については、全国の消費地遺跡で出土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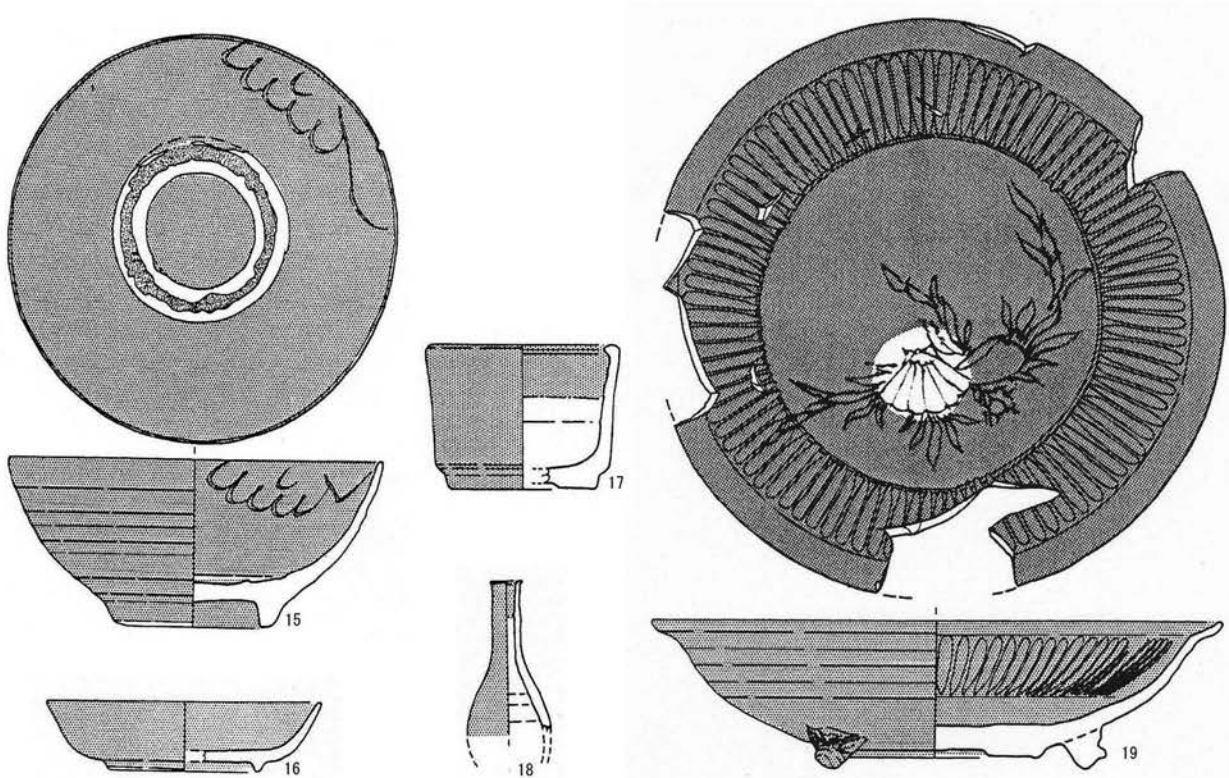


図5 1680年代~1740年代の青磁(15~19:長田山窯 S=1/4)

5. 1740年代 ~ 1860年代

1740年代以降、波佐見では染付製品の生産が主体となり、青磁生産は衰退していった。青磁釉は、碗や皿の一部に部分的に施される程度となり、全面に青磁釉をかけたものとしては、わずかに、仏花瓶がみられるのみとなる。

Ⅲ まとめ

以上、波佐見の青磁を年代毎に概観した。1600年代初頭の磁器生産開期には小規模ながら青磁生産を開始し、次の1600年代前半には非常に優れた製品を世に送り出した。その後、1600年代後半から1700年代の前半にかけて、特徴のある輸出品や国内向けの量産品及び高級品などを生産したが、1700年代中頃以降、青磁生産は急速に衰退していった。

このように、これまでの調査・研究によって、波佐見における青磁生産の大まかな流れは把握できるようになったが、同時に、朝鮮半島や中国との技術的な関連性をはじめ、青磁生産衰退の要因、消費者の性格など、様々な課題が残されている。今後も調査・研究を続け、以上の課題の解明に努めていきたい。

参考文献

- 大橋康二1998 「トルコで発見した肥前の青磁」 『目の眼』 259 里文出版
 金森安孝1999 「仙台城本丸の発掘調査」 『考古学ジャーナル』 442 ニュー・サイエンス社
 旧芝離宮庭園調査団1988 『旧芝離宮庭園』 旧芝離宮庭園調査団
 坂井隆, ナニッ・H・ウィピソノ2000 『バンテン・ティルタヤサ遺跡発掘調査報告書』 上智大学アジア文化研究所・国立考古学研究センター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編1984 『国内出土の肥前陶磁』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編1990 『海を渡った肥前のやきもの展』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
 佐々木達夫編1988 『畑ノ原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滋賀県立近江風土記の丘資料館編1982 『出土品に見る江戸時代の生活－彦根城家老屋敷出土品を中心に－』 滋賀県立近江風土記の丘資料館
 新宿区教育委員会編1988 『三栄町遺跡』 新宿区教育委員会
 東京都教育文化財団編1997 『汐留遺跡』 東京都埋蔵文化財センター
 中野雄二1994 『下稗木場窯跡・三股古窯跡・永尾高麗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中野雄二1995 『古皿屋窯跡・鳥越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中野雄二1997 『長田山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中野雄二1998 『三股青磁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中野雄二2008 『中尾上登窯跡』 波佐見町教育委員会
 三上次男1982 「バサリカン遺跡出土の貿易陶磁」 『貿易陶磁研究』 No.2 日本貿易陶磁研究会
 宮崎貴夫・村川逸朗1993 『波佐見町内古窯跡群調査報告書』 波佐見町教育委員会

주제발표 6

중국 도자기의 정수, 용천청자

천시엔린(陳現林, 중국도자예술대사)

1. 머리말
2. 용천청자의 역사 변천과 위상
3. 용천청자의 예술적 특징
4. 발전을 거듭하는 현대 용천청자
5. 맺음말

1. 머리말

만약 한 민족의 문명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라고 한다면 도자기는 빠질 수 없을 것이다. 한 문명의 의미와 깊이를 묘사하는 것에는 다양한 시각과 척도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과 '예술'이라는 이 두 방면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문명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문명으로 발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고대 도자기는 기술과 예술의 가장 완벽한 결합이자 조화로 중국의 고대 도자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중화문명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도자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창작이자, 이 '하늘과 땅이 놀라고 귀신도 울고 갈만한' 기물이 서방에 전해졌을 때 그저 천연석에 조각을 가한 것으로 여겼지, 그 누구도 하느님이 흙으로 아담과 이브를 지은 것 외에 흙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번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듯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중국 도자기는 화하(華夏) 민족의 지혜의 결정체인 것이다.

도기에서 자기로 발전한 것은 청자의 번조를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청자는 오색찬란한 색채의 세계를 열었다. 청색, 청록색, 청취(靑翠)색은 중화민족이 예로부터 가장 사랑해 왔던 색깔로, 순박한 민풍의 상징이자 인류 철학의 고매한 경지를 담아내는 단정하고 소박하면서도 영롱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의 빛깔이다.

중국 용천(龍泉)은 절강성 서부지역 북위 27. 42'~28. 20', 동경 118. 42'~119. 25' 사이에 있으며, 용천에 가 본 도예가라면 그 곳에 들어서자마자 굽이굽이 이어진 산과, 푸르른 대나무, 그 사이사이를 휘돌아 감으며 흐르는 맑은 구강이 이 지역 사람들의 젖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용천의 산천초목 그 한

가운데 서 있다면 용천청자가 빚어내는 신비로운 청취색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역사와 매력, 세월의 유구함을 한 번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용천의 푸른 자연이 용천청자의 청록 세계를 빚어냈음을 느낄 수 있다.

1700년 전 삼국양진(三國兩晉) 때부터 용천지역에서 청자가 제작되기 시작해서 대대로 청자를 번조했다. 용천청자는 단색유 자기의 주요 품종 중 하나로 이곳에서 탄생해 절강성 남부와 동부, 복건성, 강서성(江西) 등지로 퍼져나갔고, 점차 방대한 청자요계를 이루게 된다. 용천청자는 중국 고대 도자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분포지역이 가장 넓고,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명성이 가장 높아서 많은 영향을 미친 청자이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도자기계와 예술계, 컬렉터계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아들인 중국 고대 도자의 정수이자 세계문화유산의 찬란한 진주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위대한 예술품이다.

2. 용천청자의 역사 변천과 위상

용천청자는 가마터가 절강성 용천 지역에서 시작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용천은 진대(晉代)부터 용연향(龍淵鄉)이라 불렀고, 당나라 초기에는 용천향(龍泉鄉)으로 바뀌었으며, 당대 건원(乾元) 2년(759)에 현이 세워졌고 신 중국 설립 이후 용천현(龍泉縣)이었다가 1990년 12월 현에서 용천시(龍泉市)로 승격되었다.

용천청자가 시작된 연대는 삼국양진(三國兩晉) 시대로 고고학 발굴로 증명되었으며, 용천 지역에서 삼국양진 시대부터 청나라 후기까지 청자 요지(窯址)가 500여 곳이 발굴되었다. 용천시 내에만 360곳이 발견되었는데 삼국양진시대에 만들어진 관(罐), 호(壺), 완(碗), 발(鉢), 수우(水盂) 등의 기물이 출토되었다. 당대~오대에는 시기에는 용천 금촌(金村), 유전(琉田)[지금의 대요(大窯)] 등지에 도자 제조업이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다. 오대 말~북송에 걸친 시기에 용천의 도자 제작은 구요(甌窯)와 무요(婺窯)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크게 발전하였고, 982년 송 태종이 진전승지(殿前承旨) 조계(趙濟)를 보내 월주와 용천의 도자 제작 업무를 감독하게 했다는 것만 보아도 당시 용천의 도자 제작이 조정의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남송대에 이르러 항주(杭州)로 천도하면서 한족(漢族)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어 용천은 궁정 소용 자기의 중심 산지로서 공납자기를 대량 생산하였다. 용천청자를 사용하는 것이 모든 고위 관료나 귀족들에게는 영광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시기 용천현의 남동쪽 구강(甌江)의 양쪽 연안에 새로운 자기 가마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가마터가 260여 곳에 달했다. 용천현지(龍泉縣志)에도 “구강 양변, 자기 가마가 밀집하여 연기가 끊이질 않고, 강에는 도자기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 설 새 없이 드나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사학자이면서 일본 무역도자기연구회장 미가미 쓰기오(三上次男) 박사는 그의 저서 『도자지로(陶器之路)』에서 “중국은 오대~송대(907~1270) 시기에 사회가 안정되어 도자기 생산이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맞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생산된 도자기를 보면 품질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출현했다. 이 시기부터 청자 생산의 중심지는 절강성 용천으로 옮겨갔고, 그 푸르름이 맑은 가을 하늘을 떠올리게 하고, 평온한 심해의 푸른빛을 닮은 세계적인 이름의 용천청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용천청자는 남송 중만기에 최고 전성기로, 품질도 정점에 달하였으며, 방대한 용천요계를 이루게 되고 전국적인 자기 제작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명한 역사지리학자인 구 항주대학(原 杭大) 첸차오이(陳橋驛) 교수는, “천년 여 동안 이 현(용천)은 우수한 품질로 우리에게 막대한 유산을 돌려주었고, 독창적인 다량의 청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라고 했다. 중국 동남 연해 각 항구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인도양 해안인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홍해, 동부아프리카 연안까지, 용천청자의 발자취가 없는 곳이 없으며, 이 길고 긴 ‘도자의 길’은 바로 중국 도자, 특히 용천 청자가 개척해 낸 것이다.

원대 초·중기는 용천청자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전성기로 남송 말기 용천청자의 수준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다량의 대형 기물이 제작되었고 독창성을 잃지 않았지만, 명나라 중·후기에 이르러서는 경덕진 청화자

기와 채색자기의 부흥으로 생산규모는 하락세를 걷게 된다. 품질 면에서도 남송 청자의 고아한 청취색의 유색과 일정한 규격의 조형미도 잃어버린다. 청대 강희(康熙) 연간 이후 기본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요장도 몇 군데 남지 않으면서 몇몇 민간 도예가의 손으로 비밀리에 전수되면서 명백이 유지되었다.

청대 도광(道光) 연간(1821~1850) 복건성 덕화(德化)의 승(曾)씨와 퇴(賴)씨 성을 가진 도공이 용천 팔도(八都) 목대촌(木岱村)에 옮겨와 살게 되었는데, 이 지역의 자토(瓷土)가 광물이 풍부한 것을 보고 새로운 요장을 열어 그릇을 번조하면서 차츰 인근 지역의 목대구(木岱口), 팔도(八都), 계두(溪頭) 등지로 확대되었다.

광서(光緒) 연간(1875~1909)을 전후로 독일 선교사가 용천에서 땅을 매입해 곡식을 심다가 고대 도자를 발견하여 이를 해외에 보내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광서30년(1904) 일본 사람인 天野靜之, 松田哲 등이 용천 대요에 가서 고대 자기를 구입했다. 선통(宣統) 2년(1910) 복건성 남태(南台) 대합약방 주인(일본인) 行原始平이 대요에 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약 10여 년 동안 자기편을 캐내었으며, 한 달 여에 걸쳐 가져간 서적을 참고하여 굽지 않은 자기편이 있던 곳의 파손된 가마를 수리하여 복원하였다. 이후民国 초기에 용천의 여러 곳에서 고대 무덤이 발굴되었고, 고대 청자를 소장하고 있던 강소성(江蘇省) 송호협기(松湖協記), 상하이 주황생(周黃生), 강서성(江西省) 심한병(沈翰屏), 복주(福州) 방진원(方振遠), 영파(寧波) 주규령(周奎齡)이 있었다. 民國16년(1924) 미국인인 洪羅道가 명자(名瓷)를 수집하였고, 독일도 영사가 대요에 가서 캐낸 지점을 촬영했으며, 한 프랑스인은 천주교를 소개하러 왔다가 깨진 자기편만을 모아서 상자에 넣어 본국으로 보내기도 했으며, 일본인 尚有九井 등이 잇달아 용천에 왔다. 용천은 세계적으로 용천청자를 연구하기 위한 성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상인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민간 예술인과 뜻있는 자들의 노력이 한데 모여 적극적으로 옛 청자를 방제하였고, 청자 기법이 계승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주요한 현상이 있다.

1) 민간에서 방고(仿古) 청자의 증가

民國 초기, 용천현 성(城) 서가(西街)에서 청대 말기의 수제인 료헌충(廖獻忠)은 청자의 방고(仿古) 연구에 힘썼다. 당시 방고는 보계향의 고수 장고예(張高禮)와 민간 예술인 이군의(李君義)가 명성이 있었다. 이들은 대요의 옛 요지(窯址)에 가서 원료가 되는 광산자원을 구하고, 자기편을 찾아 보계향 계두촌으로 돌아와서 방제(仿製) 연구에 몰두했다. 현지 사람인 장건인(蔣建寅), 료헌충(廖獻忠), 진좌한(陳佐漢), 장고예(張高禮), 이군의(李君義) 등이 먼저 용천 남향(南鄉)의 대요 금촌에서, 이후에는 용천 서향(西鄉) 팔도, 대탄, 계두 등지로 가서 고대 청자를 방제했다. 民國 23년(1934)에 보계향 향장(鄉長)인 진좌한은 현지의 도공이었던 이회덕(李懷德), 장고악(張高嶽), 장고의(張高義), 장조곤(張照坤), 허가계(許家溪)를 초대해 '방고청자연구회(仿古靑瓷研究會)'를 결성했다. 당시 민간에서 고대 청자의 방제 열기가 높아져 청자 생산기술과 공예가 일정 정도 복원되고 계승되었다. 1945년 진좌한은 자신이 직접 송대 제요(弟窯)를 따라서 만든 모란병, 봉이병(鳳耳瓶) 등 70여 점을 용천 현장(縣長)인 서연약(徐淵若)에게 부탁해 '남송중앙실업부'에 보내 장개석의 칭찬을 받았고, 친필의 '예정도방(藝精陶仿)'이라는 4字的 격려문을 받기도 했다.

2) 뜻있는 자들의 연구와 도록(圖錄) 출판

중국 고대 도자기의 태두(泰鬥)이자 중국 고고학의 선구자인 진만리(陳萬里) 선생은 1928년에서 41년까지 14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용천에 간 9번 중에 8차례 대요촌 용천요에서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대량의 조사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청자의 조사연구(靑瓷之調查研究)』, 『월기도록(越器圖錄)』, 『자기와 절강(瓷器與浙江)』 등의 저서를 썼다.

고대 청자를 연구하고 제작까지 했던 진좌한(1907~1952) 선생은 용천 보계 사람으로 民國 시절 보계향 향장을 지냈고, '방고청자' 연구에 몰두하여 '고환실(古歡室)'이라는 방고청자 연구 모임을 꾸려, 민간의 청자

도안을 수집·정리하였고 『고환실 청자연구 상식 (古歡室靑瓷研究淺說)』, 『고용천요보물도록(古龍泉窯寶物圖錄)』을 편찬했다.

고대 청자 연구의 이론을 정리한 서연약은 강소성 강음(江陰) 사람으로,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민국 32년 2월에서 35년 4월까지 용천 현장(縣長)을 지냈다. 임기동안 용천청자를 사랑해 직접 옛 요지에서 자기 편을 고찰하였고, 소장자들의 진품을 보며 청자 예술인, 도자의 권위자들과 토론하고, 진좌한 등 지방 연구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저서 『가요와 제요(哥窯與弟窯)』를 펴내 ‘방고청자’에 참고할만한 도록과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고, 청자 기법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했다.

3) 청자문화 계승을 위한 지방 도자업 조직의 공헌

1943년부터 ‘팔도구자업개선연구회(八都區靑業改進研究會)’, ‘팔도구자업직업공회(八都區靑業職業工會)’, ‘용천자업동업공회(龍泉靑業同業公會)’ 등 민간 단체들이 조직되어 도자업의 체계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청자기법의 계승에 기여했다.

신중국 성립 후, 용천청자는 정부와 국가 지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주은래(周恩來) 총리는 57년에 ‘용천요 청자 생산 회복’이라는 지시를 발표했고, 대규모의 고대 청자 전문가를 조직해 그 예술성과 기법에 대한 조사 및 고찰이 진행되었다. 생산 공정에 관한 기술도 시험 제작을 실시해 마침내 용천청자의 생산을 회복시켰고, 많은 자기 공방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용천청자는 새롭게 재해석되며 꽃피기 시작했다.

3. 용천청자의 예술적 특징

용천청자는 청취색의 영롱한 유색, 단아하고 소박한 조형, 독특한 품격의 장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독특한 예술적 품격을 형성하였고, 천 여 년의 오랜 시간 동안 한결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찬양되었다.

1) 청취색의 영롱한 유색

용천청자는 북방의 여러 명요(名窯)의 장점을 집약하고 현지의 독특하고 우수한 원료를 이용해 월요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자기이다. 오대 시대 유색은 주로 황색을 띤 녹색으로 유면의 광택이 강했다. 북송 때 이르러 열은 청색 위주로 황색은 점차 적어졌으며, 남송 시기에는 두 가지의 다른 품격의 “가요와 제요” 청자가 제작되었다.

가요 청자의 유색은 청회색으로 단아하고, 유면에 문편(紋片)이 잘 드러나며, 취청(翠靑), 분청(粉靑), 회청(灰靑), 천청(淺靑) 등 여러 유색 가운데 분청을 가장 으뜸으로 친다. 제요 청자의 유약층은 두껍고 광택이 좋으며, 유색은 청록색에 광택은 부드럽게 빛나며 영롱하고, 분청, 매자청(梅子靑), 두청(豆靑), 회황(灰黃) 등으로, 분청과 매자청을 으뜸으로 본다. 분청 유색은 호수에 비치는 열은 녹색과 같으며 유약층이 두터워 외관상으로는 광택이 좋고, 벽옥 조각처럼 아름답다. 매자청 유색은 분청에 비해 짙고, 외관은 청취색의 짙은 녹색으로 유약 면이 영롱하여 비취보다 아름답고, 마치 새로 뜬 달처럼, 연못의 맑은 물처럼, 고옥(古玉)의 비취색처럼, 온유하고 우아하다.

천백 년 동안, 용천 도공들은 옥과 같은 도자기를 만들고자 노력해 빙기옥골(冰肌玉骨)과 같이 깨끗하고 우아하고, 온유함을 한데 모은 최고의 도예 경지로 매끈하고 구슬 같은 영롱함이 빛나는 자기를 생산해 왔다. 옥과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용천청자는 중국인의 도예 이상을 완벽히 담아내었고, 벽옥 같은 우아함과 맑게 빛나는 유색은 세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며, 중국도자사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기에 부족한 점이 없

있고 많은 영예를 독차지했다.

2) 단아하고 소박한 조형

청자는 후유(厚釉)계열의 도자로 태골(胎骨)이 상대적으로 두껍고, 후유 도자의 조형은 번조 과정에서 각 부위의 유약 두께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주둥이 주변과 꺾이는 부분이 중요한데, 청자의 형태에서 모서리가 너무 예리하면 그 부분에 시유가 되지 않아서 번조시에 태골이 드러나게 되어 보기에 좋지 않다. 모서리를 너무 둥글게 하면 번조할 때 유약 두께에 변화가 없어서 전체가 한 가지 색으로 보여 태골 구조가 보이지 않고, 청자만의 아취가 결여된다. 따라서 잘 만들어진 청자의 조형은 선, 각의 변화가 잘 어울려야 하고, 태골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과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야 형태가 분명해지고 참신한 예술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용천청자 조형은 위의 특징을 모두 담아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품격을 만들어 내었다. 전체적으로는 힘차고 중후하며, 소박하고 단정하면서도,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 선의 흐름은 시원스럽고도 매끄러우며 모서리의 꺾임이 분명하여, 예술적 품격이 완벽하게 심오한 제작 기술과 하나로 조화롭게 합쳐졌다. 용천청자는 남송 시기에 고대 청동기와 옥기(玉器)의 조형적 장점을 받아들여, 정교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변화하였다. 가요의 조형은 소박하고 단정했으며 선은 간결하고 제작은 규격화되었다. 주요 작품은 단정하고, 구조가 합리적으로 균형이 잡혀서 우아하고 정교한 아름다운 청자 후유(厚釉)의 멋을 한껏 살리고 있다. 현재 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직구천이병(直口穿耳瓶), 접화쌍어세(貼花雙魚洗), 가요어이로(哥窯魚耳爐), 가요현문병(哥窯弦紋瓶) 등이 모두 남송 시기의 대표작이다. 1970년 12월 내몽고 자치구 후허하오터에서 출토된 용천요 청자 전지모란병(纏枝牡丹瓶)을 살펴보면, 높이가 50.4센티미터로 기형의 선이 경쾌하고 막힘이 없어 우아한 곡선미를 뽐내며, 전체적으로 들어간 모란당초문이 매우 수려하다.

용천청자의 조형은 매우 다양하고 생동감과 에너지가 넘쳐 관요와 민요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품격과 고색창연하고도 고아한 기풍이 넘친다.

3) 독특한 장식

용천청자는 종류가 다양하고 조형이 새로우며 장식 소재도 광범위하고 생동적이어서 기운이 넘치고, 민족적 색채와 생활의 향기가 가득하다.

가요 작품은 다양·다변한 문편(紋片)이 대표적인 장식 기법이다. 자연스러운 문편을 장식하는 기법이 가요의 특징이면서 단아한 아름다움의 근간이 된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용천 도공들은 절묘하게도 ‘부족함의 미학’을 장식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가요의 무늬는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면 빙렬(裂紋)의 크고 작은 형상이며, 빙렬문, 해조문, 우모문, 물결문, 어자문 등 갖가지 형상을 보인다. 그 무늬는 조밀하거나 성기고, 종횡으로 교차하며 불규칙적이거나 규칙적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문편(紋片)은 청유가 마치 물처럼 자유롭게 교차 시유되면서, 유면이 크고 작게, 성기고 조밀하게 분할되는 것이다. 자기 형태에 따라 분할되는 면에 의해 고저장단의 선율과 리듬이 생겨나고 청자에 광채와 생기를 불어넣는다. 가요자기(哥窯瓷器)는 순수하게 원재료에서 자연스러운 무늬를 빚어내어 세인의 사랑을 받았다.

체요 청자의 장식에는 정교하게 새긴 화조어충, 다양한 날짐승 길짐승, 생동감 넘치는 산수인물이 있고, 구성이 치밀한 몇몇 문양,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길상 도안과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문자 도안도 있다.

체요 청자는 반부조(半浮彫) 기법을 썼고, 자태(盜胎)에는 주요한 장식을 하였으며 장식 기법에는 각화(刻花), 획화(劃花), 누조(鏤雕), 모인(模印), 퇴첩(堆貼), 노태첩화(露胎貼花)와 혼합 방식 등이 있었다. 또 청유의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주둥이와 꺾이는 모서리 부분은 유약이 남아 있지 않고 흘러내려서 유층이 비교적 얇고 투명하여 태골의 백색이 드러나서 청유와 대비를 이루며 희미하게 드러나는 백흔(白痕)을 ‘출근(出筋)’이라고 한다.

이외에 선명한 주홍색을 띠는 주사(朱砂)를 이용한 ‘주사족(朱砂足)’ 장식은 옥과 같은 맑은 유면을 부각시

켜서 용천 개요 청자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만들어냈다.

용천청자의 장식 예술은 대대로 이어진 용천인들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용천 지역 문화의 예술적 경지로, 중국 도자업의 발전과 세계 문화 예술 교류에 많은 공헌을 했다.

4. 발전하는 현대 용천청자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경제 개혁이 진행되면서, 민영과 사영(개인) 경제 방식이 속속 청자 생산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1998년을 전후로 도예계 국유기업이 하나 둘 파산했고, 정부는 종사자들의 사영 기업 설립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이는 청자 발전에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최근 10여 년간, 용천청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자기 브랜드가 되었고 절강성 유명 상표, 중국 유명 상표, 중국 지리 상징 보호 제품, 첫 국가급 정신문화유산 대표작,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잇달아 영예를 안았으며, 세계 도자기의 정상에 올랐고, 제작 기법 또한 새로운 최고봉에 도달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업계 규모의 확대와 경제적 효과의 증대

1998년 국유기업이 잇달아 파산하고 체제 개편이 진행되면서 청자산업은 침체기에 빠졌고, 용천시에 50개 사영 공방과 향촌 그릇 공장만 남아 연 생산량은 1,000만 위안이 안될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과거 1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수많은 창업이 계속되어 현재는 청자보검단지(靑瓷寶劍園), 상양진청자단지(上洋鎮靑瓷園區), 보계청자문화단지(寶溪靑瓷文化園區), 청자대사원(靑瓷大師園), 청자산업단지(靑瓷產業園)와 중소기업창업단지(中小企業創業園) 등 여러 생산 단지들이 조성되었고, 전체 점유 면적이 약 1,000亩(=666,700 m²)에 달해 기업 수도 500여개로 연 15억 위안에 달하는 생산량과 1만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2) 국경일 전시와 평가로 확대된 청자의 영향

10 여 년 동안 시위위원회, 시정부는 용천청자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청자 골드명함(靑瓷金名片)을 만들었고, 2000년 6월 항주에서 처음으로 '중국 용천청자 항저우 명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 4월에 상하이 도서관에서 '중국 용천청자·용천보검 명품전'을 개최하였고, 2002년 4월에는 수도 베이징의 중심 변화가인 민족문화궁에서 '용천청자·용천보검 명품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요령성 선양[瀋陽]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4년간의 홍보 전시를 통해 많은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를 초대했고, 수장가, 언론 기자 수천 명이 함께 용천청자의 발전대계를 논의하였으며 관련 기사 1,000여 건이 보도되어 용천청자는 각계 지도자들과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2002년 10월 중국 전국 도자계에서 최고 수준과 최대 규모의 행사인 제7회 '전국 도자 예술디자인 혁신 비교평가 대회'가 용천에서 거행되었다. 현재 도자 예술의 현황과 면모를 전면적으로 전개한 중국 현대 도자의 대열병식이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청자 도공들의 혁신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도자 디자인의 혁신과 새로운 미학을 일깨워서, 새로운 시대를 담은 청자 작품을 창작하는 것만이 용천 청자의 품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처음으로 '용천청자축제'가 개최되었고, 2007년 제2회 청자축제는 주은래 총리 지시사항인 '용천청자 생산 회복 50주년'과 유명 도자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진만리 선생 탄생 115주년을 주제로 8대 요계(窯系) 전문가와 국제도자협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중화역사 명요 중흥' <용천선언>에 서약하였다. 2008년 제3회 청자축제는 '아름다운 新용천 재창조'를 주제로 민족문화 계승·선양·혁신·발전을 강조했다. 공예 대가들이 용천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급 용천청자 골드명함을 만들

기 위해 방안을 내놓았다. 2009년 제4회 청자축제는 용천‘현’ 설치 1250주년을 기념하고 용천청자의 전통 제작 기법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것을 축하하는 것을 주제로 거행되었다. 용천청자의 전통적인 제작기법은 중국 도자사상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글로벌화 속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과학적이고 유구한 창조력을 풍성하게 담고 있으며, 용천이 인류 정신문화유산 사업에 더 많은 공헌을 하길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제5회 용천청자축제는 용천‘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청자의 국제교류를 강조했고, 청자 소형기업의 창업단지 기공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치루어져서 용천의 지명도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제고되었다.

용천청자는 최근 10년 동안 전국적인 박람회, 평가회 등에 참가해 많은 상을 수상했고, 전국 도자 혁신 평가에서 금상 17개, 은상 33개, 동상 60개, 우수상 66개를 획득해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도자이다. 2010년 용천청자는 역사상 246개국과 국제조직이 참관하여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상하이엑스포에서 현대적인 청자의 풍모를 뽐내며 자리를 빛냈다. 용천청자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면서 동방의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10년 9월에는 용천시 정부가 무대를 설치하고 청자 예술인들이 함께 협력해, ‘중국 예술의 극치-세계무형문화재 용천청자 파리전’을 개최하였고 협회는 37개의 명품을 엄선해 파리에서 ‘국제도예학회’ 도예가와 소장가를 초청하여 1주일간의 전시교류회를 가졌고, 유럽, 특히 파리 시민들에게 동방의 미 ‘셀라돈’의 풍격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 행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청자문화를 유럽에 알렸고 동서문화 교류를 촉진하였다.

3) 청자 브랜드화의 새로운 가치 창조

용천청자는 조상이 창조한 위대한 문화산업으로, 모든 시대에서 찬란한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10여 년 동안 용천청자가 획득한 영예는 다음과 같다.

1. 2003년 2월, 용천청자 중국 지리 상징 보호 제품으로 지정
2. 2003년, 용천 처음으로 중국 공예미술산업계의 특색 지역인 ‘중국 용천청자의 도시’ 칭호 획득
3. 2007년 5월, ‘용천청자 증명 상표’ 획득
4. 2009년 9월, 용천청자 제작 기법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
5. 2010년 1월, 절강성 유명 상표 칭호 획득
6. 2011년 4월, 중국 유명 상표 칭호 획득

위와 같은 숏한 영예를 업고 용천청자의 위상과 영향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자 분야에서 유일하게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서 용천청자는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그 중심에 우뚝 섰으며 세계 도자 부흥에 기여한 용천청자의 우수함과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4) 기술력과 인력의 확충

도자 산업의 흥망은 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기술력은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 일상용이나 예술용 도자 모두 작품의 조형과 유색의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데, 물레 성형한 작품은 모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심미관이 더욱 요구된다. 용천청자의 중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재를 끌어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의 미적 의식을 향상시켜야 청자의 예술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10여 년 동안 협회는 시위원회, 시정부와 함께 인재양성을 매우 중시하여, 외부로 보내고 내부로 초청해서 배우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술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업계 전체에서 중국공예미술대사[전문가] 4명, 중국도자예술 대사 5명, 성급공예미술대사 16명, 여수(麗水)시 대사 56명, 고급공예미술사 150명, 중국 기술인 300 여명, 민간 청자 연구소 20여 곳을 보유하고 있다. 용천시는 청자도자반을 개설해, 매년 핵심 인재 100여 명을 선출해 중국도자학원(中國陶器學院)에서 심

화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예 방면에서도 빙열문(冰裂紋), 가요점채(哥窯點彩), 도도기예(跳刀技藝), 방송회유(仿宋灰釉), 황유(黃釉), 서법회화(書法繪畫)와 청자를 결합한 새로운 공예의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청자의 계승 발전과 혁신을 위해 부단히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청자의 현대적인 재해석과 풍격에 기여하고 있다.

5. 맺음말

용천청자는 세계적인 도자기로 용천인들의 자랑이자 영예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는 반드시 그 속에 탄탄한 문화적 저력과 바탕이 있기 마련이며 용천청자의 영원불멸의 생명력은 용천에서 발원한 것으로 용천의 역사와 문화는 용천청자를 중국, 나아가 세계 도자기의 최정상에 올려놓는 원동력이 되었다.

용천은 청자 제작의 성지로, 청자 예술 창작의 파라다이스로, 자연미, 도자기, 사람들의 멋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다. 한중일 도예가들이 용천에서 함께 청자를 빚으며 서로 교류하고 용천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끽하길 바래본다.

2014年中日韩三国陶瓷艺术交流论坛资料：

龙泉青瓷 瓷中瑰宝

陈显林(中国陶瓷艺术大师)

引言

如果说要找一种最能体现一个民族文明史的物质载体，那么就非陶瓷莫属了。

描写一个文明的内涵及高度，可以有不同的视角和标尺，但都离不了“技术”和“艺术”这两个方面。任何一种文明都必然蕴含这两个层面的内容，否则即不能成为“文明”。源远流长的中国古陶瓷自始至终都是技术与艺术的结合与交融。可以说不懂中国古陶瓷就不懂得中华文明。

瓷器是中华民族的一个伟大创造，这一创造在西方也是“惊天地，泣鬼神”的，这种东西到西方那里，竟被认为是一种天然石雕琢出来的器物，他们没有想到除了上帝都用泥土捏成亚当夏娃，谁还能用泥巴烧成另外一种人世间从未有过的物质，摆在面前的是华夏民族人类智慧的结晶——中国瓷器。

从陶瓷发展到瓷器，是以青瓷的烧制为起点，随着青瓷的发展，才出现五彩缤纷的彩色世界。青、青绿、青翠是中华民族古往今来艺术崇尚不衰的颜色，它象征着大自然的本色，象征着纯朴和民风，象征着人类理念的文雅深邃，它是美的化身，一种朴素无华、纯净永恒的自然美。

中国龙泉位于浙江西部，介于北纬27.42'—28.20'，东经118.42'—119.25'之间，到过龙泉的各位陶瓷家都知道，龙泉境内，山峦迭起，竹木青翠，清澈碧绿的瓯江辗转其间，滋润、养育了这片人民，染绿了龙泉的丛山旷野，青山造就了一片青绿世界。如果你置身于龙泉的山川草木之间，你才会大彻大悟，才会懂得青的诞生，青的历史、青的魅力、青的永恒，才会懂得龙泉，龙泉窑，龙泉青瓷所展现的青翠千秋之美。

1700年前的三国两晋起，龙泉地区勤劳智慧的人民历代相承，开始烧制青瓷，龙泉青瓷作为单色釉瓷器的主要品种之一，从这里诞生并发展到浙南、浙东乃至福建、江西等地，逐渐形成了一个庞大的青瓷窑系，龙泉青瓷作为中国古陶瓷中历史最久、分布最广、产量最大、声誉最高，影响最深的青瓷品种，深受中外陶瓷界，艺术界和收藏界的推崇和关注，龙泉青瓷是我国古陶瓷中的一朵瑰丽奇葩，是世界文化遗产的一颗璀璨明珠，是千古不朽的艺术珍品。

一、龙泉青瓷的历史沿革和地位

龙泉青瓷，因其窑口始创浙江龙泉地区而得名。龙泉晋代始称龙渊乡，唐初改为龙泉乡，唐代乾元二年（公元759年）设县，新中国建立以后设龙泉县，1990年12月撤县建龙泉市。

龙泉青瓷开创年代为三国两晋，据考古发掘证实，龙泉地区从三国两晋至清代后期发掘青瓷窑址500余处，龙泉境内就发现360余处，出土了三国两晋的罐、壶、碗、钵、水盂等器物。唐至五代时期，龙泉金村、琉田（今大窑）等地制瓷业已初具规模。五代末至北宋，龙泉制瓷业受瓯窑和婺窑的影响，窑业已有较大发展，公元932年，宋太宗派殿前承旨赵济监理越州窑务兼任龙泉窑务，足见龙泉窑业已引起朝廷的关注。

到了南宋，迁都杭州，导致了汉族政权的政治、经济、文化中心南移，制瓷很高的龙泉窑成为宫廷用瓷首选窑口，大量生产贡瓷，达官贵人都以使用龙泉青瓷为荣耀。在此时期，沿龙泉溪两岸新的窑坊大量涌现，窑场达260多

处，遍布县境南区和东区沿境一带，正如龙泉县志所记载的“瓯江两岸、窑窑林立、烟花相望，江山运瓷船舶来往如织”。国际著名陶瓷家、日本贸易陶瓷研究会会长三上次男博士在《陶瓷之路》著作中道：中国经过十世纪前期的五代至朝（公元960年—1270余年）社会安定下来了，于是就引来了陶瓷生产在质和量方面的飞跃发展时期。从此，世界上生产的陶瓷之中，就出现了品质最佳和最美的产品。具体地说，进入这个时期生产青瓷的中心就转移到浙江龙泉，这种瓷器的青色，其清澈犹如秋高气爽的天空，也如宁静的深海，这就是名闻世界的龙泉青瓷。南宋中晚期龙泉青瓷烧制推向了巅峰，把产品质量推向极至，形成了庞大的龙泉窑系，成为全国制瓷中心。

著名历史地理学家，原杭大教授陈桥驿所述：“一千余年以来，就是这个县份，以它的品质为我们挽回了巨额财富，奇异的大量青瓷器，在世界取得莫大的荣誉。”从中国东南沿海各港口起，循海道一直到印度洋海岸的波斯湾、阿拉伯海、红海和东非沿岸……无处没有龙泉青瓷的踪迹，这条漫长的“陶瓷之路”实际上就是中国陶瓷特别是龙泉青瓷开拓出来的。

元代早中期是龙泉青瓷持续发展的辉煌时期，既保持了南宋晚期龙泉青瓷水准和风格，又推出了许多大件器形的制作，形成了自己的特点，到明代中后期，因景德镇青花瓷和彩瓷的兴起，龙泉青瓷生产规模趋至下跌。品质失去了南宋青瓷釉色青翠，造型规整的风姿。到了清代康熙年间以后基本中断生产，窑场所剩无几，唯有一些民间老艺人在孜孜倡导和密传技艺。

在清道光（公元1821—1850年）福建德化一位姓曾和一位姓赖的瓷工迁居龙泉八都木岱村，发现该地瓷土矿藏丰富，就在木岱新开窑场，烧制土碗，逐步扩展到附近的木岱口、八都、溪头等地。

大约在光绪二十多年前，德国教士奔德在龙泉购地垦种。发现古瓷，流传国外，始引起各方注意，光绪三十年，日本国人天野静之，松田哲等前往龙泉大窑收购古瓷，至宣统二年，福建南台大合药房主人（日本人）行原始平至大窑，与村民合作挖掘，嗣后年必数次，首尾十余年，至则必往月余，随带者参考书籍，遇有未成熟之瓷坯，即加以复窑，破碎者加以修整。后到民国初年龙泉到处有寻掘古墓者和收藏古青瓷者，江苏松胡协记、上海周黄生、江西沈翰屏、福州方振远、宁波周奎龄。民国十六年，美国人洪罗道前来收罗名瓷，德国亦有领事至大窑拍摄发掘地点，法国某人由松阳天主堂介绍前来，专集碎片，成箱运往法国，日本国人尚有九井等相继而来，龙泉不仅成为世界考究龙泉青瓷的圣地，而且成为商人发财致富的宝地。这样极大地增添了民间艺人和有识人士仿制古青瓷的积极性，使青瓷技艺纷纷在传承发展中，主要有四个方面得以佐证：

（1）民间仿古青瓷逐日增多。

民国初年，龙泉县城西街有晚清秀才廖献忠致力于青瓷研究仿古。当时仿古颇负盛名的宝溪乡高人强高礼和民间艺人李君义，他们到大窑古窑址找矿源，寻碎片，运回宝溪乡溪头村，进行研究仿制。本土乡人蒋建寅、廖献忠、陈佐汉、张高礼、李君义等先在龙泉南乡大窑金村，后到龙泉西乡八都、大坦、溪头等地仿制古青瓷。在民国二十三年，宝溪乡乡长陈佐汉邀本乡瓷工李怀德、张高岳、张高义、张照坤、许家溪等组织成立仿古青瓷研究小组，龙泉民间仿制古青瓷热情高潮，使青瓷生产技术和工艺一定程度上得到了复承。1945年，陈佐汉将自己生产仿宋弟窑制品牡丹瓶、凤耳瓶等70余件，委托龙泉县长徐渊若邮寄南宋中央实业部请功，以得蒋介石的称赞，并题赠“艺精陶仿”四字为勉励。

（2）有识之士的潜心研究，出版图录。

中国古陶瓷界公认的泰斗，中国田野考古先驱陈万里先生，从1928年至1941年的十四年中，不辞辛劳，九次赴龙泉，八次去大窑村实地考察龙泉窑，写下了大量的工作日记，撰写了《青瓷之调查研究》、《越器图录》、《瓷器与浙江》等专著。

古青瓷研究探索和实践者陈佐汉先生，龙泉宝溪人，民国期间曾任宝溪乡乡长，他潜心研究仿古青瓷，成立仿古青瓷研究小组，取名为“古欢室”，收集整理民间青瓷图案，编写了《古欢室青瓷研究浅说》、《古龙泉窑宝物图

录》。

古青瓷研究的理论总结者徐渊若，江苏江阴人，毕业于日本早稻田大学，民国三十二年二月至三十五年四月任龙泉县长，期间因喜爱龙泉青瓷，亲历古窑址考察古瓷片，遍观藏家珍品并与青瓷艺人，窑道主权威相探讨，获得陈佐汉等地方人士的研究资料相助，撰写《哥窑与弟窑》专著，为青瓷仿古提供了参考图录和理论依据，推动了青瓷技艺的传承和发展。

(3) 地方瓷业组织对青瓷文化传承的作用

在1943年以来，前后成立了“八都区瓷业改进研究会”，八都区瓷业职业工会，龙泉瓷业同业公会等群众团体组织，为维护瓷业的有序发展起到了积极作用，使青瓷技艺得以相传继承。

新中国成立后，龙泉青瓷得到政府和国家领导人的高度重视，周恩来总理在57年发表了“恢复龙泉窑青瓷生产”的指示，组织大批专家对青瓷考古，艺术和技术进行了调查考察，对生产工艺进行了技术研究试制，终于使龙泉青瓷恢复了生产，重登瓷坊，芬放异彩。

二、龙泉青瓷的艺术特色

龙泉青瓷的青翠晶莹的釉色，端庄浑朴的造型，别具一格的装饰著称于世，形成了独特的艺术风格。一千多年来，一直被人们所称道。

1、青翠晶莹的釉色

龙泉青瓷是会集北方诸名窑的丰富经验，利用当地独有的优质的本土原料，继承越窑优良传统的基础上发展起来的。五代时期釉色主要是绿中带黄，釉面光泽度强，到北宋以浅青为主，黄色调减少，南宋时期烧制出两种不同风格的“哥窑和弟窑”青瓷产品。

哥窑青瓷釉色青灰淡雅，釉而显露纹片，有翠青、粉青、灰青、浅青等多种色调。以粉青为贵。弟窑青瓷釉层丰润，釉色青碧，光泽柔和，晶莹滋润，釉色有粉青、梅子青、豆青、灰黄等。以粉青、梅子青佳。粉青釉色是种淡淡的湖绿色，由于釉层丰厚、外观显得滋润饱满，象碧玉雕塑一般美，梅子青釉色比粉青深些，其外观青翠碧绿，釉面莹彻，似胜于翡翠，犹如一弯新月，一池清水和翠美玉瑕的古玉，那样温润尔雅。

千百年来，在“玉的精神”朗照之下龙泉窑匠始终追求类玉的品质与格调，以冰肌玉骨般的素雅沉静、凝重温润为瓷艺的高尚之境，而清新澄净晶莹蕴藉，美玉美妙的龙泉青瓷则集中透彻地体现了中国人的这种瓷艺理想，它碧玉般沉静素雅，清丽圆润的釉色备受世人喜爱，以至在中国陶瓷史上享有崇高的地位，一度独揽瓷坛风光。

2、端庄浑朴的造型

青瓷是属于厚釉系统的陶瓷，胎骨相对地也较厚，厚釉陶瓷的造型必须把釉在烧成过程不同部位形成不同厚度预计在内，尤其是边口和转折部位要重要，青瓷造型的转折棱角过于锋利，烧成时棱角挂不住釉，胎骨裸露，很不美观，转折棱角过于圆深，釉的烧成时没有厚薄变化，通体一色，不见胎骨结构，缺乏神采，处理得成功的青瓷造型、线角的转折恰到好处，胎骨有隐有现，造型结构清楚而又清新的艺术效果。龙泉青瓷造型下吸取了上述特点，创出自己的风格。总的特点是挺拔凝重，古朴端庄，结构严谨，线条明快流畅棱角分明，艺术风格和谐完善，与精湛的制作工艺融为一体。南宋时期，博采了古代青铜器和玉器造型优点，精巧实用，千变万化，哥窑产品造型古朴端庄，线条洗练，制作规整。弟窑产品端巧工整，结构匀称合理，优雅精致秀丽挺拔，使其与优美的青瓷厚釉瓦为辉映，相得益彰。现珍藏在故宫博物院的直口穿耳瓶，贴花双鱼洗、哥窑鱼耳炉、哥窑弦纹瓶等都是南宋时期的代

表作。例1970年12月在内蒙古自治区呼和浩特市出土的龙泉窑龙泉青瓷缠枝牡丹瓶，高50.4厘米，器形线条流畅明快，形成为曲线之柔美，与通体精美的缠枝牡丹花纹十分潇洒秀丽。

龙泉青瓷的造型丰富多彩，生动活泼，既有官窑之特点，又有民窑特色，形成了端庄浑朴的风格，有着古色古香、庄重优雅之美。

3、别具一格的装饰

龙泉青瓷不但品种繁多，造型新颖，而且地装饰上取材广泛，生动活泼，富有浓厚的民族色彩和生活气息。

哥窑产品主要以丰富多变的纹片作为特殊的装饰手段。用自然纹片入为装饰特殊手段，是哥窑艺术的一绝，也是典雅美的根本所在。而聪明而有智慧的龙泉瓷匠们却巧妙利用这种缺陷美作为装饰手段。哥窑纹路，可通过工艺的调整控制裂纹的大小和形状，形成了冰裂纹、蟹爪纹、牛毛纹、流水纹、鱼子纹等千姿百态的纹片，它们或疏或密，纵横交错，极不规则又在规则之中，这种自然的纹片线条，自如流畅地在水一般的青釉上来回地穿插，并进行了大小、疏密块面的分割。随着瓷器形体的起伏，被分割的空间产生了抑扬顿挫的韵律和节奏，使青瓷增添了光彩和生机，哥窑瓷就是以这种纯其原料产生自然纹片美，博得世人的青睐。

弟窑青瓷的装饰有精工细刻的花鸟鱼虫，千姿百态的飞禽走兽，栩栩如生的山水人物，结构严谨的几何纹样，龙飞凤舞的吉祥图案和潇洒自如的文字书法。

弟窑青瓷采用半浮雕手法，瓷胎是进行装饰的主要载体，装饰技法主要有刻花、划花、镂雕、模印、堆贴、捏塑、露胎贴花及混合装饰等。同时还利用青釉的流动规律，边口和转折部位的棱线，不容易停釉，釉层较薄透出胎骨白色和青釉形成对比关系，这种棱线处微露白痕，称为“出筋”。此外，还有以朱砂足足显出朱红色“朱砂足”的装饰，这些与清脆似玉的釉面相衬托，给龙泉弟窑青瓷增添了无限的美感和生命力。

龙泉青瓷的装饰艺术是历代龙泉劳动人民智慧的结晶，是龙泉山城文化艺术水平的综合体现，它给我国陶瓷业发展和世界文化艺术交流都作出了卓越的贡献。

三、发展中的现代龙泉青瓷

从九十年代中期开始，随着经济体制改革的不断深入，民营和个私经济模式进入青瓷经营生产领域。到1998年，全行业国有企业逐个破产。政府大力鼓励职工兴办个私企业，采取一系列的措施，为青瓷发展腾飞打下坚实的基

础。在跨入新世纪的十多年来，龙泉青瓷已成为全世界瞩目的品牌——浙江省著名标志、中国驰名商标、中国地理标志保护产品、首批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等荣誉接踵而来，达到世界陶瓷的领军地位，制作技艺达到了一个新的高峰。

（一）、行业规模不断壮大，经济效益显著提高

1998年，国有企业相继破产改制，青瓷行业处于低谷，全市只有50来家私人作坊和乡村碗厂，租赁民房简陋生产。年产值不到1000万元，如今全行业经过十多年的创业，已发展拥有青瓷宝剑园、上垟镇青瓷园区、宝溪青瓷文化园区、青瓷大师园、青瓷产业园和中小企业创业园等青瓷青瓷生产基地，占地面积近1000亩，企业个数500余家，年生产能力15个亿，就业人数10000余人，税收、利润1亿多元。

（二）、节庆展览、评比，扩大青瓷影响

十多年来，市委、市政府为扩大龙泉青瓷知名度，打造青瓷金名片，于2000年6月在杭州举办首届“中国龙泉青瓷杭州精品展示会”；2001年4月，在上海图书馆举办了“中国龙泉青瓷龙泉宝剑精品展”；2002年4月，在首都北京最

中心、最繁荣的地段民族文化宫举办“龙泉青瓷龙泉宝剑精品博览会”；2003年在辽宁沈阳举办展示会。通过四年的宣传展示，邀请了政府领导和行业专家，收藏家、新闻记者上千人共商开拓振兴龙泉青瓷大计，发表新闻1000多篇，龙泉青瓷从而得到了领导和社会人士的肯定。

2002年10月，第七届全国陶瓷艺术设计创新评比大会在龙泉举行，这是全国陶瓷界层次最高、规模最大、技艺最深的盛会。全面展现当今陶瓷艺术现状和风貌，是中国现代陶瓷的大阅兵。通过这次评比，极大地激发了青瓷工作者创新的激情，领悟陶瓷创新设计新理念和审美要求，创作具有新时代的青瓷作品，才能显凸龙泉青瓷的风采。在评比会期间还举办了首届龙泉青瓷节，继后在2007年第二届青瓷节以周恩来总理批示“恢复龙泉青瓷生产50周年”和著名陶瓷学家、考古家陈万里先生诞辰115周年为主题，邀请八大窑系专家大师和国际陶协领导共签发“中兴中华历史名窑”《龙泉宣言》。2008年第三届青瓷节以“再创美好新龙泉”为主题，传承、弘扬、创新和发展民族文化。工艺大师聚首龙泉，增进交流，推进合作，为打造龙泉青瓷这张国家级金名片献计献策。2009年第四届青瓷节以龙泉置县1250周年庆典、龙泉青瓷传统烧制技艺入选“人类非物质文化遗产名录”庆祝大会为主题。龙泉青瓷传统炼制技艺成功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这是中国第一、世界唯一入选的陶瓷类项目。在全球化的浪潮下，非物质遗产确保人类科学长久地保持丰富的创造力，期待龙泉在保护人类非物质文化遗产的事业作出更大的贡献。2010年第五届龙泉青瓷节则以龙泉撤县建市二十周年庆祝大会为主题，突出青瓷国际交流，青瓷小企业创业园奠基等活动。使龙泉的知名度在国内外产生巨大的影响。

龙泉青瓷近十年来参加了全国性的博览会、评比会获奖多多，在全国陶瓷创新评比中四次获得了金奖17个，银奖38个，铜奖60个，优秀奖66个，为获奖最多的陶瓷产区。

2010年，龙泉青瓷在上海世博会亮丽登场。百年一遇的世博会在上海举办，上海世博会有246个国家和国际组织参展，参展数创造世博今历史记录。龙泉青瓷从2009年入选世界非物质文化遗产后，又一次迎来震撼世界的机会，它以东方旭日般的辉煌轰动全球。在世博园里，有上百件龙泉青瓷在亮丽现代青瓷的风采。

2010年9月，市政府搭台，青瓷艺术家唱戏，举办“中国意境——人类非遗龙泉青瓷巴黎展”，协会精心组织了37件当代精品，飘洋过海，邀请国际陶艺学会陶艺家、收藏家走进世界艺术之都——巴黎，进行为期一周的展示交流，使欧洲尤其是巴黎市民再次鉴赏“雪拉同”风姿。这次活动大大地推动了青瓷文化的传播，促进了东西文化交流。

（三）、青瓷品牌，刷新创新高

龙泉青瓷是祖先创造给龙泉人民的文化产业，在不同时期都做出辉煌的经济和文化效应。十多年中，龙泉青瓷获得的荣誉有：

- 1、2003年2月龙泉青瓷获中国地理标志保护产品。
- 2、2003年龙泉获首批中国工艺美术行业特色区域——“中国龙泉青瓷之都”称号。
- 3、2007年5月龙泉青瓷获“龙泉青瓷证明商标”。
- 4、2009年9月龙泉青瓷烧制技艺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名录。
- 5、2010年1月获浙江省著名商标称号。
- 6、2011年4月获中国驰名商标称号。

这些荣誉大大提升了龙泉青瓷的地位和身价，尤其是入选世界非遗，是全球唯一入选人类非遗陶瓷类项目，标志着龙泉青瓷真正走向世界，肯定了新世纪来龙泉青瓷辉煌业绩，为世界陶瓷复兴作出的贡献。

（四）、技术力量和人才队伍不断雄厚

陶瓷行业的兴弱，取决于技术力量，而技术力量取决于人才队伍。不管是日用瓷和艺术瓷两大系列，都离不开作品的造型和釉色的内在美，对拉坯成型作品，具有不可模仿性，所以更要有较好的技艺和审美观。要中兴龙泉青瓷就必须整合人才的优势，提高创作队伍和审美意识，才能实现青瓷艺术价值。十多年来协会在市委市政府的高度

重视人才培养的前提下，采取送出去，请进来的办法，培养技术人才。全行业拥有中国工艺美术大师4人，中国陶瓷艺术大师5人，省工艺美术大师16人，丽水市大师56人，高级工艺美术师150人，中级技术有300多人；民办青瓷研究所20余家。在龙泉市还开办了青瓷陶瓷班，每年选送骨干100多人去中国陶瓷学院深造。在技艺上，创新了冰裂纹、哥窑点彩、跳刀技艺、仿宋灰釉、黄釉、书法绘画与青瓷相结合的新工艺、新技术。为青瓷传承发展创新增添了新生技艺使青瓷大展现代风采。

结束语：

龙泉青瓷，已成为全球追捧的典范。这是龙泉人民的莫大光荣和骄傲。事实证明，对历史品牌，必须要有深厚的文化底蕴为依托，才能使其它充满无限的生命力，龙泉就是以其深厚的文化艺术内涵，赢得了陶瓷领域先锋王者的地位。

龙泉是制作青瓷的圣地，是创作青瓷艺术美的天堂，龙泉山美、水美、瓷美、人更美，欢迎日朝陶艺家前来龙泉创作青瓷，切磋技艺，相互交流，共享龙泉山城天伦之美。

종합토론

좌 장 : 강경숙(중원문화재연구원장)

토 론 : 이희관(前 호림박물관 학예실장)

이종민(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김윤정(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高麗時代 靑瓷 茶具」에 대한 토론문

李 喜 寬(前 호림박물관 학예실장)

고려청자의 주요한 용도 가운데 하나가 飲茶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출현기의 해무리굽완이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고려시대의 청자다구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요지와 유적에서 출토되거나 전세되어 오는 다구의 구체적인 용도조차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이 해당 연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려시대의 다구 관련 기록과 유적지 출토 현황 및 차 관련 주요 기종과 그 용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 발표는 고려시대의 청자다구와 관련된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 토론자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왔지만, 깊이 있는 연구의 단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다구 및 음다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시를 청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다구의 변화와 烹茶法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고려전기의 대표적인 음다기는 해무리굽완이다. 그런데 발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중기에 접어들면서 완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대접과 받의 수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잔의 종류와 수량도 늘어난다. 발표자는 이러한 변화상이 飲茶 방법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본 토론자도 이 점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음다 방법(또는 팽다법)상의 어떠한 변화가 그러한 다기의 변화를 이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혹 잔에 있어서의 변화를 唐代에 유행했던 煎茶法(煮茶法)의 유행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덧붙여서 질문하자면, 용량이 큰 대접이나 받음 일인용 다기일까, 分茶를 위한 용기일까?

둘째, 분묘에 매납된 도자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고려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에는 다구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현상이 “다례의 형식을 함축”한 것이었으리라는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다례라는 禮制의 형식을 함축한 것이었다면, 의당 조선시대의 명기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물의 기형이나 구성 등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예제가 더 엄격하게 지켜졌을 왕릉의 매납품에 있어서는 더욱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의 왕릉 출토품, 예컨대 인종 장릉 출토품과 명종 지릉 출토품을 비교해보면, 양자 모두에 다구로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셋째, 몇 가지 문헌기록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이다. 발표자는 이규보의 한 시에 보이는 “手點花盞”이 상감 무늬가 있는 청자 다완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혹 ‘손수 무늬가 있는 그릇에 차를 따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현의 한 시에 보이는 “眩轉瓷甌乳花吐”를 두고 ‘차의 거품이 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잔의 꽃무늬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당송시기의 시구절, 예컨대 [唐]李德裕의 시 <故人寄茶>의 “碧流霞脚碎, 香泛乳花輕”이나 [宋]梅堯臣의 시 <得雷太簡自製蒙頂茶>의 “湯嫩乳花浮, 香新舌甘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차를 저을 때 일어나는 乳白色 거품을 가리켜 흔히 “乳花”라고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전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龍泉窯青瓷文化綜論」에 대한 토론문

李 喜 寬(前 호림박물관 학예실장)

용천요는, 다 아는 바와 같이, 越窯 등과 더불어 중국의 대표적인 청자요장 가운데 하나로서, 대략 남송중엽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청자생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요장이다. 周曉峰 관장의 발표는 용천요와 관련된 특정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 용천요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전개과정, 자기제작기술적 특징과 미학적 특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周 관장의 발표는 용천요의 특정 논쟁점에 대한 이해보다는 용천요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周 관장이 논술한 내용의 대강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다. 다만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周 관장은 吳越國의 창건자인 錢鏐(852~932)가 용천청자를 秘色瓷로서 納貢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필경 남송의 莊綽이 찬한 『鷄肋編』에, “處州 龍泉縣에서는……또 靑瓷器가 나오는데, 秘色이라고 이른다. 錢氏가 納貢한 것은 대개 여기에서 취하였다(處州龍泉縣……又出靑瓷器, 謂之秘色, 錢氏所貢, 蓋取於此.)”고 한 대목을 근거로 한 주장일 것이다. 하지만 오대시기에 용천요에서 비색자를 생산하였다는 점은 고고학적으로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 게다가 오월국의 전씨왕이 공납한 비색자가 월요에서 생산하였다는 것은 문헌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周 관장이 이 기록을 신뢰한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哥窯에 대한 문제이다. 周 관장은 남송시기에 용천지역에 哥窯와 弟窯가 출현하였다는 전제 하에 두 요장에서 燒造한 자기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가요와 제요의 출현에 대한 기록은 명대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浙江通志』에서는 가요와 제요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 章生一과 章生二가 어느 시기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서 볼 때, 가요와 제요가 과연 송대에 출현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많은 연구자들은 가요가 元대에 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항주 老虎洞窯址가 발굴된 이후에는 이 요지의 원대층이 바로 가요라고 주장한다. 이 요지의 원대층에서 傳世哥窯瓷器와 흡사한 기물들이 출토되었고, 게다가 장생일과 장생이의 성인 “章” 또는 “張”을 의미하는 파스파 문자가 찍힌 支釘도 출토되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용천요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이 요장이 절정기에 접어든 것은 높은 품질의 粉靑釉靑瓷을 제작하면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起點은 대략 남송중엽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분청유청자는 현저한 자기제작기술적 발전의 토대 위에서 출현하였는데, 그 핵심적 요소로는 瓷石(土)와 紫金土를 배합한 태토(二元配方)와 K₂O와 NaO₂의 함량이 높은 石灰碱釉의 개발, 초벌구이(素燒)와 多次施釉를 통한 厚釉技法의 창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태토의 二元配方은 이미 남송초기의 월요 低嶺頭類型窯場과 남송관요에서 채용되었고, 석회감유 또한 이미 북송의 汝窯와 남송관요에서 사용되었으며, 초벌구이와 다차시유기법도 여요와 남송초기의 저령두유형요장 및 남송관요에서 실현되었음이 밝혀졌다. 周 관장은 용천요의 그러한 기술과 공예기법이 용천요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느 요장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요장에서 채용했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茶湯文化와 陶磁器」에 대한 토론문

李 鍾 玟(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동아시아에서 도자기가 발달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차 문화의 확대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중국의 차와, 茶器가 상당히 오랫동안 애호되었으며 차 문화의 변화에 따라 특정한 시기에는 조선의 다기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吉良文男 선생님의 이 글은 일본에서 인식하고 있는 ‘茶碗의 의미’와 ‘시기별로 수입된 외국 茶器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특징이 무엇’ 인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완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실제로는 문외한인 필자에게 이 글은 일본도자사에서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외국의 역사적인 茶器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 글은 많은 책을 읽고서야 알 수 있는 일본의 茶湯문화와 다기들을 매우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어 일본의 차 문화와 도자기를 이해하기에 더없이 좋은 글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토론에 임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면서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거론보다는 짧은 紙面과 발표시간 때문에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하고자 한다. 외국인들로서 일본의 차 문화와 도자기를 완전하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제 질문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에서 ‘茶湯’이라 하는 용어는 중국의 송대에 유행했던 것처럼 차를 마시는 ‘茶’와 약초를 달여 혼합해 섞은 ‘湯’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본에서도 같은 방식의 차 문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선생님의 글을 통해 일본에서는 平安時代 이래 江戸時代 초기까지 어떠한 다기들이 활용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시대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차도구는 당시 동아시아의 차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면서 또 일본을 중심으로 변화된 차 문화를 포괄하는 器物들이 선호되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茶法은 크게 唐代를 중심으로 烹茶法〔煮茶法〕이 활용되다가 宋代에 點茶法(다른 다법-煎茶法-도 공존), 明代 이후 泡茶法〔泡瀹法〕으로 바뀌어 갔고 포다법의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다법의 변화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했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어떠한 다법이 선호되었는지 잘 알 수 없다. 일본에서 시기별로 유행했던 다법의 변화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당시 수입되었던 茶器들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겠다.

셋째, 3절의 唐物 내용 중에 있는 建窯제작의 하한연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福建省의 건잔은 建窯제품이 오리지널이지만 복건성 내의 많은 諸窯는 건잔의 유사품들을 만들어 중국 내수는 물론 도자의 수출에 대응했다. 중국의 栗建安 선생은 복건성의 건요계흑유다완의 생산시점을 송말까지로 보았고(栗建安, 1994),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1323년 하한의 신안 유물전에서 출토된 건잔들은 일본의 왕성한 건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내에 남아 있던 건잔들을 모아 선적했다는 의견도 있었다(鄭良謨, 1994). 그러나 복건지역 내에서 발굴된 가마 중에는 퇴적층위에서 원대 초기까지 흑유자기를 생산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會凡, 1983, 「福建陶磁の歴史」). 또 복건성 三明市 부근에서 발견된 최근의 조사사례 중에는 남송 말에서 원대까지 이어지는 가마 중에 흑유자기가 확인되어 있어(福建美術出版社, 2003, 「三明窯」), 건요계 다완의 생산시점을 송대로 제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안선은 골동품을 판매를 위한 무역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선적된 건잔들은 원대에 생산된 건잔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넷째, 일본에서는 村田珠光(1423-1502)이후 千利休(1522-1591)로 이어지는 茶人들을 정점으로 侘茶(わびちゃ)가 정립되었다. 이때 선호되었던 다기중 하나가 조선다완이었다. 그리고 조선다완에 대한 기호는 수입을 넘어서서 17~18세기에 對馬島 藩主가 부산 왜관에 다기를 주문했던 釜山窯의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片山まび, 2014). 이 과정을 살펴보면 桃山時代 이후 江戸時代의 일정한 시점까지 일본에서는 조선다완을 애용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江戸時代 후기가 되면 기록이나 유물에서 그러한 사례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江戸時代 후기에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온 것인지 한국도자사를 연구하는 절의자로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唐宋의 茶文化과 茶器」에 대한 토론문

李 鍾 玟(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중국에서 도자기의 발달을 가져 온 가장 중요한 배경은 차 문화의 발전이었다. 중국의 차 문화는 기원이 상당히 올라가지만 唐代에 들어와 통일된 茶法으로 정리되었고 宋代를 거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서은미 선생님의 글은 기록을 담은 문헌자료와 도자사 관련 참고자료를 인용하여 당송시대의 차 문화와 다기, 차 산업, 고려의 차 문화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깔끔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누가 이 글을 읽더라도 중국 차 문화의 변천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또 딱딱한 논문체 형식을 떠나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면서 상상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전개한 것도 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었다.

본 질의자는 중국의 차 문화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질의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딱히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차 문화의 발전이 곧 도자기의 발전과 직결되던 시대였으므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토론문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다(茶)’와 ‘탕(湯)’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삼국시대의 차 마시는 법은 『광야(廣雅)』의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가루차가 담긴 그릇에 끓는 물을 붓고 파, 생강, 꿀 등을 함께 넣어 마셨다고 한다. 또 8세기 대 양엽(楊翳)의 『선부경수록(膳夫經手錄)』의 기록 중에는 ‘남조의 진(晉)과 송(宋, 남조) 이후 오(吳)지역 사람들이 차 잎을 채취하여 달여 마신 것을 명죽(茗粥)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삼국시대와 남조에서는 차를 죽처럼 끓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첨가제를 넣어 음용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대에는 『다경(茶經)』에 서술된 것처럼 소금을 추가하는 정도로 첨가제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차 마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후대의 기준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다와 탕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당대까지의 차 마시는 방법은 다와 탕의 구분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지 알고 싶다. 또 다와 탕의 본격적인 구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회화자료와 실물자료를 통해 본 다법의 지속성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은 영태(永泰) 원년(765년)에 초고가 쓰여지고 대력(大曆) 10년(775)에 증보되었으며 대력(大曆) 14년(779) 후에 완성된 책이다. 이 책의 네 번째 부분(四之器)에서는 총 25가지의 차를 마시기 위한 각종 다구(茶具)를 수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도구로는 ‘재방(滓方: 5되짜리 차 찌꺼기통)’으로, 현재 추정하기에는 흔히 타호(唾壺)라 불리우는 기물이 이것이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재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타호의 존재는 타이페이 고궁박물관 소장의 <궁락도(宮樂圖)> 좌측에서 이와 관련한 기물이 묘사되어 있으며 실제로 당대부터 북송 초에 이르는 월주요산 청자 중에서도 실물이 집중 확인된다. 타호는 1099년 기년의 백사송묘(白沙宋墓)나 1116년 기년의 장세경묘(張世卿墓), 1117년의 장공유묘(張恭誘墓)의 벽화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대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기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기물이 자다(煮茶)나 쑤다(烹茶)방식으로 끓인 다법의 활용 시에 찌꺼기를 폐기하기 위한 기물이라고 볼 때, 송, 요시대를 걸치는 점다법(點茶法) 하에서는 별로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송이나 요대의 벽화에 그려진 타호와 점다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다법과 기물과의 크기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다. 송대에서는 투다(鬪茶)가 유행하면서 특히 흑유제

건잔(建盞)이 애용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찻술로 가루차를 휘저을 때 생기는 유막상태의 거품 꽃인 ‘탕화(湯花)’의 모양과 색깔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기물이 건잔이었기 때문이다. 투다는 탕화가 잔의 구연부 언저리에 붙도록 해야 하며 차의 색이 백색을 띠도록 짓는 기교가 필요하다. 건잔이 당시 고려와 일본에도 전래된 것을 보면 투다는 동북아시아에서 유행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건잔은 찻술로 찻물을 저어(擊拂) 탕화를 일으키기에는 기물이 작은 편이다. 혹시 어떠한 방식이 활용되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는지, 혹은 건잔의 경우 탕화를 만드는 잔이 아니라 다른 큰 기물에서 탕화를 일으켜 부어먹는 용도로만 사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찻술로 격불(擊拂)하는 과정



탕화(湯花)를 완성한 상태의 말차



국내출토 건요계 찻잔(建盞)

‘하사미(波佐見) 청자 -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 ’의 토론문

金 允 貞(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제작된 하사미 청자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하사미 지역 자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나카노 유지 선생님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도자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지만 발표 내용과 선생님의 다른 글 등을 읽으면서 궁금하던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 시기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청자 제작의 초기에는 20년에서 30년 단위로 시기가 나누어지고 마지막 시기는 120년간인데, 編年 기준이 되는 사항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발표에는 朝鮮人 陶工이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李祐慶’이나 『鄕村記』에 등장하는 ‘秀山’ 등 조선인 도공이나 조선시대 자기와의 영향 관계와 관련된 하사미 지역 자기 제작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3. 하사미 窯業은 백자와 청자가 같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17세기에 한국과 중국에서는 청자보다는 백자 위주의 자기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하사미에서 청자가 중점적으로 생산된 원인이 무엇이며, 용천청자와의 영향관계를 언급하셨는데 17세기에 일본으로 유입된 용천청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심포지움의 주제가 ‘차와 도자의 만남’이고, 에도 시대에 여러 지역에서 자기가 제작되는 주요 배경이 ‘飲茶’의 성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사미 청자에서 차와 관련되는 기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 도자기의 정수, 용천청자’의 토론문

金 允 貞(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 용천청자가 20세기 이후에 다시 예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강진과 같이 전통 도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중국 도자에 대한 전공자는 아니지만 현대 용천 청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 용천청자의 제작 기술이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천요보다 경덕진요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용천청자의 전통 제작 기법 중에 어떤 부분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주요하게 인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최근 한국에서도 20세기 이후에 전통 도자를 재현한 도예가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에서도 20세기 이후에 ‘용천 청자의 仿古’를 시도했던 도예가들에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20세기 초반에 ‘방고청자’를 제작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예를 들어 당시 ‘방고청자’에 대한 수요층이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들의 도자 제작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방과 같은 단체로 활동했는지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대 용천 청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대 용천 청자 제작이 1998년에 많은 기업과 개인 공방이 침체에 빠졌다가 이후에 여러 정책들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발표에서 언급하신 용천 청자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많은 일들을 추진한 주체가 어디이며 -절강성이나 중앙 정부에 담당 기관이 있는지, 민간단체인지-, 주요 성과들이 주로 2000년대 이후부터 많이 보이는데, 당시에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천 청자가 발전하는데, 도예가나 기업 등에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원금이나 지원책이 있었는지요.

